

제427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29일(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인사청문요청안
-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인사청문회

상정된 안건

- | | | |
|-----------------------------------|-------|---|
|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인사청문요청안 | | 2 |
| 2.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인사청문회 | | 2 |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및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규환 조사관입니다.

김유수 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위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그리고 미디어 정책까지 아우르는 종합 부처의 장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최희영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적임자인지를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 도덕성, 리더십 등을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국민 앞에서 계신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과 철학을 담아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인사청문회

(10시05분)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인사청문회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29일

공직후보자 최희영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최희영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존경하는 김교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우리 문화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보여 왔습니다. 최근 노벨문학상, 토니상 수상에 빛나는 문화예술인들의 성취는 음식, 패션 등 한국의 라이프스타일까지 주목받으며 오래전 김구 선생님이 그토록 꿈꾸던 문화의 힘을 현실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의 성취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 문화의 저력을 더 크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할지 함께 짚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21세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기에 변화의 파고를 몸소 경험했습니

다. 돌아보면 단순히 해가 바뀌는 시간이 아닌 근본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우리 일상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미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시각으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상상력과 창의성, 생각하고 통찰하는 힘을 길러내는 문화예술과 인문이 창작의 씨앗이 되도록 하고 문화를 재창조하는 자양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들이 문화로 행복한 삶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 모든 여가 활동을 위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게 장관이라는 막중한 소임이 주어진다면 제가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살려 다음의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국제경쟁력입니다. 케이팝, K-드라마, 게임, 웹툰, 출판 등 콘텐츠 산업은 2023년 매출액 154조 원, 수출액 133억 불로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여 온 국가 핵심 산업입니다. 영화, 게임 등 핵심 산업이 처한 위기를 돌파하고 콘텐츠 제작사, 토종 OTT 등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향해 힘차게 날 수 있도록 돋겠습니다.

콘텐츠 IP를 기반으로 성장을 돋는 정책금융 확대, 세제 지원, 문화기술 R&D 혁신,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대전환에 발맞춰 AI 콘텐츠 창·제작, 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 문화가 반영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제품들이 문화의 옷을 입고 그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국제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류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겠습니다.

둘째, 문화의 저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기초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창작 공간을 확충하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예술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 강화하고 예술인 권리침해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인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핵심 인재를 키우고 청년·장애 예술인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우리 콘텐츠산업과 창작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고 엄격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로 촉발되고 있는 저작권 이슈들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 스포츠, 여행을 누리는 것이 기본적 삶의 권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인공지능·로봇 등으로 늘어나는 여가 시간이 삶의 활력을 되찾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쉽게 문화예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주민 문화 활동 기반을 확대하여 일상 속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문화복지률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는 특별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스포츠 강국 위상에 걸맞게 전문체육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체육 영재부터 국가대표까지 전문 선수를 발굴해 육성하고 체육인 복지 및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와 개최 지원, 스포츠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 등 스포츠외교의 영향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관광산업 혁신을 통해 방한 관광 30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K-컬처의 인기가 지역 곳곳을 찾는 방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관광의 전략과 새 틀을 짜겠습니다.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의 개선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기업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고 관광산업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MICE, 크루즈, 치유 등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되도록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고 정책화하는 모든 과정에서 소통에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과 국회의 준엄한 뜻을 깊이 새기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성심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김승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말씀하세요,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저번 청문계획서 채택할 때 이번 청문회가 증인·참고인 한 명도 채택되지 않고 후보자의 자료제출 정도가 지극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성실한 자료제출을 촉구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전혀 자료제출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언론이라든지 또 동료 위원들의 지적을 통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자녀들의 중여세 탈루 의혹 또 영주권 편법 취득…… 여러 가지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것들은 물론이고 지금 후보자께서는 각종 기업의 대표 또 창업까지 했었는데 그 기업 경영 과정에서의 경영 능력이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료조차도 일절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문체부에 요청한 자료가 161건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제출된 것은 89건에 불과한데 제출된 것 중에서도 36건은 개인정보 이유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용을 적어서 제출한 것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역대 최악인데, 이번에 청문회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지금 후보자의

자료제출률을 보면 가장 최악의 수준입니다. 낙마했던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 87%,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 63%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 후보자의 자료제출률은 저한테 제출한 것을 따져 봤을 때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인데 거의 국무총리 수준으로 자료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동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53개 기관의 수많은 자료들이 왔습니다만 검토하는 데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개인정보라서 제출할 수 없다는 거고 제출했던 정책 관련된 내용들도 보면 거의 구체성이라든지 후보자의 소신이 없이 아주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과거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때는 자료제출 부실을 이유로 3일 동안 청문회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문체위만 하더라도 과거 박보균 장관 시절에는 박보균 장관의 결혼식 관련되는 비용, 하객 수 또 장녀의 삼성전자 입사서류, 채용평가, 이런 자료들까지 다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한 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보균 후보 측은 예식장 계약서 또 자녀들의 재직 회사에 요청해서 근무·인사이동 이런 기록까지 제출했어요.

지금 후보자님 이런 데 대해서 다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혹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지 우리가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김승수 위원 자료를 줘야지 우리가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이 청문 자료제출 거부는 범죄적 인생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료제출 못 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문체부장관의 정부에서의 기능이 뭘지 아닙니까? 문체부장관은 정부 대변인 아닙니까? 정부의 홍보와 소통을 책임지는 그런 장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 하는 후보자의 태도를 보면 소통이 아니고 불통 전문가 같습니다.

자료제출에 임하는 태도만 보더라도 문체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저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자녀, 특히 영주권 취득 관련해서 미국 내 그런 취업 또 영주권 취득 과정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을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교홍 지금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 끝나고 장관후보자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자료도 충분히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오 위원님.

○진종오 위원 먼저 의사진행 관련해서 오늘 회의에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인사청문위원의 정당한 의혹 제기에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진실되게 답하는 자리지 여당 위원이 해명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틀고 싶었으나 화면을 못 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놀유니버스가 합병하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등의와 관련해서 놀유니버스의 노조 측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이고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검증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후보자가 아닌 여당의 임오경 위원께서 사 측의 입장만을 듣고, 정확히는 사전 설명회 안건만 듣고 언론에 상대당 위원의 의혹 제기에 사실무근이라는 반박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줄곧 약자 편에 서겠다고 하셨는데 사 측의 이야기만을 듣고 후보자도 아닌 민주당 위원이 해명 자료를 올리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히려 임오경 위원께 되묻고 싶습니다. 사 측의 취업규칙 변경 등의 과정에서 사전 설명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을 수 있는지, 전자서명이 각각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각각의 동의율은 어땠는지, 이사회 회의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고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 측은 그것에 대해서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저희 야당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 그 자료들을 보시고 저런 사 측의 의견만 반영하는 반박 자료를 내셨다면 여당에만 자료를 제출하고 야당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런 자료도 충분히 보지 않은 상태로 노조와 야당 위원이 정당하게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 사 측의 의견만 듣고 언론에 저런 식으로 반박 자료를 올리시는 것은 요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메신저에 대한 공격도 아니고 정권 충성을 위해서, 약자 편, 노조 편에 서겠다는 민주당의 정체성과는 상반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게 질의응답하는 자리인지 문제 제기 한 상대당 위원에게 질의응답하는 자리인지는 명확하게 규정해 주셔야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만하시지요, 이제.

○진종오 위원 한마디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임오경 위원께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전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그랬듯이 검증되지 않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한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 발언에, 본 위원과 의원실 보좌진을 모욕하는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와이유니온 노조에게 사과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얘기기는 하지만 자료제출은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이제 자료제출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은 그만하시지요. 충분히.....

○조은희 위원 아니아니, 저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또 있어요?

○진종오 위원 그것은 짧게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조은희 위원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드릴게요.

진종오 위원님이 조금 전에 노사 문제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따가 진종오 위원님 질의 시간에 장관후보자께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이건 진종오 위원님 말한 것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먼저 말씀하세요.

○임오경 위원 임오경 위원입니다.

먼저 진종오 위원님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고요.

여·야당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변인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기사나 또 어떤 대변인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에 있어서 반박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저희 문체부장관후보자께서 많은 자료들을 제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좀 의혹이 생기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언론에다가 자료제출과 함께, 증빙과 함께 해명을 하는 게 그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본 회의장에서 상대 위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 질문에 있어서는 충분히 후보자가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의 잇따른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인수위도 제대로 한번 꾸려 보지도 못하고 정부가 출범하기를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60%가 넘는 지지율을 보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자성이라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은희 위원 살살하세요!

○임오경 위원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은희 위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청문회 여기가 국민의힘 위원 청문회입니까?

○임오경 위원 내란 잔당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만들 하십시오.

아직 의사진행발언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조은희 위원 아니, 우리의 명예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임오경 위원 끼어들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조은희 위원 우리 얘기를 안 했으면 끼어들지 않지요!

○위원장 김교홍 정리 좀 하세요.

○임오경 위원 내란 잔당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임오경 위원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내란 잔당들 아직 처리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임오경 위원님, 이제 그만 정리 좀 해 주세요.

○임오경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들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청문회 방해하는 겁니까, 지금?

○임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들어 주십시오. 들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왜 우리를 모욕합니까?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임오경 위원 상대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존중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우리가 아직……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뭔지는 알고 하십니까?

○임오경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다시 공부하세요!

○위원장 김교홍 우리가 아직 질의도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장관후보자를 모셔 놓고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임오경 위원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정부를, 망가뜨린 국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민들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야당 위원님들은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언론페이지로 재미 보려는 데만 몰입하고 그러지 마시고 대선 불복……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합당한 사유도 논리적 근거도 없이 비방과 인격 살인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란과 각종 비리를 저질러서 구속되고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오십여섯 군데에서 상임감사 등 120여 명이 단체로, 단체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김승수 위원 청문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게.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정연욱 위원 이것 의사진행발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정리해 주세요, 정리.

○임오경 위원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보도되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위원장님, 제 발언은 끊고 지금 임오경 위원은 계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발언은 잘라 버리고!

○임오경 위원 낙하산·알박기 인사들이 임기 종료 직전에 황급히 다녀온 먹튀 출장입니다.

○진종오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할 때는 말을 자르시더니 이것 계속 가는 겁니까?

○임오경 위원 조직적인 혈세 낭비와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은 왜 한 말씀도 안 하십니까?

○진종오 위원 위원장님, 공평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정리해 주시지요. 정리해 주세요.

진종오 위원님은 이미 3분을 쓰고 나서 얘기고 여기는 이제 3분 끝나는 마당이니까 그렇지 내가 무슨 한쪽에 편중돼서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조계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데요. 조은희 위원하고……

○조계원 위원 먼저 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아니, 조은희 위원이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은희 위원 하시고……

○조계원 위원 아니, 아까 손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아, 그랬어요?

○조계원 위원 예.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이제……

아니아니, 조은희 위원부터 하고 그다음에 하세요.

○조은희 위원 바꿔 가면서 하시지요.

○조계원 위원 하세요.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양보하시는 거예요?

○조계원 위원 예.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회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국민 앞에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는 패턴이 있습니다. 중인·참고인 제로, 불리한 자료제출 제로 그리고 하루만 베티기. 이것은 인사청문회 아니고요 의석 많다고 청문회 흉내만 내는 겁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요 어떻게 했냐? 자료 못 내면 장관 하지 말고 사인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 자료제출, 장관 하시려면 자료를 똑바로 제출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46건의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출 불가가 4건이고요, 개인정보 부동의가 42건에 이릅니다. 특히 후보자 장녀의 경우 네이버 경영고문을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 네이버 자회사에 딸을 취업시키고 그 딸은 미국 영주권을 얻자 10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네이버 자회사 특혜채용 의혹입니다. 장남의 경우는 부동산 편법증여 의혹과 같은 재산 축소 논란 등 두 자녀 모두 아빠 찬스 의혹이 지적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최소한 후보자 자격 검증을 위해서 다음 자료가 필요한데 안 내요. 안 냅니다. 자료 꼭 제출하게 해 주십시오.

아빠 찬스 불공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후보자 직계비속의 기업, 관공서,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수행 및 수료한 인턴십,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 사회참여 활동 내역 일체 및 설명자료, 둘째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께서 요청한 자회사 특혜채용 관련한 자료와 함께 자녀의 학력 및 대학입학전형 종류, 해외 유학 및 어학연수 내역 그리고 중여성 해외 송금을 통한 탈세 의혹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10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의 해외 송금 내역 등을 오후 개의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후보자에게 위원장님께서 꼭 확인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지금 조은희 위원 얘기한 것에 후보자께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고 이따 또 질의시간에도 성실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조은희 위원** 아니, 오후 개의시간 전에 내 달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오후 시간 전에 내 달라고……

○**위원장 김교홍** 제 얘기가 그거지요. 답변하고 제출하라면 오후까지 내야지 오늘 끝나는데 그러면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조계원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조은희 위원** 오후 개의 전까지 부탁합니다.

○**양문석 위원** ‘오후 개의 전까지’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조은희 위원** 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말씀하세요,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여수시을 출신의 조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인사청문회 자리가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의 신상을 털거나 이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개인정보 부동의 관련해서 42건의 부동의가 있었다 하는데 저는 필요한 자료들은 이미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혹과 관련된 자료는 이미 제출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휘영 후보자에 대한 자료 요구를 보면 후보자가 근무했던 민간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것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당 기업, 민간기업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거부한 것 아니겠는가. 내용도 보면 대표 재직시기 동안 연도별 직원복지제도 운영 현황 및 변동사항, 각 근무처에서 재직 당시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합병 시 이사회 회의록 일체 및 이사진 명단, 회사 가치 비교자료 이러한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도 위원의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공하는데 민간기업에서 회사의 경영정보를 쉽게 내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퇴직한 대표의 재직 시의 법인 카드 내역, 이것 공공기관도 아닙니다. 민간기업이잖아요. 그리고 회사 가치 비교자료 등 어느 기업들이 이러한 자료들을 아무리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라지만 응할 수 있을지 그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가족과 관련한 자료 요구를 보면 자녀 학교의 생활기록부, 입시 및 취업 지원 서류, 출입국 기록, 외환 환전 및 송금 내역 등 이러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근무했던 민간기업에 대한 자료와 가족의 신상에 대한 자료 요구가 다른 어느 청문회 때 자료 요구 수준의 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장관도 저희 당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출입국 기록, 자녀의 봉사활동 내역 관련 스펙, 입시나 해외 대학 진학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전체 다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률이 가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높았다고 평가받는 유인촌 전 문체부장관도 가족의 신상과 관련된 자료제출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위원장님께서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직후보자의 가족이 아닌 공직후보자의 자질 그리고 정책 역량 검증에 충실했을 수 있도록 원활한 의사진행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잘 알겠습니다.

이제 사전 질의는 박정하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하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 같은데 주질의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전체회의 하면서 증인·참고인에 대해서 전혀 채택치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빨리 조속히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는 큰 대의를 위해서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위원장님께서 우리 김승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증인·참고인 채택을 안 하더라도 그것이 자료 속에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에게 분명히 얘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짐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후보자의 자질,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 과연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 조계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부득이 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중에는 우리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의 특혜채용 그다음에 중여세 납부 문제, 해외에서의 생활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증빙이 돼야 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아드님에 대해서 병적자료는 내고 나머지는 못 낸다는 게 뭐예요? 선별적으로 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다짐을 한 번 더 받아 주시고요. 가족과 관련하지 않은 부분,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돼 있는 도서문화재단씨앗과 관련한 요구의 핵심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지 않아요. 쭉 보니까 출연재산의 매각 내역, 재단 이사 및 임원 상황 이런 것들도 내지 않고 관련자들의 연락처마저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말씀 마시고 저는 이 자료가 있어야 후보자의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느 선까지 제출이 가능한지 후보자께 다짐을 받아 주시고 그때까지 자료 검토를 위해서라도 자료가 제출된 이후 저희 당 위원들이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위원후보자가 제대로 검증이 돼서 옳게 우리 사회의 문화·체육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마는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요청하시고 후보자의 정확한 답변을 받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장관후보자께서도 알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 요청, 요구가 많은데요. 개인정보에 관련된 건 만약에 불가피하다면 오후까지 그걸 제외하더라도 꼭 자료를 성실하게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교홍 이제 의사진행발언 그만하기로 했잖아요.

○배현진 위원 예,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래요.

배현진 위원님까지 마지막으로……

○임오경 위원 저도 자료제출 관련돼서……

○위원장 김교홍 자료제출? 그러면 임오경 위원님까지.

그런데 이게 진짜 주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같은 얘기 똑같이 하면 맥락이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보셔서 제대로 의사가 진행되고 오늘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현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자료제출에 관한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시면서 ‘개인정보에 관한 한 일부 불가피하더라도’라는 단서를 다셨습니다.

그런데 장관직이라는 것은 일개 사인이 아닙니다. 옛날로 치면 정승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요. 공인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되느냐라고 판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여 이 개인이 사회에서 사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지위와 어떤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서 일반의 보통 국민, 보통 시민들이 누릴 수 없는 특혜를 그 본인과 가족이 누렸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도덕성과 윤리적 면에서의 검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녀와 그 가족의 일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장관의 가족에 대한 신상은 저희 위원들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신상 털기가 아니라 저희가 제기한 특혜 취업 아니면 영주권 취득에 관한 편법·부당 취득, 혹은 중여에 관한 문제 등 보통 국민들과 다른 특혜, 특정 사항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 과정입니다. 그것을 마치 ‘개인정보인데 우리 가족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살살이 신상 털기를 하십니까?’라는 피해자 코스프레의 자세로 오늘 청문회에 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전 중에 저희가 요구한, 이를테면 취업과 관련된 회사에서 그리고 학적 사항에서 충분히 검증됐을 만한 자료들 그리고 기관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세무에 관련한 그런 여러 자료들도 제출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취업 문제는 이미 언론에도 났잖아요. 그런 거 왜 자료를 안 냈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출될 수 있는 자료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배현진 위원 아니, 질의하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왜 안 냅니까? 말로 때우지 말고 내세요, 자료를.

○위원장 김교홍 그렇게 자료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조은희 위원 왜 단서를 붙여요, 질의하면이라니?

○위원장 김교홍 그리고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임오경 위원 박정하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핵심 자료는 진짜 장관후보님께서 오후까지 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한다면 무엇 하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인사청문회는 자료로, 자료 청문회를 하시지요, 그냥. 위원장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를 100% 낸다면 왜 장관에게 질문이 필요합니까?

○배현진 위원 간사님, 무슨 궤변이세요, 그게? 자료가 있어야 검증을 하지요.

○임오경 위원 그래서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자료 청문회도 앞으로는 검토해 볼 만하지 않나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료 부실에 대해서 계속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박보균 전 장관은 딸의 CJ 채용이 특혜를 넘어서 4년 새 연봉이 2배나 상승했음에도 그 관련 자료, 답변, 끝까지 부인하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인촌 장관은 장남에게 7억, 차남에게 17억짜리 아파트를 사줬음에도 증여세는커녕 자료 및 근거조차도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최휘영 후보자는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를 완납하고 내역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혹에 대해 합리적 설명도 하고 있고 지금부터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통해서 답변을 저는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장관들도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비공개했고 최 후보자 또한 전례에 준해서 자료제출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게 후보자의 품격 있는 정책 역량 검증 청문회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여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주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에서 모든 게 다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주질의가 이렇게 되면 별로 할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나중에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로 대구 북구을의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후보자님, 문체부 후보자로 관광 플랫폼 또 경영 전문가다 해서 이렇게 추천했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경영 전문가가 아니고 진짜 비리 종합세트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전문가, 먹튀 전문가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불법 재산 증식과 관련해서 투기 의혹, 재산 축소 의혹 또 합병 과정에서 본인의 사익은 늘리면서 투자자들한테 제대로 배당을 하지 않은 먹튀 전문가, 증여세 탈루 의혹 또 편법 자녀 취업과 또 영주권 취득, 전입과 관련해 가지고도 장남 거주지에 느닷없이 후보자가 투자한 들국화컴퍼니의 주소지가 그쪽으로 돼 있고 배우자도 일시적으로 거기에 전입했다 다시 또 전출하는 이런 의혹들이 여러 군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후보자는…… 지금 현재 후보자가 제출한 최근에 소유하고 있거나 최근에 매도한 것들 보면 거의 서울 근교의 요지에 부동산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후보자와 연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연고가 없는 그런 시들에 이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투자의 귀재라는 것이 지금 몇 년 동안 투자해 가지고 무려 수익률이, 거의 1000% 가까운 수익률을 냅니다. 한 5년 정도 투자해 가지고 이 정도 수익을 낸다는 것은 위런 베풋도 저리 가라 할 정도인데, 예를 들면 2002년도에 이천 소재 땅은 210평을 1500만 원에 샀는데 2011년에 그것을 1억 500만 원에 팝니다. 무려 600% 수익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6400만 원 주고 산 아파트는 5년 뒤에 6억 6500만 원, 무려 939%, 거의 1000% 가까운 수익률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인 것은 용인의 여러 가지 땅을 2010년 또 2017년·18년 이렇게 매입했었는데, 이 용인 땅 매입 왜 한 겁니까?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김승수 위원 용인 땅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수 위원 예. 이것 왜 매입한 거예요, 무슨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용인은 제가 2010년에 전원주택 생활을 하려고 사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붙어 있는 맹지 땅인데요. 이 땅은 17년에……

○김승수 위원 그것 맹지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 봤어요. 길에 붙어 있는데 지금 지목이 맹지로 잘못돼 있는 부분이고 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만 정정을 하면 굉장히 고액의 토지로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땅들입니다.

문제는 이 땅들이 굉장히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2010년도에도 하고 17·18년에 또 매입을 했었는데 이런 임야들의 바로 인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클러스터 추진 발표가 18년 12월에 있었는데 매입한 시점이 2017년·18년입니다. 거기 가서 인근 주민들, 부동산 중개업자들한테 수소문해 보니까 이 당시에 주민들 조차도 여기에 반도체클러스터 부지가 들어선다는 내용을 몰랐다는 겁니다.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소수만이 미리 이때 땅을 매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전원주택 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아들한테 다 증여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이게 보면 아무런 목적 없이 투기성으로 이렇게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취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

다.

그리고 이게 증여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의심 사례가, 당시의 구매가격이 2010년도에 10억이었는데 그 뒤에 아들한테 증여할 때는 감정평가액이 9억 5000입니다. 오히려 10년이 지났는데 이 요지의 가격이 매입금액에도 못 미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누구라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10억보다 적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율이 4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이게 이렇게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 감정 평가사하고 어떻게 내부적으로 짜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사가 뒤에 부정한 감정평가로 감정평가사에 대한 최대한 징계를 받은 그런 전력이 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액도 내부적으로 하향 조작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투기 의혹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후보자 이외에 다른 직계존비속의 정보는, 토지거래 이런 부분은 자료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후보자님, 최근 20년 동안 여기 제출한 후보자님 이외에 배우자·장녀·장남 명의의 부동산 거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신고한 내역 외에는 없습니다.

○김승수 위원 신고한 내역,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의 20년 동안 부동산 거래내역, 취등록세 그것 자료제출하세요. 왜 그렇게, 없으면 떳떳하게 자료제출을 왜 못 합니까?

뒤에 한번 보십시오. 또 의문이 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후보자, 첫 집을 매입한 게 언제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첫 집을 매입한 것이? 여러 번 이사를 했던데, 주소 변동을 보면.

이 주소 변동기록을 봐도 굉장히 의문스러운,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93년도 단 2개월 근무하고 송파구에서 마포구로 또 옮깁니다. 마포구에서는 10개월 근무하고 또 옮깁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후보자는 그대로 그냥 서울에, 배우자는 또 안양에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도 보면 아들한테 증여했지요, 2021년도에. 증여하기 전에 후보자 배우자가 그 집에 잠시 또 전입을 합니다. 전입하고 또 단 2개월 거주하다가 나와요. 이런 주소 이동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2002년에 저희가 자가를 매입하기 전까지는 전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김승수 위원 전세를 살았는데 그러면 왜 후보자하고 배우자하고 이렇게 따로 거주를 한 것이며, 전세를 살더라도 그러면 93년도에 2개월만 거주하고 전세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까, 2개월 만에? 이사하고, 그러면 이사 옮기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한테 드러난 자료만 가지고도 이러는데 후보자 직계존비속의 20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내역 이런 것들을 또 재산세, 취등록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래내역을 제출하면 ‘아,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텐데 제출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떳떳하면 제출하세요, 그런 자료를.

○위원장 김교홍 후보자님, 지금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를 죽 하셨어요. 답변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답변을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천 땅은 저희 아버지 땅인데 아버지가,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상속을 받게 돼서 명의가 그렇게 온 거고요.

그다음에 용인 땅은 말씀하셨던 2017년·18년은 저희 집에 붙어 있는 맹지 땅인데요. 그분들, 소유주가 내놓으셔서 제가 매입을 한 겁니다. 제가 가서 산 게 아니라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혹시 사겠냐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저는 집에 붙어 있는 땅이라서 저한테 그게 있으면 저희 쪽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산 거지 제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생기는지는 다른 일반 주민과 마찬가지로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맹지가 아니라니까요. 도움이 어떤 도움이 됩니까?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겠지요. 용도가 있었으면 그걸 자녀한테 왜 또 증여를 합니까, 본인이 그걸 활용을 했어야지요.

○위원장 김교홍 질의시간이 끝나셨으니까요.

그게 맹지입니까, 땅 산 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저희는 맹지로 알고 있는데요. 길이 맞닿아 있지 않은 땅이고요.

○위원장 김교홍 그거 분명하지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원래 사놓은 땅 바로 붙어 있는 땅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붙어 있는 땅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더 말씀하세요.

○김승수 위원 지목은 맹지로 돼 있지만 도로와 연접해 있어서 맹지가 아닙니다. 직접 가보고 확인한 거예요.

○위원장 김교홍 말씀하세요, 또. 아파트 계속 옮겨 다닌 것도 질의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감정평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낮춘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하는지도 잘 몰랐는데요. 세무법인이랑 상의를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소개시켜 주는 업체랑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적법한 법령에 따라서 신고를 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무서에서도, 국세청에서도 그렇게 받아 줬고 그래서 저는 정상 납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또 세무 당국의 어떤 다른 문제 제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왜 다운시켰다는 말씀을 듣는지는 잘 이해는 못 하고 있고요. 저는 적법하게 했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다 하신 거예요?

○김승수 위원 배우자가 여기 전입했던 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배우자가……

○위원장 김교홍 김승수 위원님, 질의시간이 이미 끝났는데 왜 계속해서 하십니까?

○김승수 위원 아니, 답변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교홍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것은 의사를 그렇게 끌고 나가시면 안 되고 또 추가질의가 있잖아요. 그때 또 말씀하세요. 다른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이 답변 기회를 주는데 빠뜨린 게 있어서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교홍 아니, 아파트 자꾸만 이동한 것 그것 아까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90년대에 저희가 계속 이동했던 것은 저희 부모님 계시는 곳에 들어갔다 나왔다하면서 그때 짧았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는 저희가 계속 전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동이 잦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용인에 있는 집에 잠시 머물렀다가 또 온 것은 그 당시에 어쨌든 용인에 집이 있는데 계속 아무도 안 사는 것처럼 비워 놓고 있기가 뭐해서 저희 집사람이 그쪽으로 옮기고 그쪽에 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런데……

○김승수 위원 2개월 가 있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2개월 가 있었는데 옮겨 놓고 보니까 우편물이 라든지 처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해서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 다시 그냥 합치는 게 좋겠다 해서 다시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잠시 그렇게 큰 집을 하나 비워 놓고 있었기 때문에 갔다 온 것이지 그 외의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앞으로 또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박수현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께 인사청문회의 의미에 관해서 한말씀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인사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1차로 인사 추천을 하는 대통령실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고 2차로는 그렇게 지명이 되었을 때 언론을 통해서 검증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증 절차가 바로 국민의 검증인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증이 불충족했다거나 이런 비판보다는 지금까지의 모두가 다 검증의 기간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검증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도 ‘오늘 하루만 대충 여당의 비호 아래 넘어가면 내가 장관이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을 보니까 당연히 지적받을 만합니다.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천 땅은 상속받은 것이고 용인 땅은 그렇게 소유주가 먼저 매각 의사를 밝혀서 구입한 것에 불과하고 맹지이고 이렇게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데 왜 자료제출 그런 것들을 잘 못해서 이런 지적을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지금까지 앞으로 하루종일 국민 앞에서 말씀하실 이 모든 내용

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의 저런 따끔한 질책을 받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후보자 책임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십시오.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저도 여당 위원이지만 야당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지나치게 어떤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에 관계된 것이라고 비호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충분하게 국민의 검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오늘만 통과하면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이 검증 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 앞에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국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서 제출을 하고자 했으나 미흡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최대한 지금이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협의해서 자료제출을……

○박수현 위원 조건 달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제가 늘 이런 청문 과정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가족과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될 수 있으면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님의 장녀 취업과 관련한 그런 기사들을 제가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번 상상을 통해서 질문을 해 볼 테니까 자녀의 개인정보나 따님의 어떤 여러 가지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민감한 부분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님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이 별로 없는데 알려진 것이 2010년 5월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하는데 어디를 졸업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딸은 뉴욕대학, NYU 스텐 비즈니스 스쿨 (Stern Business School)을 졸업했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이 뉴욕대학교는 굉장히 유서 깊은 학교, 명문 대학이고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스텐 비즈니스 스쿨, 경영대학인데 이게 세계에서 몇 번 째 안 가는 굉장히 상위권의 경영대학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유명한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 학교에서 따님이 어느 정도의 성적으로 졸업했는지는 민감한 문제니까 여쭙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유명한 경영대학을 졸업하셨다면 그걸 졸업하시고 결과적으로는 금융 분야나 이런 곳에 스카우트되거나 취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야에 취업할 의사가 없었습니까? 또 그런 시도는 없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딸은 대학교 4학년이었던 2015년 10월에 글로벌 회계법인에 취업이, 합격이 됐었고요.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확정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이 2016년 5월이었는데요……

○박수현 위원 아니, 그런데 졸업 전에 그 회계법인에 입사가 확정되었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10월에 입사가 확정돼 있었습니다.

○박수현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가면 되지 왜 지금…… 웨이브미디어인가요? 이 회사 여기보다는 처우도 좋았을 것 같고 그런데 왜 여기를, 회계법인에 안 가고 여기를 갔습니까? 그래서 왜 의혹을 삽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2016년 5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글로벌 회계법인에 출근하는 날짜가 2016년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 반 정도 시간이 비어서 잠시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들어왔다가 친구가 그때 네이버에서 글로벌 마켓리서치, 시장 조사하는 알바 같은 걸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권해서 일이 많으니까 같이 해 볼래 해서 네이버에 잠깐 들어가서 한 20일 정도 마켓 리서치하는 알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이버가 미국에 이런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설립할 때여서 거기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지원한 것도 나중에 들었거든요. 저는 8월 달에 글로벌 회계 회사에 들어가는 줄만 알고 있었고요. 또 당시에는 제가 트리플이라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어서 딸의 취업에 대해서는 전혀……

○박수현 위원 후보자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지금 후보자님 따님이 아빠 찬스로 취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훨씬, 미국의 회계법인에 졸업도 하기 전에 취업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의혹을 받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왜 더 좋은 회사를 놔두고 여기를 갔는가.

그렇다면 여기서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미국 그 회계법인에 졸업 전에 취업이 확정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자료를 내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안 냅니까? 왜 그래서 의혹을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하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민감한 자료가 아니라면, 할 수 있다면 미국 회계법인에 취업이 됐다라고 하는 그 자료만 제출하면 아빠 찬스 취업했다는 의혹을 벗을 거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 제출할 수 있는 걸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여튼 오후 질의 전까지 그 제출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을의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후보자님, 자료제출 되게 쉽게 하시네요. 상임위장, 여기 청문회장이 장난 같습니까? 왜 내라고 할 때 안 내고 여당 위원이 내시라고 하니까 내세요?

장관 제안받았을 때 좋으셨지요? 이게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위원 어떤 막중한 책임이요?

후보자님은 언론인 출신 기업인이지요? 장관직과 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장관직은 막중한 공적 책임을 맡기 때문에.....

○배현진 위원 공인입니다, 공인.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배현진 위원 문체부장관은 어떤 자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배현진 위원 모르세요?

부처 산하기관이 수십 개가 되는, 문화예술부터 관광·체육·언론 그리고 자연유산까지.....

후보자가 지금 케이팝 콘텐츠를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그거는 정말 양지의 모습이고 정말 수많은 섬세한 분야에서 영세하게 활동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많은 그런 민감한 분야입니다. 이분들을 잘 이끌 만한 수장으로서의 각오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배현진 위원 대답 못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저 나름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배현진 위원 후보자님, 각오를 밝히셨으니까, 문체부장관이 되면 후보자님은 기업의 경영인으로도 활동을 하셨으니까 문체부의 어떤 책임자급 자리의 인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9명의 책임자를 둔다고 하면 거기에 이 부처 각 분야에서 아주 숙련된 베테랑들을..... 제가 한번 일반 통상적인 기업에서 쓰는 조직도 같은 것을 하나 꺼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거기에 베테랑급 책임자를 두시겠어요, 아니면 대학 갓 졸업해서 경력이 전혀 없는 무관의 신참을 파격적으로 발탁해서 쓰시겠어요? 경영인이었던 후보자의 선택은 어떤 겁니까?

대답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배현진 위원 문체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렇지요? 검증된 사람 쓰실 거지요?

제가 며칠 전에 SBS 보도를 통해서 함께 후보자의 따님이 미국에서 이른바 저희가 아빠 찬스라고 하는 편법을 써서 일반의 대한민국 보통 국민과는 다르게 대단히 부당한 방식으로 네이버라는 국민 기업의 자회사에, 우리 돈으로 무려 770억 원의 자금이 네이버

100%로 지분 출자된 그런 대단한 법인에 덜컥 합격을 하고 거기서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두 달 만에 퇴사했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맞지요? 이 사실은 맞지요?

후보자께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용됐다고 답하신 것도 맞습니까?

대답을 빨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런데 제가 후보자님의 자료를 기다렸어요. 저는 사실은 후보자께서 지명됐다고 했을 때 ‘아, 경영 면에서 대단한 에이스가 우리 문체부에 오시는구나’라고 기대를 했고 어떻게 보면 영세하고 힘든 우리 문체육 분야의 많은 분들을 되살릴 만한 구원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일단 자료를 주시는 데 대단히 불성실하고 이것을 왜 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고, 거기다가 적법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자신의 자녀를 자신이 쌓아 온 네트워크를 통해서 좋은 회사에 채용시키기 위해서 슬쩍슬쩍 그 형식을 거치는 편법을 써 온 그런 기술을 발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단히 교활하게 비쳐졌어요.

제가 교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후보자 본인은 인정 못 하시겠지요?

PPT 띄워 주십시오.

에밀리 죄, 후보자의 따님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한국명 최유정 씨입니다.

후보자 자녀가 후보자 지명되니까 모든 SNS를 삭제했는데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구직 SNS인 링크드인(LinkedIn)이라는 계정에 딱 하나 후보자 자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여기에 본인이 2016년 4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그해에—저기 보이지요?—네이버가 설립한 웨이브미디어라는 기업의 기업 전략 애널리스트로 취업했다라고 자신의 경력을 적었습니다. 이것 팩트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저는 마켓 리서치하러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아니, 이것 본인의 딸이 기재한 것 맞냐고요.

맞겠지요? 에밀리 죄 맞지요? 모릅니까?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2016년 7월 19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웨이브미디어라는 회사에서, 네이버 자회사에서 마케팅 직군에서 근무한 게 맞습니다’라고 네이버에서 확인을 해 줬습니다.

다시 보여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띄워 드린 조직도.

이것 네이버가 770억 원 들여서 만든 웨이브미디어라는 자회사의 최초 창립할 때 조직 설계도입니다. 제가 9개 부서의 책임자들, 자리를 아까 9개라고, 문체부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고 물어봤지요? 책임자급 자리를 봤는데 마케팅 책임자가 단 1명입니다.

후보자님, 미국에서는 경험이 전무한 대학 잘 나온, 갓 졸업한 신생 사회초년생에게 저렇게 마케팅 책임자, 770억 원 자본 출자 100% 해서 낸 그런 대단한 법인에다가 덜컥 넣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마케팅 부서가 아니었습니다.

○배현진 위원 저기에, 마케팅에 들어갔어요, 후보자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나중에 마케팅 부서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기업 애널리스트로 들어갔습니까?

후보자님께서 첫날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보도한 기자에게 ‘우리 딸이 학교를 상위 15%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한 과정으로 취업했다’라고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소정의 절차라는 말도 웃기지요. 보통 취업생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고난의 절차를 거쳐서 취업에 성공합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곳에는.

그리고 대학 상위 15%는요, 여기 해외 대학 유학생들 저희 뒤에 있는 이 보좌진들 잔뜩 있어요, 하버드 나온 사람도 있고 런던대 나온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 15%가 아니라 10%, 5%, 1%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1분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배현진 위원 여기 들어와서 최소한 인턴십 일이 년은 다 거치고 그다음에 9급, 8급, 7급 올라갑니다. 후보자의 딸 대단히 뛰어나서 미국에서, 특히나 직종 경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법인에 진출했는데 여기에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냥 마케팅 책임자로 저렇게 갔는데 이것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것 소명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제출 안 합니까?

소정의 절차는 어떻게 거쳤습니까? 어떻게 거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웨이브미디어에서 채용할 때 정해 놓은 프로세스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후보자님, 네이버와 소통되시지요? 고문까지 하고 지금도 네이버 이해진의장이 만든 재단법인에서 등기이사로 활약하고 있으시잖아요. 네이버와 소통되시지요? 어떻게 해서 채용됐는지 이 채용 절차 빨리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후보자님의 좋은 면을 보고 자격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증할 수 있게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장관후보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못드려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 소정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절차를 거쳤다라는 뜻이 아니고 웨이브미디어가 설정한 채용 프로세스를 다 거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네이버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전임 대표자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채용을 받아 주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배현진 위원 후보자님의 말을 믿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저희한테 개인정보라고 감추지 마시고 다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믿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땅이 뉴욕대학까지 나왔고 웨이브미디어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는 국제 글로벌 회계사무소, 훨씬 더 봉급도 많은 그런 데에 이미 취업이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웨이브미디어에 간 것은 본인이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뭔가 매력에 빠져서 간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본인이 자기가 예정돼 있는 회사보다 이쪽에서 일을 하는 것이, 첫 직장인데 자기의 꿈을 펼치고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요, 여기서.

그리고 글로벌 공인회계사무소에 취업한 근거만 제출을 하세요, 이따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이따 한 3시까지 좀, 그것은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잖아요.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왜 나 얘기하는데 자꾸만 그래요? 저도 얘기할……

○배현진 위원 아니, 요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 요구를 반토막 내셨어요. 그것 다시 정리해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반토막이 아니라 지금 그게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의 중요한 근간인 것 같아서……

○배현진 위원 아니요, 제 질의에 관해서 자료제출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자료제출 해 달라는 얘기예요.

○배현진 위원 다시 어떤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배현진 위원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지금 얘기했잖아요. 또 부연합니까?

○배현진 위원 의사진행 기회 주십시오. 30초면 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광주 광산구을의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글로벌 회계법인 자료뿐만 아니라 웨이브미디어에 취업한 경로를 내시라고요.

○위원장 김교홍 아니, 배현진 위원님!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배현진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자꾸 자료 요구를 절반만 하게 하십니까?

○위원장 김교홍 왜 그렇게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따지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하십니까?

○배현진 위원 따지는 게 아니라 왜 자료제출 요구 지금 저희가 한 것을 절반만 잘라서 하십니까?

○위원장 김교홍 아니, 아까 배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배현진 위원 자, 자료제출 하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자료 달라는 것에 플러스 내가 또 요청한 거예요.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네이버에서 웨이브미디어까지 거친 그것도 제출하게끔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러니까 배현진 위원께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에 내가 플러스 더 요청한 거라고.

○배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렇게 보시면 되지 왜 그렇게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어 내고 그 답변의 부족한 면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초반부터 초긴장이 되는 것 같아. 왜 그러지요? 청문회가 이렇게 초긴장 속에 여야가 접전을 해 가지고 장관후보자한테 여러분들이 제대로 답변을 받을 수 있겠어요?

○배현진 위원 너무 깜깜이라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조은희 위원 그게 핵심 자료를 안 주니까요.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장관후보자도 답변서, 답변은 답변대로 하시되 자료를 주세요. 왜 자료를 안 줘 가지고 이런 사달을 만들어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배현진 위원 저희가 문체위에서 이렇게 여야 위원끼리 격하게 다투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더 이상하지요. 다투는 적이 없는데 왜……

○배현진 위원 자료를 내세요.

○위원장 김교홍 갑자기 전쟁하시듯이 이렇게 하시냐고.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구을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문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을 맞아서 두 가지 의미를 짚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는 12·3 내란을 딛고 일어선 빛의 혁명에서 출발했습니다. 응원봉을 든 시민들, 이 시민들의 연대와 희생, 다양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뜻을 받드는 것이 문체부의 시대적 역할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민형배 위원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동의합니다.

○민형배 위원 두 번째, 문체부장관 중에 기업가 출신, 기업인 출신이 처음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재명 정부가 문화를 산업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본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저는 담고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동의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서 K-콘텐츠 300조 원 시대의 실천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바로 지금 후보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후보자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인사청문은 전 정부, 윤석열 정부의 각자도생 문화정책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하는, 부당한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하는 그런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문화예술 생태계, 콘텐츠산업을 방치했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제 책임 있는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민형배 위원 자, 정책 들어가기 전에 하도 좀 답답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용인 부동산 최초 매입,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투자계획이 2018년 12월에 발표가 됐는데 이 최초 매입은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2010년입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8년이나 되는 시차가 있는데 그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해명을 하세요.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것 매입했던 시점하고 투자계획 발표한 시점이 연결이 안 돼요. 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하세요? 연결 안 되는 것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 나중에 인접 토지 소유주가 매입 권유했다고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자신이 사려고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와서 사 달라고 해서 사 준 거다, 그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여기 투자계획이 있다면 이분이 그랬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저도 그 당시, 매매할 당시에는 이 클러스터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놔서……

○민형배 위원 예, 됐습니다.

자, 따님 취업 문제도 그런데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웨이브미디어에 20일 정도 참여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한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20일 근무한 것은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네이버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고요. 그때 이제 법인 설립을……

○민형배 위원 웨이브미디어에는 3년간 근무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좀 하시면 될 텐데 자꾸……

자, ‘케데현’이라는 말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저기 어딘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민형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기서 오픈런이 있었다는 것도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 ‘케데헌’의, ‘케데헌’ 영화를 공개한 직후 넷플릭스 글로벌 영화 부문에서 1위였고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41개국에서 1위에 올랐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영화음악도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민형배 위원 거기에 보면 한국의 신화·무속·전통 이런 소재들이 아주 잘 반영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 가사에도 케이팝의 정통성과 힙합을 살리려는 그런 장치로 한국어가 한 줄씩 툭툭 튀어나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K-콘텐츠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요, 제가 지금 몇 개 가지고 나왔는데 뮤즈라는 말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뮤지엄 플러스 뮤즈에서 온 말이라고요.

저기 보시면 화면 왼쪽에 까치·호랑이 배지나 또 이게 갓잔이거든요. 갓잔 들어 보셨지요?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케이팝에, ‘케데헌’에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고 특히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팔렸다는 것 아니에요. RM이 가서 구매를 못 해서 다시 가서 구매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던데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정도예요.

자, 최근 3년간의 국립중앙박물관의 기념품 매출액을 보니까 대략 작년에는 138억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만 112억,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저 자료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올해 매출을 월별로 살펴보면 더 놀라워요. 7월 그러니까 내란이 끝나고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매출이 갑자기 2배가량 올라요. 저 그래프 한번 보여 줘 보세요. 특히 온라인에서 판매량이 3배가량 늘어납니다.

‘케데헌’ 개봉일이 6월 20일이니까 그 파급 효과가 다 증명이 된 건데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이런 것들 보면요 개봉 후에 호랑이 배지는 무려 475배, 갓끈이나 컵이나 볼펜이나 이런 건 30배, 갓 브로치는 12배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지금 거의 뭐 품절 상태라고 할 만큼이라고 해요.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한국 문화가 저렇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부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문화가 단순히 사랑받는 게 아니라 저게 K-컬처 300조 시대를 어쩌면 가능하게 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지금이 저희한테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여기서 중요한 것, 저런 K-콘텐츠가 케이팝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런 박물관의 이른바 뮤즈까지 포함해셔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이 K-콘텐츠를 더 확대 생산하고 세계로 확산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게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정부의 역할이 뭐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문화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을 때 저희가 조금 더 힘을 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선별해서 집중해서 이 기회를 활용해서 이걸 산업적으로 더 확장시키고 그 기반으로 우리가 문화예술을 꽂피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렇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고 조금 구체적으로 이럴 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 줘야 K-콘텐츠가 더 확산될 수 있을까,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보세요, 정부의 역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지금 모든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것들을 더 확산시키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와 의지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뒤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30초만 주십시오.

.....

○**위원장 김교홍** 예.

.....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가 그걸 조정할 때, 지금 시장에 맡겨 놓으니까 우리 K-콘텐츠가 크게 성장했습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성장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정부의 지원도 있었지만 시장에서 혹은 저희 문화예술계의 노력에 의해서.....

○**민형배 위원** 지금까지는 사실 시장에서 자율성 때문에 민간 주체들이 역량을 키워온 것 아닙니까, 물론 뮤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접근이지만 케이팝이나 이런 걸 쭉 보면.

그런데 이제부터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결코 이게 간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입해서 성장을 지원하되 간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대목에 대한 철학은 분명하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저 역시 문화예술은 정부는 지원을 하는 영역, 역할에 국한되어야지 그 내용을 간섭하고 혹은 지나치게 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 길이 원칙이라는 것도 있듯이 적절하게 거

리를 유지하면서 지원책 중심으로 정부에서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의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들국화컴퍼니의 현직 대표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좋은 뜻에서 펼치신 사업인데 회사 운영 과정에 편법거래 정황이 있습니다.

화면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들국화컴퍼니 주소지가 경기도 용인시 사암리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현재 해당 건물과 토지 소유자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제 아들……

○조은희 위원 아드님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후보자가 2010년에 매입을 하셔서 2017년 들국화컴퍼니를 설립한 당시에는 후보자 소유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2021년 3월에 아드님께 증여하시면서 아드님 소유가 됐어요. 이 때부터 아버지 회사가 아들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임대차계약 맺고 계십니까?

예스, 노.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맺지 않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계약 사실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조은희 위원 PPT 2를 보십시오.

후보자 재산 서류상 전세권 설정된 부동산이 없더라고요. 회사법인 등기를 제가 보니까 그 회사의 유일한 임원이 후보자 본인이세요.

후보자님, 가족 간이어도 이렇게 무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세법상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방치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지금 들국화컴퍼니는 2013년 들국화 그룹이 해산된 이후에 그 당시에 발매한 음원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조금 빨리빨리 좀 하십시오. 그런 것은 제가 묻지 않았어요.

왜 방치했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래서 사무실이 필요 없어서……

○조은희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사무실이 필요 없고요 상주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은 그냥 법인 주소 등록지로만 돼 있고요.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법인 등록과 우편물 수령하는 주소일 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여기에 후보자님이 장관으로 과연 적합하신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 명백히 법인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임대차계약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런데 그 변명을 우편물 수령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것 세금 납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후보자의 오늘 답변을 보면요 후보자님 좀 위험하세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께서 부동산을 얘기했는데 맹지라고 그러세요. 서류상 맹지일 수 있지요. 그러나 거리 뷰를 보면 도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입가보다 감정가가 낮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정확하게 책임감 있게 들여다볼 생각 안 하고 세무 당국도 나한테 뭐라 안 하는데 왜 위원이 뭐라 하나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께서 후보자께 따님이 네이버 자회사를 했단 말이지요. 취업을 했는데 그 자료를 내라, 소정의 절차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미 네이버를 나왔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다’ 이렇게 자료는 안 내고 그렇게 살짝 틀어요.

그런데 후보자님 사업의 이력을 쭉 보면 후보자님은 네이버 카르텔이 있는 분입니다. 카르텔의 핵심 중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입 짹 닫고 ‘나 그때 네이버에 없었어. 그런데 왜, 소정의 절차 거쳐서 했는데 네이버가 그런 회사 아니야’ 이렇게 말만 하면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직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정신을 갖고, 우리나라의 정신의 기본을 갖고 있는 그런 부서인데 기업의 장사하시듯이 조금씩 조금씩 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틀지 마십시오.

후보님이 사업을 하실 때, 인터파크 대표 때 ‘공연·티켓 거래액 1조 돌파’라고 광고를 내셨어요. 이것도 살짝 튼 겁니다. 이것은 직전 광고하고 달리 슬쩍 기준을 바꿔서 수치를 부풀렸거든요. 전시·스포츠 부문 거래가도 모두 공연판매가인 것처럼 포함시켜서 살짝 틀었어요. 이 기업 하시는 방법이 지금 청문회에서 답변하시는 방법과 거의 패턴이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신문화 그걸 기본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해서…… 그게 K-콘텐츠, K-한류 이런 걸 다 해야 될 부서의 수장이 자꾸 그렇게 트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정의 절차, 따님의 입사 과정에 대한 절차는, 그 서류는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틀었다는 것을……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후보님,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누구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유승민……

○조은희 위원 예. 그런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탁구협회장 재임 시절에 후원금 리베이트, 인센티브 부당 지급, 국가대표선수 임의 바꿔치기 등 비리 문제로 지난 4월에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체육회에 징계 요청한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조은희 위원 나중에 보고 좀 받아 보십시오.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가 정계를 요청했지만—PPT도 띄워 주세요—시스템상 결국 유승민 본인이 회장으로 있었던 대한탁구협회나 현재 회장으로 있는 대한체육회로 이첩되면서 소위 셀프 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후보자님은 유승민 회장 셀프 정계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제 시간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많이 하셔야지 장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갑의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양문석입니다.

좀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빨리빨리 진행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료 달라면 있는 거면 바로 드리고요.

정부조직법 제36조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게 문화부장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정부 대변인이라는 역할도 문화부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광고산업을 적계는 20조에서 많게는 100조 정도로 추산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20조인지 100조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20조에서 30조는 국내에서 대체적으로 집행되는 광고비가 20조에서 30조인데 세상에 10조 차이의 대충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데이터화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100조는 뭐냐? 60조에서 70조 정도는 해외 광고로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광고 집행비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충 광고 전문가들이 추산하기를 100조 시장인데 광고 집행을 100조나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 이터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기관도 없고 심지어 법도 없어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법에 광고는 문화체육부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기본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통위가 방송광고, 과기정통부가 인터넷·모바일, 행안부가 옥외광고, 공정위가 광고 내용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광고 전반을 통괄하고 있는 문화부에 기본적인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미디어광고산업 진흥법 예전에 김승수 의원이 한 번 21대에 제기를 하셨고 그리고 어제 또 제가 다시 새롭게 리뉴얼해서 제기를 했는데 미디어광고산업 진흥법 제정 필요하지요?

○김승수 위원 잘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고산업이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소관 부서가 다 나눠져 있어서요 종합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체부 중심으로 미디어광고산업 진흥법 같은 부분들이, 제도적인 장치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뭔가 총괄된 합리적인 발전 방안들을 만들어 내는 게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시급합니다. 방금 김승수 위원도 ‘잘했어요’라고 예상 밖의 칭찬을 하셨는데요.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광고 등 콘텐츠산업을 11개로 나누는데 생산 유발 효과 1위가 광고예요.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3위입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동안에 문화부가 임무를 방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디어광고산업 진흥법 제정에 문화부도 크게 힘을 보태라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국정 홍보 채널 KTV와 아리랑TV의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KTV, 정말 사고뭉치 KTV였습니다, 지난 정권까지. 그리고 수없이 많은 파란을 일으켰던 KTV였고 정말 국민을 향해서 고소·고발을 난무했던 KTV였습니다. KTV 임직원들 빨리 교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KTV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아리랑TV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각각의 성격이 다르지만 KTV는 국내 정부 홍보고 그다음에 아리랑TV는 해외 대한민국 홍보입니다. 기본적인 성격이 유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리랑TV 같은 경우에는 방송발전기금을 120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러한 기관의 이원화보다는 국가 홍보나 콘텐츠 마케팅과 관련해서 좀 더 규모 있게 국내외를 아우르는 홍보 매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정권 홍보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 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KTV와 아리랑TV의 통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정부 정책과 한국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린다라는 임무에서는 두 기관이 해야 되는 임무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의 필요성은 거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동안에 해 왔던 시청층 그 부분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더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고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아리랑TV와 KTV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제기되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물밑에서 많은 방송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들이 검토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홍보는 제대로 된 매체가 제대로 서야 되고, 그러면 최소한 정쟁 속에 움직 빠졌던 KTV가 새롭게 탈바꿈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운영적 측면에 있어서 계속 고난을 받았던 아리랑TV도 전면적으로 한번 환골탈태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TV와 아리랑TV의 통합 영역에 대해서 문화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장관 취임 이후에 바로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검토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먼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 정부 첫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창·제작 생태계와 체육계, 관광 생태계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K-컬처 300조 시대를 견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리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후보자가 겸손하고도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합니다. 본 위원 역시 공정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후보자님, 장관 지명되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 기사 기억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기억합니다.

○김재원 위원 청바지에 운동화, 테슬라 타고 첫 출근했다라는 내용인데 언론에 다른 장관후보자들보다 월등하게 많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후보자께서 기업인인 것은 알지만 역대 장관후보자 중에서 외제차 타고 첫 출근한 장관후보자 기사 저는 처음 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삼가시는 게 옳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 문체부장관은 일흔 머스크가 아닙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약속 없이 본 위원 사무실에 방문을 하셨지요? 갑자기 오시는 바람에 막지를 못하고 그냥 받았는데 본 위원에게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무를 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인사 겸종 맡은 사람으로서 인사청문회 전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아직 장관 되신 게 아닌데 말씀을 더 인사청문회에서도 겸손하게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가 드린 말씀 명심해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는 기사를 통해서 현장 전문가들의 우려와 반대가 심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작가회의, 문화연대 등 60여 곳의 문화예술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수장으로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노동자들 권리 요구는 외면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이력 외에 문화, 체육, 관광 일반 분야에 대한 이해나 감수성, 이에 대한 철학이 있는가에 대한 겸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에 반론을 제기하듯이 2013년 주식회사 들국화컴퍼니를 자비로 설립했다, 들국화 4집을 제작했다, 총괄기획을 맡았다는 언론보도 있었습니다.

PPT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 신에서 30년 가까이 일을 해서 잘 아는데요. 총괄기획으로서 당시에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제가했던 일은 예전에 들국화밴드가 만들었던 음반들이 녹음 품질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로 해서 더블 앨범으로 한쪽은……

○김재원 위원 그것을 총괄기획이라고 하는가요? 업계에서는 제가 알기로 돈을 댄 사람에게 예우 차원에서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executive producer)라는 명칭을 줘서 앨범에 명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밝혀 둡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나온 기사 내용은 직역해서 총괄기획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방시혁 씨가 BTS를

기획했듯이 마치 들국화밴드 음반을 말 그대로 총괄기획 했다라는 내용으로 독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본인 미화를 위해서 인터뷰를 그렇게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아니요. 그 당시에 이 앨범 제작은 들국화 멤버들과 함께 상의하고 제가 같이……

○김재원 위원 총괄기획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내용과는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군요. 들국화컴퍼니 자비로 설립했다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맞습니다.

(김교홍 위원장, 임오경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원 위원 기사 내용입니다. 당시 후보자님 NHN 플랫폼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셨지요? 들국화컴퍼니 법인등기부등본상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후보자 본인 이름이 기재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시 들국화컴퍼니 누구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주식은 제가 투자했기 때문에 주식은 제 명의로 돼 있고요. 대표이사는 제가 그때 NHN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 일을 주도해 주실 다른 분이 그걸 맡아서……

○김재원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NHN에 겸직 금지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보통 차명으로 법인 만들 때 의심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은행 대출 목적, 외부로부터의 투자유치 이런 게 있는데 심하게는 자금세탁, 차명재산 형성, 재산은닉을 통한 세금탈루, 우회 증여 등이 있습니다. 그냥 앨범 제작 정도는 부인 등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로도 가능한데 굳이 법인으로 차명으로 만드신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차명으로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김재원 위원 대표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회사를 설립할 때 제 지분에 대해서는 제 이름으로 돼 있었고요. 대표는 당연히 다른 전문경영인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재원 위원 그러면 경영에도 어떠한 조언이나 운영 방침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때 들국화밴드 멤버들과 저는 같이 일을 하면서 도움을 드리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또 하나 의심 가는 부분은 2008년부터 정부가 가업승계제도를 시행해 왔다는 것인데요. 이전과는 다르게 2017년에는 직접 대표로 취임을 하십니다. 가업승계제도는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하고 여기 요건만 충족하면 가업승계 중여 특례 또한 적용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이 저작권, IP를 가지고 있어도 저작재산권 자체는 들어오는데 왜 무리하게 그때 대표로 취임하게 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때는 제가 NHN을 그만둬서 나름의 시간 여유가 있었고요. 이 회사는 들국화 앨범의 정산 작업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대표이사로 등록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 부분은 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또 묻겠습니다.

들국화밴드와 표준계약서 작성본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계약 조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계약 조건은 들국화 멤버였던 세 분이 수익의……

○김재원 위원 계약금 얼마에 몇 대 몇 수익으로 나누기로 했다 정도만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계약금이라는 건 없었고요. 선금금, 필요한 분들은 제가 선금금으로 지원을 해 드렸고요. 8 대 2, 그러니까 회사는 20%를 갖고 나머지 80%는 아티스트가 갖는 구조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본인은 적법하게 해 왔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들국화 4집과 관련해서 전인권 씨가 후보자를 경찰에 두 번 고소한 사실이 있지요? 당시 전인권 씨 고소 내용이 녹음실 무산, 7억~8억 횡령, 저작권법 위반, 사기, 전속계약 약속 무산, 5700여만 원 상당 임금 미지급, 음반 추가 발행 상표권 무단사용 등이었습니다. 전인권 씨가 본인만 제외하고 다른 멤버들에게만 계약금이 지급되었고 정산을 본인에게 안 해 준다는 불만이 있었다는 것 본 위원에게 업계 관계자들이 전달해 온 내용입니다. 또한 본 위원은 전인권 씨 전 부인과의 통화를 통해서 계약서를 쓴 사실이 없고 정식 계약금이라기보다는 몇 차례에 나누어서 얼마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연, 행사 등 정산금도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실제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자료를 내지 않으셨고요. 법적으로 예술노동의 대가는 미성년자도 본인한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왜 당사자한테 직접 지급하지 않으셨던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계약서는 제출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고요.

정산은 모두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인권 님은 당시에 음악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산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 아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고요. 최성원 님이라든지 다른 참여했던 분들한테 직접 연락해 보시면 그것은 확인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오늘 오후 개의 전까지, 주식회사 들국화컴퍼니 주식 증자와 감자 관련 서류(주주총회 자료), 들국화컴퍼니 매출액 사용내역서, 2013년부터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그리고 들국화 멤버들과 2013년 작성한 계약서를 함께 오후 개의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후보자님, 김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충 답변하실 부분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오후에 자료제출 가능한 부분들은 제출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그렇다면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최휘영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감사합니다.

○**이기현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문화 강국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많은 역대 장관들이 계셨지만 이렇게 기업에서 일하시다가 바로 투입되신 경우는 저도 처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겨는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특히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그 당시 후보였던 현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직속 위원회로 두 가지 위원회를 직접 운영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AI강국위원회고 두 번째가 문화강국위원회였습니다. 저는 왜 AI와 문화를 후보가 직접 쟁기는 후보 직속기구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휘영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보면서 그 고민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특히 국토부장관과 문체부장관이 이번 내각 구성 관련돼서 가장 늦게 지명이 됐습니다. 그만큼 신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민은 지금 최휘영 후보자의 어깨에 올라와 있는 짐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후보자께서 각별하게 문화부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문화 선진국, 문화 강국 그리고 300조 K-컬처 시대를 만들어 달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국민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이 말씀 명심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후보자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미있게 봤던 것은 기업인 출신이지만 아까 문제가 됐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들국화컴퍼니도 직접 하셨고 도서문화재단씨앗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한국의 독립영화나 부산국제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를 지원한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을 하시면서도 문화적 소양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본인이 문화적 소양, 특히 문화에 대한 관심을 왜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저는 문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질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네이버를 운영할 때도 어떻게 하면 네이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문화의 결과물을 향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독립영화를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했고 이런 노력들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기현 위원** 후보자님의 기업 경력 이력이 많은 기대도 갖게 하지만 또한 순수예술에 종사했던 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약간의 퀘스천도 있습니다. 과연 기업인 출신이 이 복잡한 문화 생태계를 다 이해하고 문화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자들, 창작자들께서 몇 가지 의혹도 지금 제기하시고 그리고 의문점도 제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문체부장관은 예술문화 그다음에 공연 그리고 체육, 관광 그다음에 콘텐츠산업까지 아우를 수 있는 열린 태도와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준비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분야의…… 아시다시피 특정 분야의 전문가 혹은 특정 분야의 출신은 아닙니다. 대신에 제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이 여러 문화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관계성을 맺으면서 뭔가 함께 협력하는 일들을 해 왔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의견을 듣고 지원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후보자님, 집에서 넷플릭스라든지 OTT 보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보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영화산업이, 한국의 K-컬처 산업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고 K-컬처로 표현되는 모든 영역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영화가 예전 2000년 초까지의 국제적 평가에 비해서 굉장히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영화산업, 제작 그리고 극장산업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영화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는 개봉관의 상영작, 한국 제작사에서 만들어진 상영작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2024년 통계에 의하면 열 작품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저도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저는 영화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산업 같지만 특히 문화 콘텐츠산업에 있어서는 기초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스토리텔링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영상이라고 하는 기제를 통해서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문화적 상상력이 더욱더 발현돼서 기타 영역에 파급되는 그런 효과가 가장 큰 영역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직도 문화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영화 한 편 보고 온 것을 문화생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영화에 대한 사랑이 많았습니다.

또한 80년대 이후에 한국 영화산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지금 보면 영화산업이, 특히 OTT에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대자본들이 움직이면서 오히려 한국의 영화산업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는 영화산업이 한국 문화산업의 기초산업, 제가 표현하면 씨감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산업의 위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저도 영화산업의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작품들이 OTT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확산되는 건 좋지만 제작하는 과정 혹은 계약 과정 이런 부분들이 심지어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 올 상반기에 극장에 간 관람객 수만 해도 지금 5000만 이하여서요 올해 20년 만에 1억 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어떤 많은 절망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영화는 영상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음악,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영화 쪽에서 정부가 어

편 부분을 지원해 주고 강력하게 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빨리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독립영화 같은 것도 보면 지금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산업의 근본이 되는 저변을 위축시켜서는 영화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오경 간사, 김교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 K-컬처가 지금 아주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캐데현’ 같은 경우도 소니에서 만들고 넷플릭스에서 유통하지 않았습니까? 국내에서는 그쪽에 참여한 것이지 사실 국내 영화산업 안에서 제작이 된 작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영화 작품들을 만들고 그걸 광범위하게 세계적으로 펼치고 그걸로 인한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기반으로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생태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청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오후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구의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정연욱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이 기업인으로서 문화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다만 문체부장관이 되는 순간 사인이 공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갖는 공적인 책무가 더 중요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기업인과 공인의 자격에서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그동안 지향하던 전략적 목표가 달라졌던 것이고 달라질 만한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냉철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5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의 바다이야기 사태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바다이야기 사태가 어떤 게 문제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지나친 사행성과 제도권에서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그 당시……

○정연욱 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서면질의의 답변 내용을 보니까 당시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에 본인이 네이버 대표이사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맞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행성 아케이드게임하고 온라인게임의 법적인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고 그걸 입법 과정에서 상당히 반영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사행성 아케이드게임 자체가 그때 바다이야기 사태의 핵심적인 쟁점이었고 그것이 실제로 오락실 기기를 통해서, 전 국민들이 분노했던 사건이었지요.

PPT 한번 보시지요.

실제로 당시에 이 사태가, 게임법 자체가 바뀌면서 모든 수익 자체가 네이버로 넘어가는 한게임, 상당히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영업이익의 사행성 논란과 그다음에 포털이 사이버 공간에서 도박장을 차려서 돈벌이를 한다는 기사가 2008년도에 집중적으

로 쏟아졌습니다.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당시 여러 매체에서 이런 보도가 많았습니다.

한게임, 네이버에서 주력하는 한게임이 어떤 게임이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당시 NHN은 네이버라는 사이트와 한게임이라는 사이트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한게임에서는 말씀하셨듯이 고포류라고 보통 얘기하는……

○정연욱 위원 고스톱, 포커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웹보드게임 쪽이 주력이었습니다.

○정연욱 위원 실제적으로 바다이야기 사태가 어느 정도 국민적 반발이 거세고 여러 가지 비판적 입장이 쇄도하면서 2006년 4분기부터 바다이야기 파문의 최대 수혜기업은 NHN이다 이런 게 주로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지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그 수혜를 NHN이 입었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저런 보도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NHN 수익이 상당히 급증했다는 건 사실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바다이야기 게임을 단속했기 때문에 한게임이 수익을 많이 얻었다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누가 봐도 수익성 구조만 보면 바다이야기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이후에 NHN이 한게임으로 상당히 수혜를 본 건 어느 정도 팩트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그 당시에 모든 게임산업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태였습니다.

○정연욱 위원 2007년도 NHN 매출 중에 한게임 비중이 30%였습니다. 이 중 웹보드게임 고스톱·포커의 매출이 90%였고 실제 웹보드게임이 NHN 전체 매출의 27%를 차지했다는 게 당시 신문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팩트 맞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사행성 논란이 있던 바다이야기 문제가 정리가 되면서 이게 수평이동을 한 건 어느 정도 사실관계로 나온 겁니다. 제가 후보자님 책임 묻는 것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결국 한게임이 제2의 바다이야기 파동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MBC 'PD수첩'이 그 내용을 보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 NHN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 1월 달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기관이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때 한게임과 같은 고스톱·포커 이런 보드게임의 온라인상의 문제가, 충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13명의 등급위원회들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수수방관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그렇게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웹보드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합법화, 제도화 안에서 부작용을 막

으면서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때 당시의 언론보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게임이 도박으로 변질된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사이버머니 환전상을 꼽았습니다. 한게임에서 포커와 고스톱 게임을 하다가 사이버머니를 따거나 잃을 경우에 사이버머니 환전상들이 이를 현금화해 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상당 부분 공감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포털, 게임사들과 정부가 포상금 제도를 내거는 등 단속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버머니 환전상만 잡으면 도박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사이버머니 환전상들은 언론, 기자들이 접촉해 보니까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책임은 한게임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보도 자세히 기억은 못 하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 당시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래서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도 나왔고요.

이런 게임물관리위원회 상위 부처 수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가장 최고위 공직자가 누구인지 아시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문화체육부가 주무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래서 이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있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그 부처 수장이 결국은 문체부장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그동안 NHN에 본인이 어떻게 됐든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관의 업무를 수행해서 사행성 논란이 집중적으로 됐던 역할을 책임졌었던 부분이 지금 이런 역할에 문체부장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웹보드게임은 지금도 합법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불법 환전상이라든지 이 게임을 활용해서 바깥에서 탈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단속하고 그 부분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방향을 세워야 하느냐는 문체부가 계속 고민해 온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고포류 웹보드게임을 운영했던 회사에서 이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온라인 보드게임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연욱 위원 마지막으로 사인과 공인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다시 한번 후보자 본인 스스로가 분명히 각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을의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후보자님, 먼저 문화체육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감사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문체부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되셨는데요. 일단은 자질과 국정수행 능력을 따지기보다는 부동산이나 자녀 관련해서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몇 가지 점검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투자계획은 2018년 12월에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용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계획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계획이 있었는데 그것도 2018년 12월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용인의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는 2010년이에요. 2010년에 무슨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연계시키고 있다. 사실상 부동산투기꾼으로까지 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분명하게 강하게 발표하십시오. 어떻게 부동산투기꾼 소리를 듣고도 가만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재산이 기업경영을 하다 보니까 수백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 중에 부동산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대부분의 저의 자산은 제가 다녔던 회사의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요, 부동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조계원 위원 부동산투기꾼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조계원 위원 그건 심각한 인격 모독 아니겠습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녀 취업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장녀는 2016년에 취업을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2018년에 아까 배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케팅 책임자로 승진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본인이 뉴욕의 스턴대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상위 15% 이내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앤영 거기 입사도 확정이 됐고, 그 입사가 확정된 걸 증빙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때 합격 통지를 받은 이메일이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 합격된 증거 내역이 있으면 그걸 알려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로벌 회계법인에 있었으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게 훨씬 유리했겠네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영주권은 미국 연방정부 이민국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라 저희가 미리 그것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웨이브미디어에 입사한 게 영주권 취득 목적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웨이브미디어는 그 당시 설립 직후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주고받은 게 없다라고 들었고요. 오히려 회계법인에서는 체류할 수 있는 서포트를 해 주겠다라는 것이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 조계원 위원 그리고 웨이브미디어 재직 중에, 영주권 취득하고 나서 두 달 뒤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됐지 않습니까. 문을 닫게 된 거지 영주권 취득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회사에서 영주권 취득 신청을 한 것은 2018년 초였는데요, 심사 기간이 원래 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에 영주권을 받게 됐는데 그 사이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영주권을 받은 2개월 후인 12월에 웨이브는 하던 사업을 철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계원 위원 웨이브미디어 그 회사의 경영진 자체가 국내에서 갔습니까, 아니면 그 현지 경영인이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저도 나중에 안 건데요, 설립할 때부터 현지인이 대표라고 들었습니다.

○ 조계원 위원 후보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 번도 저는……

○ 조계원 위원 일면식도 없는 사이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없는 사이입니다.

○ 조계원 위원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답을 하셔야 의혹을 해소하고 갈 것 아닙니까? 계속 질질 끌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보도 보니까 씨앗재단과 관련해서 MBN에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후보자님이 관여한 씨앗재단은 어떤 재단입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 조계원 위원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도서관의 공간을 어린이들의 꿈과 새로운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런 노력을 해 오고 있는 재단입니다.

○ 조계원 위원 그런데 이 씨앗재단은 공익재단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은 아니지요? 물론 공익재단으로서의 역할은 했지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법에 규정돼 있는 공익법인은 아닙니다.

○ 조계원 위원 그렇지요.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은 아니고 민법 및 도서관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익법인이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맞습니다.

○ 조계원 위원 때문에 지금 MBN의 보도에 따른 이사진의 구성에 있어서 특수관계자가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뭐 이런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그 규정 위반이 전혀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일단 기본적으로 그 조항에 적용되는 범인은 아닙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MBN의 보도는 잘못된 것이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공익법인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조항이 없는 것도 맞고요. 또 하나는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나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사진 중에는 출연자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또 그 MBN 보도에 따르면 씨앗재단에서 공익 목적에 사용한 돈이 12.2%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그것도 사실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공익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한 안에만 사용하면 되고 그렇게 충실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일단은 오해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명확히 해명할 부분은 해명하고 이것 관련된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했으면 후보자의 정책적 자질과 문체부의 미래 비전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빨리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서 얘기했던 자료제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해서 빨리 이 부분은 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후보자님, 체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체육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종오 위원 지금 체육계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일단 하나는 저는 생활체육, 우리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이 광범위하게, 우리나라의 격에 맞게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갖춰져야 하는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서는 그런 지원이 제대로 못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차이들을 어떻게 빨리 극복해서 모든 국민이 자기가 어떤 입장이건 간에, 어디에 살고 있건 간에 그런 기본적인 혜택과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진종오 위원 후보자님, 최초에 문체부장관 추천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혹시 국민추천제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디, 이재명 정부에서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인사 추천 과정에 있어서 관련된 일은 제가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진종오 위원 이재명 정부에서 추천받은 게 아니에요? 언급 안 하신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요.

이재명 정부가 공정한 검증을 위해서 국민추천제를 내세웠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는데 보면 실효성이 상당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예술 분야에서 그동안 소외받아 왔던 기초예술, 선수·지도자 인권,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문화체육부장관 그리고 고위공직자 자리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진종오 위원 동의할 수 없겠지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2022년 인터파크 대표로 선임되신 이후에 야놀자와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지금의 놀유니버스 공동대표에 오르셨습니다. 이 합병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취업규칙이 변경됐었는데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상당한 절차적 문제와 회사 측의 중대한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25년도 1월 17일 야놀자인터파크지회(Y-union) 노조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교섭소식지입니다.

소식지 보시면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 동의 과정에 전혀 다른 성격의 우리사주 설립·가입 동의서를 함께 둑어 전자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자들은 각 안건에 대한 개별 의사표시가 불가능했고 회사는 이를 행정상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취업규칙 변경에는 반대하지만 우리사주에는 동의하는 경우라도 선택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전체 안건에 일괄 동의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뀐 취업규칙을 보면 후보자의 노동 감수성이 굉장히 의심 갈 정도로 심각합니다. 보시면 ‘부서 통폐합 시 사원들을 대기발령시킬 수가 있다. 상사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 또 해고가 결정되면 즉시 퇴사한다’ 이런 직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후보자, 이 내용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때 당시 추진한 장본인이시고 대표였으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적 실수로 그냥 마무리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일단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종오 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우리사주조합 동의서와 취업규칙 변경동의서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서명을 받았습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저 내용은 제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진종오 위원 노조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던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종오 위원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청했던 게 이런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저 부분은 제가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놀유니버스에서 제출 여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때 당시에는 대표였는데 이제는 사임했으니까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제가……

○진종오 위원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문화체육부장관후보자로서…… 지금 문체부 전체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직원들이 만약에 이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장관께서는 그냥 사퇴해라…… 사퇴해라가 아니라 상사 지시에 불응하면 그냥 바로 퇴사시키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취업규칙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새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두 회사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한 회사가 가지고 있던 걸로 준용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이 취업규칙 보면, 취업규칙이라는 게 인사·징계·보수,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준 맞지요? 핵심 기준인 거지요?

그런데 이게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근로기준법 94조(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 시에 노조 또는 파반수의 근로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근로기준법 94조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

○진종오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진종오 위원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개개인의 동의를 명확히 확보하라는 의미인데 이 취업규칙 변경된 규정에는 동의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취업규칙 규정의 동의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고 사용자 측에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한 경우에는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근로자들의 개별 안건에 대해서 개별적 동의 여부를 판단할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사안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편법을 이용해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 한 약간 갑질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보자님, 보좌진 갑질 사태로…… 강선우 여가부장관후보자 왜 사퇴하셨다고 보십니

까?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동의 과정은 저는 적법하게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이루어졌다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참여했던 저희 직원들이 과반수 이상 다 동의를 한 걸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과반수 이상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동의하는 데 참여자 자체가 일단 검증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원래는 제가 체육계 현안으로 질의를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한 것처럼 갑질 그리고 특혜, 아빠 찬스로든 해서, 이런 부분만 봐도 후보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제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답이 아니지요.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결국은 답을 안 하시네요.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본인이 알고 있거나 본인이 사실 확인된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이 아닌 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손솔 위원까지만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손솔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손솔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감사합니다.

○**손솔 위원** 자녀 중여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저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중여를 하신 연도가 2010년이라고 답변하셨더라고요. 2010년에 장남이 고등학교 1학년이 맞았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맞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맞습니다.

○**손솔 위원** 공교롭게 저도 2010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저는 늦게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고등학교를 다녀서 학원은 따로 다니지 않았고 월에 한 이삼십만 원 정도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다수 고등학생들이 부모님께 현금 8억 원을 중여받고 중여세로 1억 5000만 원을 내지는 않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서면답변에서 자산관리사와 협의해서 2010년에 첫 중여를 했다고 답변하셨고 그 뒤 2021년에 장남에게 부동산, 장녀에게 유가증권을 중여하셨습니다. 왜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중여를 하고 또 10년 뒤에 대규모 중여를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검색을

해 보니까 중여세 절세 꿀팁으로 10년 주기로 자산을 증여한다고 기사와 계시물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증여 공제금액 범위가 10년간 합산한 금액이어서 그런 것들을 꿀팁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꼼수에 더 가깝다고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출하신 자료로 확인했을 때 후보자님이 두 차례 나눠 자녀들에게 한 재산 증여는 불법이나 탈루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자산·지위 이런 형편에 따라서 청년들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격차 심화, 불평등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다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넘어가겠습니다만.

이제 대기업 대표이사나 자산가가 아니라 공직자를 하시겠다고 이 자리에 계신 만큼 조금 더 평범한 일하는 사람들의 삶, 특히 청년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문화·체육·예술·관광 분야 그리고 콘텐츠산업에는 청년노동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이해와 공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데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2023년부터 월급사실주의 동인에서 꾸준히 매년 보통 사람들의 생존 노동기를 써서 출판하고 있는 책입니다. 치열하게 매일을 살아도 수십억씩 자식에게 물려주지도 물려받지도 못하는 우리 곁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꼭 읽어 봐 주십시오 해서, 제가 드리고 싶어서 책으로 가져왔으니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관광 인력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고 서면답변 주셨습니다.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 환경 개선이 필요한데요. 노동 환경 개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적정한 시간 동안 일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임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시면요, 후보자께서 계셨던 놀유니버스 2025년 연봉계약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월 35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한 연봉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놀유니버스 노동자들 하루 평균 1시간 45분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 10시간 가까이 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ILO 협약에서 권장하는 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놀유니버스 연간 노동시간은 2535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도 높고 한국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ILO가 정한 노동시간도 초과하고 OECD 평균도 훌쩍 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2014년까지 사장으로 있었던 네이버는 2008년 7월에 포괄임금제를 폐지했습니다. 후보자가 네이버를 떠난 후입니다. 문화강국, 관광강국을 목표로 제시하셨는데 관광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국제기준에 한참 못 미쳐서야 되겠습니까? 후보자가 서면답변으로 제출한 관광산업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와 포괄임금제 운영은 상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과 IT업계에 포괄임금제가 만연해 있는데요, PPT 하나 더 띄워 주시면요, 여기 한강유람선을 운영하는 이크루즈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입니다. 월 15시간 고정연장근로를 명시하고 있고요. 원래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월 30시간 정도 고정연장근로를 하다가 노동조합에서 요구를 해서 15시간으로 줄인 곳입니다. 매일 1시간이나 2시간씩 연장

근로를 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려면 관광산업 노동자의 처우 개선, 노동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런 포괄임금을 허용하고 있는 관행이 관광과 IT에 특히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포괄임금제는 도입된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그런 야근이라든지 시간 외 근무를 임금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악용되면서 오히려 더 일하시는 분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다시 판단해 보고 정리하고 바꾼 곳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개선책들을 찾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한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지적, 위원님 지적을 다 보고 있을 테니까 뭔가 더 나은 방법을 계속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관광산업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노동관계에 있어서의 불합리성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만 남았는데요. 먼저 경기 광명시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최휘영 후보자님,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문체부장관으로 지명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후보자님의 능력을 보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대 장관후보자들에게 비춰 볼 때 가장 현장 경험이 풍부한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야 위원님들에게 실망스러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오전 질의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후보님은 참으로 좋은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자식들에게 중여를 해 줄 수 있는 능력자인 후보님이 개인적으로 부럽기는 합니다. 저는 제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습니다.

딸의 취업 파트타임까지도 상세히 알고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자식이 파트타임을 정하고 결정하고 다닐 때 저는 전혀 모릅니다. 자식이 결정한 것을

저는 존중해 주는 부모인데 오늘 후보님께서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파트타임까지도 일일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여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TV를 보신 분들은 부럽다라는 생각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기 모든 부분에서 명명백백히 정확하게 모든 자료제출과 함께 해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나…… 대한민국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중여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님은 좀 두 어깨가 무겁겠지만 여야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확고하게 확실하게 좀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빅5 문화강국 실현,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달성 등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책임감이 막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후보자가 공저한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을 읽어 보고 그간 후보자의 면면을 조사해 보니까 후보자는 단순한 여행업·관광 전문가가 아닌 K-컬처 플랫폼 전문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34년 동안 언론, 미디어, 인터넷 포털,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관광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고 20년간 인터넷 비즈니스 플랫폼, K-컬처 산업, 여행사 등 기업의 전문경영인, 창업자 출신으로 K-콘텐츠 관련 풍부한 현업 경험을 가진 후보였습니다.

후보님, K-콘텐츠 300조 원 시대를 이끌고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들 자신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자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 답변 좋습니다.

다시 또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체 예산안 중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4대 부분의 예산비중이 각각 몇 %나 되는지 보고받으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화면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 순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어느 것 하나도 문화강국을 만드는 데 있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동의합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후보자가 볼 때 이 네 가지 부분별로 가장 큰 혁신이 요구되는 문제점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예산이 673조인데 문체부 예산은 7조고요 문화 관련된 예산은 8조 7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한 1.3%밖에 안 되는 건데요, 그 정도 예산으로 저희가 꿈꾸는 문화강국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각 분야에서, 정부에서 문화강국이라는 우리가 지향하

는 점에 대해서 모두 다 같은 뜻으로, 뜻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의 저 예산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산 확충 필요하지요? 역대 어느 장관님도 이 2%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2%는 반드시 넘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임오경 위원 지난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문화예술·체육·관광 전 분야는 광범위한 퇴행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일상화되었고 과거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실행자였던 유인촌 장관이 재등장하여 문체부는 용산 홍보부처로 전락하고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문화예산 삭감이 단행되었습니다. 이 예산 다시 되돌릴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하나씩 따져 봐야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걸로도 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감축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증액하는 방향으로 되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반드시 되돌릴 수 있는 방안 만드셔서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되돌려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증액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등 우리 OLT 콘텐츠들로 조 단위의 이익을 독차지했지만 우리 창작자들은 여전히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정당한 보상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작품이 흥행해서 기여한 만큼 그 작품을 제작하는데 참여한 분들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관광의 경우 2024년 관광 수지 적자는 1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올해 문체부 예산 7조 원에서 2배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관광수입 회복률이 관광지출 회복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결국은 저희가 인바운드,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객을 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부가가치의 콘텐츠도 만들고 관광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관광 수지 적자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그 자리에 앉은 모든 후보님들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재명 정부, 3000만 명의 방한……

1분만 더 주십시오.

관광객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콘텐츠, K-컬처로 인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 코리아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연결성을 있게 해서 끌어들여야 된다고 저는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도, 차후 이 정책론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체육 분야, 작년 파리올림픽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도 문체부의 대한체육회 예산 34% 일방 삭감 등 체육단체 운영에 대한 과도한 자율성 침해로 체육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후원 등을 위축시켰습니다. 체육계 문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이번에 장관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평소에 가졌던 스포츠 분야에 대한, 체육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이번에 좀 업무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임오경 위원 잘 들여다보시고 하나하나 문제점 잘 찾아내셔서 지원해 줘야 될 것은 지원해 주시고 또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하고 또 질책할 것은 확실하게 질책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의 존경하는 박정하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박정하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시작하면서 후보자님 중인 선서하시고 관련 서류 위원장님께 제출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제출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오늘 답변 주시는 건 장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 이전에 후보자께서 위증의 덤터기까지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문제까지 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말씀을 주셔야 된다는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다 비슷한 질문이니까 오전에 나왔던 질문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따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오전에 저희 배현진 위원님 말씀 중에 보면 웨이브미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웨이브미디어 관련해서, 입사를 하시는데 배현진 위원님은 웨이브미디어가 애초에 만들어지면서 따님을 마케팅 담당자로 자리를 만들어서 입사를 했던 거고 그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내놔라라고 말씀 주셨고, 해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없어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입사를 해서 내부에서 승진했다 이렇게 말씀, 이런 취지로 말씀했어요. 뭐가 맞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입사할 때는 마케팅팀장이나 이쪽으로 입사했다라고 듣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부서였고요. 2년 후에.....

○박정하 위원 그건 나중에 배현진 위원님의 확인하실 테니까, 그러면 조계원 위원님 답변이 맞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박정하 위원 틀리면 위증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확실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저는 그렇게 딸한테 들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따가 배현진 위원님이 추가질의에서 하실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두 번째, 지금 점심시간 지나면서 관련 서류를 이렇게 쭉 많이 주셨어요. 언제 준비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일부는 조금 전에 받은 것 같고요.

○박정하 위원 좀 전에 이런 게 팩스로, 메일로 왔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모르세요? 그러면 누가 받으셨어요?

제가 여쭙는 건……

위원장님, 이건 의사진행발언 성격도 있습니다.

이것 갖고 있었던 자료 안 주셨던 걸 지금 풀어놓은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서류, 영문으로 꽤 있고 쭉 이런저런 서류들을 여태 준비 안 하고 계시다가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게 갑자기 뚝딱하고…… 점심시간 저희 한 12시 반부터 시작했잖아요. 지금 한 2시간 만에 그게 다 나타납니까, 이 많은 서류가? 이것 해외 법안에서도 온 서류인데.

그리고 일부 여기 첨부는 안 돼 있습니다만 도서문화재단씨앗과 관련한 건 전자파일로 도 별도로 제출했다고 했어요. 그건 저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이 서류 언제 준비하셨어요? 똑바로 말씀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그중의 일부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고요.

○박정하 위원 그런데 왜 안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안 드렸던 게 아니라 요청하셨던 그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서……

○박정하 위원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인사청문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걸 너무 가벼이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왜 갖고 있었던 서류를 안 주세요?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의로 번호 적으셔 가지고, 갖고 계셨던 건 뭐뭐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제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서류를 받고 해서……

○박정하 위원 그냥 여기서만 보시고 말씀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주세요. 뭐뭐 갖고 계셨고 어떤 건 점심시간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사이에 받았다 그것만 구분해서 주세요. 정리해서 제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 인사청문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후보자께서. 위원님 보시기에도 이게 있는 자료 준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주시는 답변 다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이것은 오히려 자료를 안 낸 것보다 더 이상해요. 저는 지금 화가 납니다. 왜 자료를 갖고 계시면서도 안 줘요.

그래서 이 아홉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은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셨는지, 아니면 점심시간 이후에 새로 받았는지 구분해서 저한테 오후 추가질의 전에 말씀 좀 주세요.

또 하나 말씀 여쭐게요.

글로벌 회계법인에 따님께서 합격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언스트앤영 회계법인입니까? 맞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게 회계법인이고, 네이버는 외국사나 아니면…… 회계법인 어디 써요? 혹시 여기가, 네이버도 이 회계법인에 의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그건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이버 사장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이 당시에 저희……

○박정하 위원 이 당시에 네이버는 외국계 회계법인을 어디에 의뢰해서 썼는지 확인해 서 그것도 제 질의 끝나고 말씀 주세요.

네이버가 확실히 안 했다고는 말씀 안 하시는 거지요? 모르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저는 전혀 모릅니다.

○박정하 위원 모르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저희 딸이 대학교 4학년 때 인턴을했던 곳이……

○박정하 위원 인턴을 여기서 하셨고, 회계법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언스트앤영이고요. 인턴 마치고서 어플라이를 해 서……

○박정하 위원 만약에 네이버가 그때 당시부터 이 회계법인에 그리고 지금도 이 회계 법인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의뢰사라면 이것도 일종의 내부거래 아니에요? 그런 의심이 들어요. 내가 아는 회계법인에 의뢰, 연간 엄청난 비용을 주고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 혹은 내 딸 취직시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쉽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가정을 전제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확인해서 말씀 주세요. 추가질의에서 다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 지금 7월 29일이에요. 아마 제 기억에는 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지명된 게 한 7월 11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 정도예요. 11일인데, 언제 처음 문체부장관으로 제안을 받으셨고, 아까 질의에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모르신다고 하니까 혹시 언제쯤 받았는지는 말씀 주실 수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여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정하 위원 그러면 11일 발표 전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텁이 있어요? 그것도 말씀 못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열흘 전 아니면 열흘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박정하 위원 그것도 말씀 못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인사와 관련된 말씀은 드리기가 좀 곤란스럽습니다.

○박정하 위원 추가질의에서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민형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민형배 위원님 말씀.....

○민형배 위원 제가 손을 들었는데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조은희 위원 말씀하세요.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민형배 위원님.

후보자께서 점심시간 동안 주신 자료가요, 제가 오전에 질의했을 때 후보자님이 살짝 비트는 기업가 기질이 있다, 그게 장관 성품에 해당되겠냐 여쭤봤는데 지금 주신 자료가 언스트앤영 인턴하고 그다음에 연봉 7만 원 줄 테니까 하렴, 이 자료의 전부 다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는 웨이브미디어, 네이버의 해외법인 자회사에 장녀가 입사한 것이 아빠 찬스 아니냐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는 입을 짹 닫고 그냥 이렇게 자료 내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혹시 장관 되셔서 장관 업무 수행할 때도..... 이 자료 달라 그랬는데 박수현 위원님이 달라고 한 자료만 딱 주셨잖아요. 그 자료 딱 내고 그냥 입 짹 닦으시는 것처럼 장관 업무를 수행하시겠습니까? 왜 그 자료 안 주십니까? 뭐가 캥기는 게 있으세요? 이거는 준비한 듯이 갖다 우리한테 들이대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달라고 한 자료, 그 자료는 왜 안 주십니까?

언스트앤영 자료는 박수현 위원이 달라고 한 자료지 우리 야당 위원이 달라고 한 자료 아닙니다. 야당 위원은, 우리들은..... 후보자께서 웨이브미디어에 따님을, 마케팅 부서 딱 1명 채용했잖아요. 그 채용하고 마케팅 책임자로 된 과정에 아빠 찬스를 썼을 거다. 그런데 말씀하셨잖아요, 소정의 절차를 거쳤다고. 그러면 그 소정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절차였고 네이버는 아빠 찬스 안 쓴다 이렇게 오전에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절차에 관한 자료를 달라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왜 그 자료 안 줍니까? 왜 이렇게 물량 공세를 하십니까? 왜 그렇게 정직하게 안 하세요? 짹싹 비트세요? 이거 영어로 쭉 된 거 우리 못 읽을 줄 압니까? 다 읽습니다, 우리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료 빨리 주세요.

위원장님, 경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계원 위원 문 닫은 회사 아니에요, 웨이브미디어?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근데.....

잠깐만요.

민형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자료제출 요구 좀 할게요.

위원장님, 지금 자꾸 웨이브미디어에 취업을 한 게 후보자가 뭔가 뒤를 봐준 거 아니냐 이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후보자 쪽에서는 아니야, 원래 우리 딸은 언스트앤영에, 이 글로벌 회계법인에 합격을 해서 더 좋은 여건이었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후보자께 이 글로벌 회계법인에 이미 취직이 되어 있었다 이걸 증명할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조계원 위원** 냈잖아요.

○**위원장 김교홍** 줬잖아요.

○**민형배 위원** 여기 어디가 있어요? 아, 여기 합격 레터?

○**조은희 위원** 이 자료인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합격 레터.

○**조은희 위원** 이 자료는요……

○**민형배 위원** 잠깐만요……

○**조은희 위원** 잠깐, 제가 1초만 할게요, 1초만……

○**민형배 위원** 잠깐만…… 아니, 제가 지금……

○**조은희 위원** 양해해 주시면. 그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보태려 그러는데요……

○**민형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조은희 위원** 언스트앤영은 컨설팅 회사인데 인턴 지내 보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위원장 김교홍** 아니, 잠깐만. 우선……

○**조은희 위원** 제가 컨설팅 회사 사정을 잘 압니다.

○**위원장 김교홍** 우선 민형배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으니까 마무리하고……

○**조은희 위원** 죄송합니다, 끼어들어서.

○**민형배 위원** 그래서 여기 이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를 누가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자료가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하라고 이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자료 9개 중에 도대체 어떤 것을…… 지금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님께서 물으셨잖아요, 어떤 것은 오후에 지금 장만하고 어떤 건 준비돼 있었나. 그런데 이거는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구분해서 말씀을 후보자가 해 주시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이게, 자꾸 불필요한 논란이 좀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스트앤영에 합격했고 그런 통지를 받았던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료들 중에 원래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을 텐데 그 구분, 그것이 나와야지 이 논란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조은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30초만 더 보태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1분 하세요.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언스트앤영이 컨설팅 회사인데 얘들이 못 버텨요. 여기서 인턴을 했잖아요. 인턴해서 취업해도 좋다, 연봉 7만 불에, 이런 레터예요, 이게. 제가 다 봤습니다, 지금. 그 레터인데 이게 웨이브미디어에 취직한 것이 아빠 찬스 아니라는 증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컨설팅 회사는 밤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이 컨설팅 회사에서 인턴하고는 절대 거기 안 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 회사에, 해외 자회사에 간 거지요. 이게 뻔하게 그림이 보입니다. 그런데 언스트앤영 인턴했으니까 너 앞으로 우리 회사에 올래 하는 그 자료를 낸 거예요, 레터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아빠 찬스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됩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컨설팅 회사 사정을 전 압니다.

○위원장 김교홍 자, 좀 정리를 할게요.

아빠 찬스냐 아니냐는 우리 위원님들이 밝혀 내야지 후보자가 아빠 찬스다 아니다 여기에 대한 증명을 뭘로 증명하지요?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네이버 자회사……

○위원장 김교홍 잠깐만요.

그러니까……

○조은희 위원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조계원 위원 웨이브미디어가 사업 철수한 회사잖아요. 사업 철수했다는데……

○위원장 김교홍 잠깐만요.

그러니까 글로벌 회계법인이라는 데가 웨이브미디어보다 훨씬 더 봉급도 많이 주고 하는 데인데 여기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웨이브미디어로 간 것은 본인이 국내에 있을 때 파트타임으로 네이버에서 일을 해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그런, 본인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간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잠깐만요.

저도 얘기할 시간을 주세요.

○배현진 위원 예, 말씀하시고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그것은 충분히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만, 조은희 위원 얘기대로 하면 이게 비꼬아서 들리시나 본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배현진 위원 비꼬다니요?

○위원장 김교홍 명확하게 후보자가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는 금방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봉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본인한테 맞는 직장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빠 찬스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증명 서류를 내라, 아빠 찬스인 걸 증명 서류를 어떻게 냅니까? 저는 조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자료를 냈잖아요. 이 자료 중에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안 한 것도 낸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오전에 박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셔서 그 부분을……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아홉 가지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안 한 것도 여기 들어간 게 있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제가 알기로는……

○민형배 위원 서면질의를 통해서 한 게 있지요, 지금.

○위원장 김교홍 그런 게 있지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 안 한 것도 여기 포함이 된 게 있느냐고요, 9개 자료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요청한 자료는 없고요. 오늘 아까 박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위원장 김교홍 그래서 제 얘기는 아까 박수현 위원님 얘기하니까 이 자료를 낸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아까 박정하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주고 갑자기 이게 나타났다’ 이것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얘기한 거고.

배현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은희 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간사님부터 말씀……

○박정하 위원 제가 먼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예, 말씀하세요.

○박정하 위원 후보자께서는 지금 제출된 자료가 저희가 요구하지 않은 자료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로 맞는 얘기인지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앞에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앤영 관련한 내용 세 가지는 요청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 요청했던 거예요. 나머지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 중복해서 요청했던 건데 후보자께서 이게 요청하지 않은 서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시 한번 후보자의 기억을 좀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알겠습니다.

또 배현진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은 왜 또 해?

○조은희 위원 아까…… 자꾸 말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보충질의 안 들어가요? 계속 의사진행발언만 할 거예요?

○조은희 위원 아니, 제가 이것 꼭 해야 됩니다. 배현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위원장 김교홍 배현진 위원님 안 하셨으니까 배현진 위원님 하세요.

○배현진 위원 저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후보자가 웨이브미디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딸이 들어갔다라고 이전에 기자에게 해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어떤 경위를 통해서…… 입사원서 이게, 지금 제출하신 글로벌 회계법인 이게 훨씬 전에 딸의 메일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출했던 이메일이나 모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오전에 제가 요청을 했던 거고요.

위원장님, 이 인사청문회 자리는요 위원들이 지금 후보자에게 의혹을 가지고 국민을 대신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소명은 저희가 밝혀 내는 게 아니라 주체가 장관후보자입니다. 본인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확실하다고 여기서 국민들께 입증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좀 왜곡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교홍 아니, 아빠 찬스를 입증시켜 달라고 하니까, 아빠 찬스에 자료가 어디 있어요?

○배현진 위원 아빠 찬스의 자료를…… 아빠 찬스가 아니라고 자료로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후보자가 대표, 즉 사장으로서 오랫동안 재직했던 회사에 따님이 경력이 없이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갔다라는 직무경력을 증명해 달라는 건데 전혀 무관한 회계법인, 심지어 들어가서 일도 하지 않은 회계법인의 합격통지서만 가져와서 지금 저희한테…… 이게 무슨 경력입니까? 이렇게 하면요…… 오늘도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청년 취업자들 89%가 올해 취업 관문이 힘들 것 같다고 좌절한다는 기사 났는데 네이버에서 떨어지고 눈물 흘리는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가슴에 비수 꽂는 얘기들입니다.

후보자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장관후보자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 낸 자료는 그만큼 고액의 연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곳으로, 웨이브미디어로 간 거다 이런 입장에서 자료를 내신 건데,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지금 배현진 위원 얘기는 웨이브미디어에 들어갈 때의 절차가 있지 않겠느냐, 혹시 그것도 알면 이따가 오후에 자료를 주세요, 그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일차적으로 제가 저희 딸에게 언스트앤영 입사 때부터 마지막에 웨이브 입사했을 때까지의 뭔가 자료들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해서 받은 거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웨이브미디어에 관련된 자료는 지금 딱히 갖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 회사가 지금 정리가 된 회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이미……

○위원장 김교홍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의 절차에 대해서는 자료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그 당시에 웨이브는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있던 직후여 가지고요 저도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스트앤영에서는 지금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다시 연락을 해서 더 좀 찾아봐라라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장 김교홍 한번 찾아보시고……

○배현진 위원 네이버는 법인 내고 망하면 그냥 버리는 회사입니까?

○위원장 김교홍 찾으면 말씀을 주시고.

조은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은희 위원 후보자님 말씀이 궤변이에요. 왜냐하면 언스트앤영에서는 인턴 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 가기 싫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기가, 무슨 사정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 까 아빠 회사에, 아빠 찬스 해서 웨이브로 갔어요. 그런데 웨이브 가고 나서 영주권 따고 두 달 있다가 나왔어요.

그리니까 지금 웨이브는 망했으니까 자료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네이버는 회사를 설립했다가 회사가 망하면 입사 자료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의혹이 있어요. 미심쩍은 데가 있는데 안 내잖아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후보자께서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고 비트느냐 하면요, 장녀가 미국에 가서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굉장히 월세가 비싼 아파트에 살아요, 주거지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송금 내역 달라니까 지금 달랑 한 장 딱 자료를 줬는데요, 이게 언제 자료냐? 2025년 10월 31일, 2024년 10월 1일에서 2025년 10월 31일 자료 이것 달랑 한 장 줘요. 이때 웨이브에 있었나요? 이때 미국에 계속 있었나요? 이 한 장으로 됩니까? 계속 준 자료를 줘야지 이게 불법 송금인지 외화 송금 내역이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검증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한 장 주고 우리보고 옛 먹어라예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후보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후보님의 답변하는 태도, 자료 내는 태도 이런 것을 보면 후보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살짝살짝 국민도 속이고 국회의원도 속이고 이렇게 비트십니까? 이것 안 돼요.

따님 외국에 보내시고 난 다음에 보낸 송금 내역 다 주십시오. 왜 한 장만 딱 주고 입막음하려고 그러십니까? 입틀막이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제가 위원장으로서 얘기하면 편향적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여태까지 발언을 삼갔는데 구체적인 사실과 이 부분이 없으면 이렇게 추측해서 단정적인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금 전의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조은희 위원 안 됩니다. 왜,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위원장 김교홍 아니, 뭐냐 하면 ‘옛 먹어라’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

○조은희 위원 우리보고 옛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조은희 위원 후보자한테 옛 먹으라가 아니고 우리한테 옛 먹…… 제가 옛을 먹은 것 같아요.

○위원장 김교홍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상황에 단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옛 먹으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해요.

○조은희 위원 이 한 장 내는 것 우리보고 옛 먹어라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리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또 제출해 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추정을……

○조은희 위원 계속 똑같이 말을 저렇게 하시잖아요.

○위원장 김교홍 추정 내지는 추측을 하고 단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오경 간사님.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제가 10초만 말씀을……

○위원장 김교홍 아니, 여기부터 신청을 하셨어요.

○임오경 위원 하루아침에 문체위가 절차 과정이 이렇게 난폭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후보께서 내지 않아도 되는 자녀들의 개인정보 관련된 자료까지 지금 오후에도 다 제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전 장관들, 현 장관 또한도, 어느 장관, 전 장관도 자료제출 요청에 있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중여세 관련된 것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주권 유형부터 시작해서 장녀 월세 입금 증빙자료까지 다 제출하셨어요. 이것 자녀들의 개인정보 관련돼서 굳이 안 내도 되는 것을 다 내셨습니다. 이 정도 낸 것을 보게 되면 전임 장관들도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비공개했고 최 후보자 또한 전례의 준비 자료제출을 했고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요청한 사안에서 성실하게 지금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오전에 의사진행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또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좀 들으면 되지 않느냐, ‘자료를 100% 완벽하게 낸다라고 하면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금 후보자에게 100% 자료 요청을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을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충할 생각이고 국민 앞에 후보자가 제대로 검증되는 시간을 좀 갖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 언짢고 속상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두 분의 장관을 보게 되면 어느 자료도 진짜 필요한 자료, 진짜 필요한 자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는 자료들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 후보님을 보게 되면 진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 100%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출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도 제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박정하 간사님.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후보자께 제가 아까 언스트앤영 관련해서 이게 네이버가 위탁을 한 회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언스트앤영 국내 법인은 한영회계법인이에요, EY한영회계법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네이버가 국내의 대표적인 클라이언트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후보자께서 내셨던 이 EY 관련한 자료들은 다 짜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회사의 유력하고 연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면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대표의 자녀가 이 EY회계법인에 인턴으로 입사를 했었고 거기에 취업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미국 네이버 관련한 자회사 웨이브미디어에 갔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하고 EY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쭙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가 이 EY의 아주 유력한 클라이언트예요, 대표적인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이 논란에 대해서도 좀 후보자가 해명을 해 주실 수 있고. 저희 당 위원들이 말씀 주신 것은 이것 필요 없고 웨이브미디어에 들어갔던 과정을 좀 설명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자료를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에서도 이렇게 자료가 금방 오는데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의 자료를 후보자께 요청해 주시고 얼마까지 시간을 줘야 되는지 확인을 해서 저는 그 시간만이라도 정회를 하고 정리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위원장님께 청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후보자님, 웨이브미디어는 이미 지금 회사가 존재하지 않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그전의 자료가 있어서 따님이 거기에 입사하게 된 절차를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 같고요.

○위원장 김교홍 한번 확인해 볼래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저는 위원님들께서 네이버에 아마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교홍 입사할 때 소정의 절차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정의 절차.

○배현진 위원 후보자님이 입증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그것은 후보자님께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위원장 김교홍 여러분들, 이제 자료 가지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고요.

○위원장 김교홍 말씀하세요,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후보자님, 자료제출 하는 태도나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굉장히 우리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보고 우롱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A라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B라는 자료를 제출해 놓고 나서 자료제출 다 했다 지금 그런 격입니다.

지금 의문의 핵심은 따님이 후보자께서 대표로 있던, 재직했던 네이버 자회사에 특혜, 아빠 찬스로 특혜 취업을 했느냐 또 거기에서 그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특혜 취득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달라는 건데 거기와 관련된 자료는 일절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의혹을 가지느냐, 지금 후보자께서 네이버 임원을 하신 것이 2015년 6월 달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고문이었고. 그런데 네이버 자회사 웨이브가 2016년 6월 달에, 1년 뒤에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따님은 2016년 5월에 졸업했는데 바로 약

두 달 뒤에 회사에 입사를 해요. 그리고 영주권을 2019년 10월에 취득을 했는데 취득하자마자 두 달 만에 사업을 철수를 합니다. 이게 하나면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가 계속 우연하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 아니겠습니까, 필연?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 취업 과정에서 어떤 채용절차를 거쳤느냐, 정당하게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입사를 했느냐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느냐. 네이버에서 그러면 그 일에 따른 연봉이나 소득은 있었느냐 이런 것들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그런 자료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영주권 취득하자마자 회사는 없어져서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보면. 영주권 취득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 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835만 원 월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따님이? 어떠한 소득이 없는 데 어떻게 이렇게 호화롭게 생활할 수 있느냐, 소득을 제출해 달라 그러니까 그것도 제출 못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월세 입금 증빙자료, 따님이 월세를 준 게 아니고 소득이 없는 따님한테 그 월세를 낼 수 있는 또 다른 미궁의 생활비를 낼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현지에서 어떠한 소득원이 있는지, 현지에 소득원이 없으면 국내에서 누가 송금해 줬는지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나도 지금 제출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따님이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아닙니다.

○김승수 위원 중학교 때부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김승수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학업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고등학교 때 갔습니다.

○김승수 위원 고등학교 때도 미성년자지요. 그때 스폰서십은 누가 했습니까? 가디언은 누가 했습니까, 고등학교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보딩스쿨에 있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게 질의시간이 아니라…… 의사진행을 위원장님한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한테.

○김승수 위원 그런 것들도 지금……

○조계원 위원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의사진행입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한테 해야지 질의를 하고 있잖아.

○김승수 위원 아니, 자료 요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위원장 김교홍 자,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의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위원장 김교홍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시면 돼요.

○김승수 위원 이런 자료들을 하나도 지금 제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보면.

○위원장 김교홍 알았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출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교홍 제가 보기에도 이런 상황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은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나중에 하세요.

○조은희 위원 지금 잠깐만……

○위원장 김교홍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정회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장관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자료에 대해서 있으면 있다, 그러면 여기 있다, 없으면 이리이러한 이유 때문에 없다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세요. 괜히 청문회 장소가 무슨 추측이나 또는 이런 것 가지고 해서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해서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교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박수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장관후보자 청문회가 국민께서 정말 청문회답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이 잘되려면 무엇보다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또 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 같은 이런 회의 운영 같은 것들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위원장께서 후보자에게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 표명할 것은 하고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후보자의 따님 문제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후보자의 따님이 뉴욕대학교, 언스트앤영이라고 하는…… 세계 10대 경영학과를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후보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재원이 가서 웨이브미디어라고 하는 지금 사라져서 없는 정도의 그런 회사에 아빠 찬스를 써서 취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저는 글로벌 회계법인에 졸업 전에 취업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료만 내면 그래도 상식적으로 다 유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가 왔는데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B를 요구했는데 A를 내놓고 아니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후보자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따님의 명예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못 내는 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 딸이 명예와 관련돼서 또 지

극히 개인적인 부분이어서 이 자료를 못 내겠다고 합니다'라고 정확히 답변을 하고 위원님들께 또 그렇게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한영회계법인의, EY(언스트앤영)의 중요한 클라이언트의 하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후보자가 네이버의 고문으로 있었던, 고위직으로 있었던 그 시기에 영향력이 행사돼서 아빠 찬스가 가동된 것 같은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그것도 나는 위원장님, 후보자가 참 왜 말이 없는지 이상합니다. 저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왜 후보자가 답변을 못 하지요?

한영회계법인이 네이버와 관련이 있던 것은 2023년과 2024년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했던 것은 2015년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보자의 불분명한 태도 그리고 명확치 못한 답변이 위원님들의 이러한 추측과 이런 질문들을 자꾸 내고 회의가 정회되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 위원장님께서 후보자가 딸이 제출 못 하겠다 하는 이런 자료는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정회가 되지 않도록 후보자에게 명확한 답변과 그런 태도를 좀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감사합니다.

장관후보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또 지금 박수현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실 말씀을 이 기회에 하시고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드렸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함이 있어서 여러 말씀을 나누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 자란 성년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도 제 자식이지만 동의를 구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절하면 제가 자세한 내용을 제출할 수 없는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딸아이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딸아이가 취업한 회사가 웨이브미디어인데 그 회사가 미국에 있었고 또 이미 오래전에 사업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객관적으로, 제가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또 연락을 해서 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일이어서, 매일 계정도 여러 개고 하다 보니까,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웨이브미디어와 관련된 채용 때 있었던 무언가 자료가 있으면 곧바로 제가 이메일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저는 사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중이어서 제가 소명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 것과 너무 많이 다른데'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약간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박수현 위원님 말씀을 해 주

셨지만 한국 한영EY와 네이버가 관계가 있으니, 제가 네이버의 전직 대표니 미국에서 미국의 EY 본사 쪽에 제가 제 딸을 취업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없고 EY라는 곳이 그렇게 클라이언트의, 전직 대표의 딸을 미국 본사에 취업시킬 만큼 그런 회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아까 말씀하실 때는 EY가 네이버와 어떤 관계인지 제가 몰랐기 때문에 입증할 수가 없었는데 정말 저도 확인해 보고 어떤 관계인지도 알아보고 저와 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나중에 추후 확보해서라도 위원님들께 오해가 없으시도록 충분히 소상하게 소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 말씀 중에 EY가 근무 여건이 너무 힘들어서 짧은 취업 희망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도 제가 생각하는 제 상식과는 너무 다른 말씀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EY는 전 세계의 짧은 경영학도들이 정말 선망하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큰 회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나름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NYU Stern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취업이 가능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10월에 합격이 됐는데 말씀처럼 정말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으면, 특히 제 딸이 인턴까지 했으니까 그 분위기를 잘 알 텐데요. 가기 싫어했던 곳이면 그 즉시 가고 싶지 않다고 아마 매일을 보냈을 겁니다. 거절을 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려고 했었겠지요. 그런데 저희 딸은 EY에 합격한 것에 대해서 되게 기뻐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해 8월의 입사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졸업을 한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도 8월 그 날짜에 맞춰서 출국하려고 다 준비가 돼 있던 차에 웨이브미디어라는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하게 된 거고 조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웨이브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고 합격을 하는 그 타이밍에 EY에서는 또 매일이 왔습니다. 8월 달에 입사하는 사람들 어디로 모여라라는 소집 메일이었거든요. 그 메일은 아까 제가 드린 자료에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메일을 받으니까 딸아이는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요. 두 군데 다 합격을 했으니까요. 그때 저한테 비로소 상의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붙었고 이번에 지원해서 이것도 됐는데 나는 여기를 가고 싶어’라고 선택한 게 웨이브였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빠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와 연이 있는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거기 가서는 안 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딸은 자기 인생을, 그동안 뚜벅뚜벅 자기의 독자적인 인생을 개척하면서 커 왔던 아이고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자기의 꿈으로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한테 제가 ‘너 거기 가지 말고 이리로 가. 여기는 아빠가 넣어 줄 수 있을 테니 이쪽으로 가’, 그것을 저는 제안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딸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가 자기가 선택한 길을 묵묵히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빠로서 응원하고 지지했을 뿐입니다. 그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2300달러 월세를 자료로 드린 것은 제가 딸에게, 외환 송금 내역을 제출해 달라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서류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딸이 아무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800만 원이 넘는 집에 혼자 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증빙으로 드린 겁니다.

저희가 이미 기제출한 월세 계약서는 6000불로 돼 있거든요. 6000불에, 거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2명의 사인이 돼 있습니다. 구획을 나눠서 저희 딸은 아주 작은 공간에 머물고 있고요 큰 공간은 다른 사람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 6000불짜리 집에 2300불을 내고 있습니다, 매월. 그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인데 그 부분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른 자료를 주면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장관후보자께서 앞으로 또 보충질의도 남아 있고 재보충질의도 있으니까 그때 답변을 하시고요.

어찌 됐든 오전과 지금까지 오면서 위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 후보자로서도, 아까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썼는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충실히 내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명심하고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리고 행정실에서는 아까 조은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아마 조금 오해가 있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엿 먹어라’라고 하는 표현은 삭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오전 제 질의에 답변이, 의혹이 있어서 그것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건 질의시간에 하시면 되지. 우리는 지금 내가 보기엔 의사진 행발언이 너무 많아요.

○김승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건 질의..... 김승수 위원님 바로 질의인데 그때 하면 되지.

○김승수 위원 이건 오전 질의에.....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어서 보충질의니까 보충질의 때 하세요.

○김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중간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데 중간 중간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건 자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 북구을의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후보자님, 오전에 제가 투기 의혹을 말씀드리니까 이천 땅 그거를 2002년 1500만 원에 매입을 해서, 2011년에 1억 500만 원에 매도를 해서 한 600% 수익을 올렸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부친한테 상속받은 땅이라고 아까 답변했던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

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친구분이 저한테 오셔서 아버지와 같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땅에, 거기 가서 노후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 땅을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김승수 위원** 여기 보면 제가 그때 등기부등본을 봐 왔어요. 그런데 소유자가 64년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 친구가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 부분은 제가 잘……

○**김승수 위원** 소유자가 장기호, 64년생이고 그분으로부터 후보자가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한 거예요.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명백히 지금 위증을 하시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지금 거기 성함이 장 씨로 돼 있지요? 그분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친구분입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공동명의라도 돼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공동명의도 아니고 부동산을 그런 식으로 전혀…… 그냥 말로만 서류나 이런 것들 없이 그렇게 그냥 계약을 하고 그렇습니까, 공동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상자료를 보면)

그리고요 앞서 용인 땅 그 부분을 맹지인데 소유자가 사 달라고 그래서 샀다고, 이게 값어치가 없으면 왜 땅을 사셨겠습니까, 그 주변에 계속 여러 가지 호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리고 그 부분을 후보자가 추가로 매입했을 경우에는 이게 그대로 다 후보자의 기준에 있던 땅과 도로에 연접하기 때문에 맹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지목상 맹지가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맹지로 그대로 갖고 있느냐. 이것 굉장히…… 지금 부동산 알리미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클릭 정정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맹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지요. 그런데 후보자가 계속 팔려고 했을 경우에는 맹지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정정을 하면 굉장히 비싼 가격을 주고 팔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당장 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공시지가 올릴 필요 없이 여러 가지 재산상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 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맹지로 그대로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맹지라서 기준 소유자가 사 달라 그래서 사 줬다, 나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애초에 용인에 땅을 산 목적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특별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드님한테 중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또 하나, 들국화컴퍼니 거기 지금 사업장 소재지도 여기 아닙니까? 물론 아드님한테 중여하기 전에 들국화컴퍼니의 사업장이 여기로 돼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지금 공사가 굉장히 불분명한 거예요. 이 부분을 마치 선심 쓰듯이 전혀 부동산 투기 목적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앞서 결혼 초기에는 주소를 여러 번 이전했고 특히 아버님 댁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 그랬는데 지금 초본상으로 봤을 때는 92년도에 아버님이 세대주로 있다가 그 이후로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왜 그러면 후보자와 배우자가 한 분은 서울에, 한 분은 안양에 그렇게 주소를 전입을 했느냐, 그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똑같이 수도권에 살면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지금 주부 아닙니까, 배우자께서는? 안양에 그때 무슨 사업장이 있었습니

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위원님, 그러면 제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위장전입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집을 팔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김승수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인 같았으면 배우자가 아무런 문제 없는데 한 분은 서울에 전입을 하고 한 분은 똑같은 시기에 안양에 전입을 한다는 자체가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건 후보자가 그런 것은 이유가 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투기 목적과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런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깔끄러운 자료는 하나도 제출 안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내역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 20년 동안 후보자 말고 배우자와 존속, 비속의 취등록세, 재산세 납부 내역 제출하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쪽에 부동산 거래 내용이 없었구나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지금 김승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후보자께서 답변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용인의 맹지 관련된 부분은, 아까 보여 주신 부분은 되게 작은 평수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서 집을 짓고 뭐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제가 그것을 사서 투기를 했다라는 것도 좀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김승수 위원 기존에 있던 토지, 주택하고 연접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매입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교홍 우선 말씀을…… 김승수 위원님, 우선 후보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 보지요.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그렇다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걸맞게 가격을 쳐서 팔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저는 매입을 했었고요. 만약에 그쪽이 정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걸로 예측이 됐으면 그분들이 저한테 그 가격에 팔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기를 목적으로 바로 집 옆에 붙어 있는 그 작은 땅을 제가 샀을 거라는 저는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왜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도 잘 납득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주소지가, 저희 전세 막 다니고 애들 때문에 언니 있는 집 근처로 집을 옮기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육아 때문에 옮기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잠깐 분리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위장전입을 해서 학교를 보낼 것도 아니고요 그걸로 인해서 제가 집을 산 것도 아니고요. 아무런 제가 투기나 어떤 위법적인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잠시 주민등록상에 분리가 돼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증명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어떤 걸 증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의심이 되니 이 부분을 증명해 달라라고 하면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후보자님, 언론인 출신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언론의 발전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언론 중에서도 특히 본 위원회의 소관인 지역신문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향후에 지역의 방송과 또 인터넷에 관련해서, 확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해 보고자 하는데 후보자님, 우선 지역신문의 발전 정책이나 법률이 본 위원회의 소관이고 장관의 업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한 두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즉답할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실행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지역신문 발전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문화를 지키고 미래를 그려 나갈 자생력을 키우는 근본적인 지역신문의 발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일반회계나 언론진흥기금 전입을 통해서 마련되어 왔는데요. 이 규모가 출범 당시 연간 250억 규모에서 지금 80억 규모로 대폭 줄었고 일반회계에서의 전입은 2년 동안 아예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문체부의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제가 일반회계의 출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문체부가 그렇게 반영한다 하더라도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이렇게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줄어들었고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의 출연이 없어져서 안정성마저 사라진 이런 상황이어서 결과적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점점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1000여 개의 전국 지역신문 중에서 67개 사만이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아마저도 지난 24년부터 경영건전성 배점이 커지고 지역 관련 기사 배점이 줄어들면서 점점 어려운 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언론사에게 높은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체 평가배점 1000점 중에서 경영건전성 배점은 210점이 되는데요. 지역신문의 취지에 맞는 지역 관련 기사 비율 배점은 일간지가 30점이고 주간지가 10점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획취재와 지역 밀착형 소식을 전하는 언론사에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 합리화와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부광고 배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현재 정부광고 배분은 지역매체—여기는 지역신문과 방송을 다 포함합니다만—비중이

너무 적다, 상당히 불균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광고 집행 현황을 보면 총집행액 1조 3000억 원 중에서 지역매체 대상 집행액이 1900억 수준으로 그 비중이 14.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국가행정기관은 2.6%, 지역에 기반을 둔 지방행정기관도 겨우 21% 정도의 광고비를 지역매체에 집행하는 데 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정부광고를 받지 못한 언론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등록 지역신문 중에서 연간 정부광고를 1건도 받지 못하는 언론사가 지난해에만 318개사로 지역신문 세 곳 중 한 곳이 1년 동안 정부광고 하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언론인들과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정말 지역을 위한 취재 기사나 기획보도를 만들고 싶어도 연간 단 1건도 정부광고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언론이 정도를 지키기가 정말 상황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소연이 아니라 정말 피가 맷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6193명의 지역언론인들과 일대일 소통을 했어요. 한 2만 통 정도의 소통을 했어요. 그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의지를 밝혀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과 본 위원회를 통해서 장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저도 예전에 언론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입장에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지역의 언론이기도 하고요 또 지역의 문화를 창달하는 구심점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역 불균형으로 지역이 어려운데요 지역언론들이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아서 각 지역들이 더 좋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데 구심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이라든지 혹은 정부광고에 대한 균형이 잡힌 어떤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신문의 재정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을의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후보자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말씀 길게 하셨는데요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저희는 지금 공직자, 그중에서도 장관직을 두고 과연 여러 인허가 건과 인사, 진짜 수천 가지를 다루는 이 중요한 자리에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이냐를 지금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내 딸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했는데 여기 두 개 합격했는데 어디를 갈까, 안타까웠다 이 말씀은 아버지로서의 말씀이지 국가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나서는 공직자로서의 변은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이사회 의결 자료가 있어요.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2016년 6월 15일에 설립하기로 예정을 하고 6월 10일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이때 이사회는 연말까지 24명의 조직으로 구성하겠다라고 해서 제

가 아까 24명 조직도 보여 드렸지요? 그거를 연말까지 하기로 합니다.

이때 보시면 익숙한 이름이 등장해요, 한성숙, 박상진. 자, 이분들 누구시냐. 한성숙은 후보자가 네이버 사장일 때 검색품질센터 이사라고 후보자 밑에 부하 직원으로, 이사로 일했던 분입니다. 현재 중기부장관 되셨지요. 그리고 박상진, 역시 후보자가 네이버 사장일 때 재무기획 담당 이사로 네이버에서 후보자의 부하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도서문화재단씨앗에서 후보자와 함께 몇 안 되는 등기이사로 함께 활약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소통이 되는 분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겠지요. 현재 네이버페이의 사장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보통 아빠 회사 친구, 아빠 회사 동료, 아빠 회사 후배 삼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는 후보자 따님의 구구절절한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저희가 요구를 했던 자료는 후보자께서 따님을 이런 긴밀한 관계와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취업한 거라고 하니까 그 소명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후보자님.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아까 제가 24개의 조직도 보여 드렸습니다. 마케팅 직군은 한 자리였어요. 24개의 자리 를 보시면 보통 여기서 같이 후보자의 따님과 채용된 사람들의 9개 부서 책임자들의 그 경력이 후보자님 따님만 아무 경력이 없고 대부분 10년 경력 이상의 경력자들만 책임자로 채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마케팅 자리 하나 승진했다고 하셨지요? 여기로 들어가서 과장이었다가 부장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후보자께서 소명해 주세요. 그러나 후보자의 따님은 마케팅 직군으로 들어갔다고 네이버가 확인을 해 줬습니다. 많은 대한민국 취업자들은 이런 기회를 얻지를 못해요, 후보자님. 이거를 소명해 주셔야 되고요.

후보자께서 기업을 10년 넘게 경영을 했는데 대학을 갓 졸업한 신출내기, 아무 경력이 없는 친구가, 미국에서 770억을 들여서 네이버가 주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법인을 설립하는데 이 중요한 마케팅의 책임자 자리에 경력 없는 친구를 덜컥 채용하는 결정을 저는 후보자님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고개를 끄덕임)

○배현진 위원 이 부분을 소명해 주셔야 돼요. 더 이상 저희가 의심하지 않도록 후보자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아까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보도했던 기자에게도 ‘웨이브미디어는 미국인과 교포들이 임직원을 맡아서 나는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한성숙과 박상진, 후보자님과 긴밀한 사람이 그 당시 등기이사 아닙니까? 거짓 증언하신 거지요? 제가 거짓 증언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소명을 해 주십시오, 자료로써. 이 자리에서 구두로 하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현진 위원 아니요.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 딸이 합격했다는 그 회계법인에서 영주권을 보장해 줬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아니요, 영주권 보장했다는 얘기는……

○배현진 위원 아까 속기록에 제가 그것 확인을 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체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쟁진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오해 없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 회계법인에서는, 지금 자료 많이 주셔서 저희가 발췌를 했는데 비이민취업비자만 지원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서 얼마나 애처롭게 딸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후보자의 따님께서 자격상 네이버가 100%, 770억을 출자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낸 회사의 마케팅 책임자로 가기에는 더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10년 넘는 경력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견주면서. 이 부분을 자료로써 증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자료도 내시고요. 지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답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위원님 질문하신 중에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아빠의 변이지 그것은 공직으로서의 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섞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에 임하는 저의 마음가짐과 평소에 제가 살면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배현진 위원 그런 말씀은 짧게 하시고요. 그런 말씀 짧게 해 주셔도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두 번째, 아까 웨이브미디어에 있었던 한성숙, 박상진 두 이사회 분은 저는 이사회 멤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성숙 님은 네이버의 CEO였었고요 박상진 님은 네이버의 CFO였습니다. 아까 그 자료에는 그 말이 표현이 안 돼 있던데요. 네이버는 엄청나게 큰 조직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열몇 명짜리 스타트업이 미국에 법인이 세워지는 거고, 그런데 법인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사회에 이름을 얹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일을 한 사람들이 한성숙, 박상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박상진, 한성숙 두 분에 대해서는 저는 네이버 고문 떠난 다음에 한 번도 연락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상진 님을 제가 다시 만난 것은 제가 씨앗의 이사회로 초빙을 받아서 그걸 수락하면서 갔더니 거기에 이사로 와서, 그것은 2017년 7월입니다. 이 당시보다 1년 이후의 일이고요. 그래서 박상진·한성숙 님과 그 당시에 제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책임자로 입사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딸은 입사할 때 마케팅 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케팅 책임자는 2년 후에 승진을 하면서 영주권을 신청을 해 볼 테니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 일이고요. 입사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을 마케팅 책임자로 쓰겠습니까? 저도 상식적으로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입증할 수 있는지 지금 확인 중이니까 자료가 오는 대로 그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말씀하세요.

○배현진 위원 제가 확인한 부분은 후보자가 답변을 안 주셔서 네이버를 통해서 2016년부터 마케팅 직군에 취업했다라고 확인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셨다고 하다가 지금 열변을 토하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입사했는지……

지금 MBC 입사한 지 20년이 거의 다 돼 가는 저도 그때 너무너무 어렵게 취업해서 그때 공부했던 책을 하나도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회계법인에 넣었던 자료들은 이렇게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꿈이었던 네이버 법인에, 미디어 업계에 들어가는 자료는 하나도 없다고 하세요? 그걸로 증빙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증빙이 되면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입사의 절차 그것을 지금 요청을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입사 과정에서 저희 딸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증빙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매일 계정이 여러 개여서요 그 당시에는 학교에도 있었고 해서 지금 그걸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장 김교홍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뭐라도 찾아지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렇게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리고 저희 딸이 가지고 있는 이외의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웨이브미디어가 가지고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 김교홍 웨이브미디어는 지금 없잖아요, 회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래서 저도 지금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위원장 김교홍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구을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후보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 볼게요.

K-컬처 300조 시대 준비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그 자체로 효과뿐만 아니라 파생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특히 관광 쪽에 파급효과가 크지요?

혹시 올해 외래 관광객 들어온 숫자 중에 한류 콘텐츠 때문에 들어온 숫자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50%, 절반 이상이 이삼십 대입니다.

○민형배 위원 절반, 그런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래서 주로 그 이삼십 대들은 한국……

○민형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통계자료를 보면 41.8%가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300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지금 K-컬처 300조 시대뿐만 아니라 그 부대효과까지 염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K-컬처 중에 K-콘텐츠가 비중이 큰데 그 콘텐츠 중에서는요 어느 장르가 제일 비중이 높은지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콘텐츠 중에는……

○민형배 위원 게임이 제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게임이 제일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렇지요.

게임은 질병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게임은 문화예술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문화예술입니다.

○민형배 위원 게임산업이 지금 콘텐츠 수출의 한 오십오륙%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문화비전하고 충돌하게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제가 서면질의 했던 것에는 답을 어떻게 해 오셨냐 하면 질병코드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그냥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답변하고 굉장히 다른데.

그러니까 KCD-10 초안에 어떠나, 여기에 보면 게임이용장애 이런 게 포함될 가능성 이 높은데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신 거네요? 게임은 질병이 아니고 따라서 이 코드를 그대로 도입하는 건 안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 시작의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영화의 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1세기에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합예술의 한 분야이고 문화예술의 어떤 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게임이지 이것을 질병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KCD-10은 지금 ICD-11에 등재한 지 6년이 지났는데 이 상태로 그대로 그냥 질병으로 분류한, 질병코드를 도입한 나라가 없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신 거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걸 분명하게 하셨네요.

그리고 K-컬처,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앞서 제가 국가 개입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재정을 2%대로 확충해 보겠다 그러셨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일단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취임사에서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확충, 예산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실 때가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걸 잘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분야에 이만큼의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2%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후보자께서 장관에 혹시 임명이 되시면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전을 정말 잘 짜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처들도 다 예산을 늘려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K-콘텐츠나 문화, K-컬처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른바 CT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민형배 위원 IT, BT, NT, ET, ST 다 있는데 전문기관이 있어요, 부처마다. 문화기술, 그러니까 CT 쪽만 원천기술을 제공할 국가연구기관이 없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설립해야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당연히 설립해야 됩니다.

○민형배 위원 이것 너무 오랫동안 끌어왔습니다. 원래 진즉 만들려고 했는데 어디 저기 GIST에 있는 조그만 연구소에 처박아서……

30초만 주실까요.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민형배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문화기술 R&D 기관이 없어요. 이번에 그 의지를 확실히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K-컬처 더 확산하고 문화강국 가려면 CT연구원은 필요하다 이 대목에 확실히 동의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렇습니다. AI가 사회 전반에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저희가 잘 따라가고 주도하기 위해서도 CT는 문화산업에 있어서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금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 때까지 계속해서 이 CT연구원의 용역비라도 일단 확보를 해 보려고 했는데 계속 무산됐어요. 장관이 되시면 다음번 추경에 이것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CT연구원이 K-컬처 300조 시대를 열어가는 데 원천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의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2022년 12월에 서울시는 인터파크씨어터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에 대해서 불법 증축, 공연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공연을 중단시켰습니다. 후보자님이 대표

로 재직하셨을 때의 일인데 기억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증축 허가도 없이 옥상 한 가운데 야외정원에 지붕을 덮어 실내 공간을 만들고 건축법상 요구되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이 미비하고 공연법상 요구되는 외부 전문 기관 점검도 누락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만약 장관이 되셨는데 산하기관이나 사기업, 공연장 등에서 안전 규정도 안 지키고 이런 불법 증축, 공연법 위반하고도 실제 공연이 아니라 이벤트였다고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평소에 관리감독을 잘했어야 할 거고요. 저런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는 확실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실제로 이런 불법 공연장들 많이 마주하셨을 텐데요. 후보자님도 대표 때 이런 공연법 위반 사항, 불법 증축 사항을 적발당하셨잖아요. 이것은 제대로 관리하셔서 다시는 후보자님 같은 대표가 나오지 않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저때는 인터파크를 야놀자가 인수해서 제가 2022년 8월부터 대표를 맡게 됐는데요. 저것을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맡자마자 저 부분을 알고 빨리……

○조은희 위원 2022년부터 9월부터 대표 하셨고요. 이 공연기관의 불법 증축은 9월 30일부터 22년 12월 8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살짝 비껴 나가시면서, 제가 지적 안 했으면 또 비껴 나가실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아니요, 저 부분이 저렇게 되어 있었던 것은……

○조은희 위원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소명하실 때 제대로 하십시오.

예술인 개인소득이 일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실 거예요. 뒤에 실무자님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술인들 중에……

○조은희 위원 보십시오. 저것 그냥……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4분의 3은 예술활동으로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2007년도에 예술인 개인소득은 2976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술활동 소득은 1504만 원, 일반국민 가구소득은 4267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6년 후에 2023년에는 예술인 개인소득과 예술활동 소득이 모두 1055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국민가구 평균소득은 6762만 원이에요. 더 격차가……

예술인 소득과 일반가구 소득 격차가 왜 이렇게 심해졌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술인이 활동하는 제반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후보자님, 현재 예술인들 지원하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술 보험 쪽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인이기 때문에 문화카드 같은 경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창작지원금, 준비금 등 직접지원도 하고요. 복지보험이나 문화카드, 청년문화패스 등 복지·소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주체로는 문체부, 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각 시도 지자체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면 후보님, 혹시 전국적으로 예술지원금 연간 금액이 어마운트(amount)로 해서 얼마나지 대충 기억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합쳐서 얼마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뒤에 기조실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후보자님이나 기조실장님 모르셔요. 모르시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도 정확히 몰라요. 각 기관이 자기 사업만 관리하지 전국적으로 얼마가 어디에 쓰이는지 통계도 기록도 없습니다. 문체부나 예술위, 예술경영지원센터 어디서도 전체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문제지요. 문제인지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조은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 축적도 부족하고……

1분만 더……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리세요.

○조은희 위원 지금 예산이 관성적으로 편성되고 있어요. 이런 지원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술인들의 연간, 한 달에 100만 원도 수입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문제가요, 예술계가 본인의 실력으로 예술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공공지원에만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시장과 소비자는 지금 후보님 같은 분이 장관되면 또 플랫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더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예술가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술인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시는지 여쭙고요. 장관이 되시면 이것을 어떻게 고치겠는지 그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됐는데요. 예술인들의 60% 이상이 프리랜서라서 되게 불안정한 환경에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3분의 2는 예술활동으로 얻는 수익이 100만 원 이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예술강국을 얘기하고 K-컬처 300조를 얘기하는 것은 바탕이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고 있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학전 김민기 대표께서 생전에 무대 앞에 계시는 앞것, 배우나 무대활동하시는 분들 뒤에서 지원하고 서포트를 하는 뒷것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뭘까라고 생각하면 그 뒷것 중에서도 가장 맨 뒤에 서서 예술인들이 마음껏 자기의 창작, 자기의 개성을 살려서 무언가를 시도해 보고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뒤에서 받쳐 주는, 맨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K-컬처의 3000조 시장 얘기할 수 있고 문화강국을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런 면에서 저는 3000조라는 얘기의 미

션을 받고 있는 장관이지만 또 하나는 이런 인프라를 제대로 만드는 데 노력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은희 위원** 300조라 얘기하셨는데 계속 3000조 얘기하시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아, 300조. 너무 죄송합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앞으로 국정감사나 상임위 때 이 부분 얼마나 챙기고 계시는지 계속 확인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위원님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조은희 위원님 질의도 좋았고 장관님 답변도 좋았던 것 같아요. 순수 문화예술의 뒷받침 없이 문화예술의 산업화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K-컬처 300조 시대를 열어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꼭 장관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갑의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조은희 위원 덕분에 이제 정책 인정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대한민국 뉴스 이용자의 67.7%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신문법 제2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네이버하고 다음이 이 신문법에 규정되는 사업장입니다. 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양문석 위원** 그런데 포털이 콘텐츠는 생산하지 않고 뉴스 편집, 배열, 댓글 운영, 검색 노출 등을 통해서 실제 여론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 대표적으로 김건희가 카카오 댓글에 대해서 관리를 요청하고 카카오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댓글창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24시간만 댓글을 노출시키고 그리고 삭제해 버리는 이러한 만행을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저질렀습니다.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 부분은.....

○**양문석 위원** 처음 듣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양문석 위원** 뭘 답변하기 적절치 않아요, 아시는지 모르는지 물어봤는데?

김건희가 다음 뉴스를 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댓글 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을 하고 카카오, 다음이 댓글창을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24시간만 실시간 채팅처럼 운영하고 그다음에 삭제를 해 버렸어요.

신문법을 주관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야 되겠

지요?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재발하지 않도록 문화부가 기본적인 대책을 내야 되겠지요? 대답만 하면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뉴스를 유통하는 곳에서는 사실 국민의, 독자의 신뢰가 핵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일이 없는지 한번 잘 세세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신문법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부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의무를 방기하고 댓글창이 일방적으로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리고 개편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와 댓글의 여론 형성 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작에 가담한 게 카카오 다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규명 해야지요. 그리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게 신문법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부의 기본적인 의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뉴스가 배치됩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읽은 뉴스, 검색 키워드, 구독한 언론사 등 데이터를 분석해서 뉴스를 노출·배열시킨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인 장관께 물어봅니다. AI가 하는 뉴스 배치에 사람이 개입할 수 있다,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양문석 위원 사업자였으면 없다, 그리고 정상적인 일반 뉴스 소비자면 있다가 답입니다.

AI가 하면 중립적이다,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양문석 위원 사업자면 중립적이다, 일반 소비자면 아니다. 왜요? 20년 6월에 쇼핑·동영상 검색 등의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네이버가 공정위로부터 267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네이버가 알고리즘 조작을 했었어요. 이랬었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론조작의 혐의를 받고 있는 뉴스 포털 다음과 네이버 그리고 신문법으로부터 규정받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네이버, 다음에 대해서 분명히 문화부의 기본적인 정책과 대책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던지려고 이제까지 빌드업을 했습니다. 알고리즘의 공개를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의 아주 일반론적인 알고리즘의 공개를 가지고는 현재의 여론조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알고리즘 공개의 수준과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가 기본적인 입장을 내고 그리고 신문법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부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있어야 돼요. 문화부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화부가 그동안 안 했어요 장관님 탓 아닙니다. 문화부의 문제였습니다.

문화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어느 수준에서 어느 범위까지 최대치로 더 이상 여론조작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알고리즘의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장관후보자에게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공교롭게도 장

관후보자가 여기에 전문가이시고 그리고 여기에 또 CEO까지 하신 분이라서 알고리즘 공개의 수준과 범위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해 왔던 네이버나 다음의 여론조작 행위가 지속되어 왔고 그리고 뉴스를 생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팔아서 돈을 벌었던, 영업의 재료로 삼았던 뉴스 서비스 인터넷 사업자의 문제를 명확하게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수준에서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지금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의 알고리즘 공개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예전에 일을 했었고요. 또 언론계에 몸담았었기 때문에 신문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요. 또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염려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장관이 된다면 그런 관련돼 있는 분들 다 모시고 한번 제대로 파 보고 의견을 들어서 그런 염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한마디 해도 되나요?

의견을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제대로 된 TF팀이나 연구팀이 꾸려져서 철저하게 수위와 범위를 정하고 명확하게 문화부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정책을 확정하는 단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 확정은 말 그대로 알고리즘의 수위와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확장을 해야 포털 뉴스들이 여론조작에 개입할 수 없는가, 정상적인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그리고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정상적인 여론 형성이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관후보자에게 장관이 되시면 명확하게 알고리즘의 공개 수위와 범위를 정확하게 문화부의 입장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을 저희 의원실에 조만간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장관이 된다면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인권 씨가 후보자를 경찰에 두 번이나 고소한 사실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못 답변하셨습니다. 1건은 검찰 불송치, 1건은 형식요건 미비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한 자료들 중에 지금 전속계약서 부분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도—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데—‘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시 대한민국 법원 관할로 한다’ 이렇게 내용이 안 돼 있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이를 해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 모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저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문체부의 가이드를 가지고……

○**김재원 위원** 문체부의 가이드랑은…… 이것은 사적계약이라서 표준계약서가 있어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하든 법원 관할로 하든 그것은 당사자들끼리의 약속입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무혐의로 나올 수가 없는 게 검찰 불송치, 형식요건 미비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 것인데요. 애초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결을 한다라는 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면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를 하게 됩니다. 경찰조사가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검찰로 가고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기고 이 절차 자체가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셨으면 안 되지요. 어찌 됐거나 계약서를 승계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2017년 대표를 하시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승계가 아니고요, 2013년에 작성된 계약서고 그 당시에는 아티스트들이 원하는 대로……

○**김재원 위원** 아니, 내용을 파악을 하고는 계셨을 것 아니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아티스트들이 원하는 대로 계약서를 작성해 드린 겁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혐의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 말씀하셨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발하겠다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짚어 드리는 거지.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전인권 씨가 음악에만 매진하다 보니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하셨는데 아티스트 중심 사고로는 이렇게 대답하실 수 없습니다. 아티스트는 매출 내역이라든지 통장 내역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분들은 주찬권 씨 그다음에 누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최성원.

○**김재원 위원** 최성원 씨, 전인권 씨 이렇게 세 분인데 세 분의 내역을 누구는 15일, 누구는 12일, 누구는 1일 이렇게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통장 거래 내역만 자세히 보여 주셨어도, 소명을 하셨어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니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작자 중심으로 사고를 하시는지, 제가 왜 오전부터 이 질의 합니까? 창작자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분이신가 그리고 창작자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 그거 여쭤보려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를 좀 파악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매출액 부분, 통장 입출금 내역 이런 것들 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증명을 해 드리고 싶었는데—옳으면 옳은 대로, 그르면 그른 대로—그런데 내지는 않으셔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자, 이자 부분에 의혹이 있는데요. 10년간 7명에게 11건의 금전 대여, 특정인과는 반복적으로 차용증 작성. 차용 거래 내역을 보니까 특정 관계로 보이는 사람 절반이 넘는데 들국화컴퍼니 대표이사였던 최태교 씨 모친 소유 상가 임대대리인에게 총 3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고액 돈을 빌려줬습니다. 단순 지인이라기보다 업무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0조상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 심각하게 윤리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액 자금 빌려주고 이자나 원금 상환받지 않으면 선의로

보기는 어렵고 상응하는 대가가 있었지 않겠느냐 추측들을 하는데 6건 차용증에는 상환 기간조차도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걸 좋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돈을 받을 의지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변칙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총 16억이 넘는 돈을 아무 보장도 없이 빌려줄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사인 간의 많은 대여로 발생한 이자가 수천만 원인데 실제 이자가 수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해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여금 법적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후보자는 지난 10년간 총 7명에게 11건의 금전 대여를 해 왔는데 수년간 고액 대여금 회수하지 않으면 채권 가치의 실질 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5조상 채권 누락 또는 부풀림을 통한 중여 행위가 의심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의도적 재산 누락 아니십니까?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부러 차용증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갖고 있으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NHN에 근무하면서 스톡옵션을 받아서 예전에 갖지 못한 자산을 이룬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려울 때 저를 도와준 제가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벤처 활동을 하면서 저를 많이 도와준 벤처 선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업이 벤처이기 때문에 위험해지고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대부분의 지분은 제가 다니고 있는 NHN의 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NHN의 CEO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부 현금화한 돈은 제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 평소에 저를 도와줬던 사람이 급하다고 연락이 오면 제가 외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려 드렸던 거고요. 어려우니까 당연히 이자를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갚을 때 이자를 받기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다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못 받고 있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재원 위원 6건 같은 경우에는 상환 일자도 명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위원님 지적은 알겠지만……

○김재원 위원 본인이 천사라고 얘기를 하시면 팬찮은데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공인이 됐고 제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 저 개인이 아무리 선의로 한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지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어떻게 법적으로 명징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염려 없으시도록 제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 병의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문화인프라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11년에 대한민국 공연 한 번 하고 그 뒤에 공연이 없었어요. 23년에 싱가포르, 일본 동경—도쿄지요—공연이 있었는데 한국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유는 전문 공연장, 특히 5만 석 이상의 공연장을 요청했는데 한국이 이걸 반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전문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아레나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최근에 생겼지요. 인스파이어라고 영종도에 1만 8000석짜리 하나 생겼고 그리고 지금 고척돔이 하나 있지요, 야구경기장이어서 상시적으로 쓸 수가 없고. 창동에 서울 아레나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또 규모도 작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교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8만 석짜리 메트라이프 스타디움도 있고 또 1만 석 이상이 100개나 있어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한 두 배 반 정도 인구지만 1만 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이 40개나 있습니다. 동경역 주변에도, 도쿄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전문 공연장들이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상암종합운동장 하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척돔 하나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이었는데 종합운동장이 아시다시피 지금 공사 들어가서 31년까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문 공연장 확충 관련돼서 5만 석 이상의 전문 공연장을 만들어 내자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도 있고 문화계의 요구도 있는 거지요. 공연 업계에서도 강력하게 열망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지어내는 데 굉장히 큰 시간이 걸립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장관후보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렇습니다.

(김교홍 위원장, 박정하 간사와 사회교대)

○이기현 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K-컬처, 특히 K-컬처를 선도했던 케이팝의 가장 큰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제 선거구는 아닙니다만 인접해 있는 지역에 고양종합운동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올해 4월에 콜드플레이 공연이 일주일간 있었는데 37만 명이 왔어요, 서울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그다음에 BTS 제이홉, 진 이런 공연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블랙핑크가 월드투어 가기 전에 이틀 공연했는데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5만 석짜리. 여기는 그냥 축구경기장입니다, 스타디움인데 뚜껑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양 종합운동장이 서울 인근에 있는 5만 석짜리, 그래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려 작년, 올 한 해 73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왔습니다. 그중에 반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굉장히 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또 지역에도 관광, 특히 먹거리 외식산업 그다음에 숙박, 그러니까

MICE산업의 모든 기제들이 다 동원돼서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공연산업이 향후에 대한민국의 문화 성장동력으로써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민간에서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기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만한 규모의 공연장들을 저희가 물리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기존의 고양종합운동장을 해외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콘이다, 꽃 모양처럼 이렇게 둉그렇게 생겼고 위에가 살짝 덮여 있다고 그래서 고양콘이라는 애칭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이런 시설들이 지역에도 있지요. 또 야외 공연장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천이라든지 아니면 기상이변에 대응하기에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대중교통 수단이 충분히 받쳐 주지 못하는 현실적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지역에 몇 가지 시설들을 선별해서 문체부에서 정말로 조사, 용역을 해서 이 시설들을……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땅을 구입하고 새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단기간 내에 전문 공연 시설로, 100%는 아니겠지만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 문제, 장관님 취임하시면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저는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열정적이어서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걸 보기 위해서 팬들은 찾아갑니다.

○이기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지난 1년간 1630만 명 정도 작년에 외국에서 한국으로 관광객이 왔는데요. 제가 있던 분야, 티켓팅 하는 분야에서 살펴보면 50만 명 정도가 티켓을 사 가지고 왔습니다,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요. 콘서트가 없었으면 안 들어올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열광하고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돌아가기 때문에 무언가가 한국에 오기 위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활용하기에는 공연장이 너무 적습니다. 공연장이 더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유인할 수 있거든요. 저는 체육시설들을 음향·조명 시설이라도 좀 더 빨리 갖춰서 그런 곳으로 활성화시켜야 지역 관광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현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리면 문화가 성장동력이 되고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인트를 바꿔 주는 것이 장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300조 시대는 장관님의 이런 기업적 역량, 기업인으로서의 역량을 검증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임명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문화시설이 정말로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시간이 걸리고 제도적 한계, 시간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순간에 풀어낼 수 있는 게 기업인 출신 장관후보자에게 거는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일산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보면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깜짝 놀랍니다. 길 위에 히잡

을 쓴, 저희들이 한국에서 보기 힘든 회교 국가에서 온 젊은 친구들이 새벽 6시에 길을 배회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왜 왔느냐고 물어봤더니 공연이 저녁 6시인데 일찍 굿즈를 사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11시에 굿즈를 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문화적 동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것을 산업적 포인트로 전환시켜 내는 것이 장관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 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이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수영구 정연욱 위원입니다.

저는 시종 장관님이 기업인으로서 활동했던 경력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장관후보자로서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 사인에서 공인으로 넘어가는 그 책무에 대한 문제와 그동안에 기업인으로서 했던 여러 가지 경력과 활동이 과연 공적 업무에 적합했는지, 그러면 과연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주로 보직이 온라인 플랫폼 관광·숙박 이쪽으로 하신 것 맞지요? 지금도 하고 계셨던 거지요, 최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그것과 공연, 콘서트, 스포츠 이쪽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정연욱 위원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4118건이었습니다. 이 중 57.6%인 2373건이 주요 7개 플랫폼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로 숙박 플랫폼 소비자 피해구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갔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가지 피해 사례를 가지고 각종 댓글도 올라온 게 수도 없이 많았지요. 저것은 피해자 사례고, 구체적인 댓글 내용을 한번 보시면 더 기가 막힌 게 많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지요.

10분 안에 캔슬 조항이 솔직히 선을 넘었다, 환불 안 해 주고 끌꺽하는 업체들은 도둑놈 심보가 아닌가 싶다, 여기어때랑 야놀자는 이제 이용 안 할 것 같다, 야놀자 사기꾼, 야놀자 그럴 줄 알았다, 예전에 환불 거절 당했네요.

환불 문제는, 구체적으로 10분 내에 환불 얘기는 계속 있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저 부분에 해당하는 정확한 부분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정연욱 위원 실제 야놀자나 이런 데서, 이 피해 사례는 제가 아주 일부분만 댓글을 인용한 것이고 이게 소비자원에 올라온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인용한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어낸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예약 후 10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이른바 10분 룰, 이 약관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온라인 플랫폼 자체는 이 룰에 따라서 모든 계약 환불 못 하겠다고 취소했던 것이고.

실제로 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피해의 78.5%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 불만입니다.

그래서 단 10분만 지나도, 신청한 지 10분만 지나도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야놀자의 이 판단이 불공정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는 개의치 않고 그대로 저런 불만 댓글이 계속 왔었지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소비자의 불만이 있는 부분들은 시정하고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욱 위원 실제 야놀자, 여기어때 이런 데의 객실 판매수익이 줄었음에도 취소수수료 수익은 계속적으로 늘었습니다. 23년에 야놀자 수수료 수익은 전체 영업수익의 40%, 2000억 원에 달했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 또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명 정부가 새로 출범했습니다. 가장 강력히 추진하는 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입니다. 이른바 온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논의 중인 내용의 개요는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정연욱 위원 크게 보면 수수료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규제 상한을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큰 요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장관후보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욱 위원 그동안에 장관후보자가 기업인 시절에는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숙박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수수료 문제나 이런 부분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오셨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기업의 이익이라고 하지만 기업의 궁극적인 이익은 소비자가 만족해서……

○정연욱 위원 결국 이런 소비자는 숙박업소랑 여러 가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양쪽 다지요. 숙박업소일 수도 있고 이용자……

○정연욱 위원 그렇지만 결국적으로 여러 가지 부당한 약관 문제 같은 것 소비자원에 이런 불만사항이 계속 제기됐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있었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만들겠다는 것도 물론 이 숙박업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의 부당한 문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문제를 해소해 보겠다는 취지로 준비된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작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기업인 시절에 했던 그런 전략적 목적과 장관으로 하시면서 온라인 플랫폼법 취지를 설명하시고 가야 되는데 이해충돌이 생기는 부분, 상충되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앞으로 이 부분들은 과연 이재명 정부가 기업인의 나름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인 정부 역할이라는 것은 이런 가이드라인을 던져 놓은 것 아닙니까. 과연 던져 놓은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러면 인사 자체가 무엇입니까? 기업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

로는 가이드라인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역량 발휘가 됩니까? 개인적으로 장관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숙박업소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다 망라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있는데 지금 장관후보자는 이 특정 업소의 대표 CEO를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제가 문체부장관후보자가 된 것은 그 플랫폼에서 이익을 계속 유지하고 도모하기 위한 어떤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를 지명해 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적 영역으로 가면 그동안에 해 왔던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들을 모아서 이쪽 문체부 영역에서의 확실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라는 부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연욱 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장관의 책무에 더 집중하셔야 되고 과거에 CEO를 하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정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정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장관님, 아까 따님 문제 매듭을 좀 짓고 넘어가지요.

제가 보기에는 연봉 초봉 1억짜리 EY컴퍼니 거기를 포기하고, 접게 만들고, 만약에 아빠가 그 회사를 접게 만들고 이제 신생 스타트업 컴퍼니에 들어가게 했고 그렇게 해서, 그 신생 컴퍼니가 4년도 채 못 가서 철수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회사에 아빠가 일부러 접어 넣었다, 오히려 아빠가 딸에게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준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원래 스타트업은 미래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들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딸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따님이 그런 어려움을 각오하고 들어간 건 오히려 딸에게..... 딸의 도전정신과 이것을 칭찬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딸을 지금 모욕하는 일들이, 발언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저도 제가 공직에 나오면서 뜻하지 않게, 저 나름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희 가족들에게 이러한 오해 또는 무언가 의혹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아까 아례나와 관련해서 제가 후보자님 말씀 들으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문체위 차원에서 유네스코 관련해서 유럽 출장을 다녀왔는데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한류의 열풍을 프랑스 파리나 런던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이를테면 프랑스에서 블랙핑크 공연

이 8월 2일 자로 예매를 시작했는데 그날 당일 날 8만석이 바로 예매가 돼 가지고 그다음 날까지 추가로 또 예매를 했어요. 그 정도로 공연에 대한 인기가 높은데 대한민국에 변변한 전용 아레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든 공연들이 서울 집중으로 이루어지고 서울에서도 대부분의 경우가 운동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세계잼버리대회 때 상암월드컵경기장, 세계잼버리 파행을 보완하려고 거기 공연을 일부러 강행하다가 잔디를 훼손하는 문제까지 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류 열풍을 제대로 대한민국에서 실현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전용 아레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전용 아레나가 꼭 수도권에 있어야 되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루어져야만이 지방으로 외래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여수에서, 여수엑스포 있는 곳에서 K FESTA in 여수 그리고 또 K-메가아일랜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냥 공터에다가 의자 깔고 해요. 이런 넓은 공터에 아레나 시설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좋은 조건에서 케이팝을 즐길 수 있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방에 전용 아레나를 만드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는 그것만이 지방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의 관광수지가 100억 달러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2001년 이후에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관광객 수준이 비슷했던 일본이 지금은 어느 정도냐 하면……

PPT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외래 관광객이 3700만 명입니다, 일본은.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절반도 안되는 1637만 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광과 관련해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국무총리 산하의 컨트롤타워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는 그런 기본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타당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에서…… 출국납부금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조계원 위원 출국납부금을 인하했습니다. 1만 원에서 7000원 돈으로 인하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해외에서 여행을 하면서 그 나라에서 출국납부금을 납부할 것 아닙니까? 얼마 납부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적은 게 1만 1000원이고 최대 8만 3000원의 출국납부금을 그 나라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들은 나갈 때 똑같이 7000원만 내고 가는 겁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관광재정의 기반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오히려 더 올려도 부족한 판에 출국납부금을 인하함으로써 우리의 관광재정을 약화시키고 관광경쟁력도 약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렇지 않아도 관광재원이 약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자금을 확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계원 위원 장관이 되시면, 임명되시면 바로 전의해서 출국납부금은 예전처럼 복원하시기를, 적어도 예전 수준으로는 복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조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원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후보자 측에서 웨이브미디어와 관련한 자료를 주셨는데 위원님들한테 깔아 드렸거든요. 후보자도 이것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지금 보내 왔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위원님들께 전달해 달라고 얘기했고요.

○위원장대리 박정하 한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Employment Offer Letter’ 아래 가지고 합격증 내지는 일종의 계약서예요. 2016년 7월 20일부터 해서 5만 불 상당의 급여를 주고 우리랑 같이 일하게 됐다 이런 취지 같은데 맞지요?

배현진 위원님, 요구하셨던 자료가 이게 맞나요?

○배현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주세요.

○배현진 위원 후보자님, 따님께서 웨이브에 채용됐다는 사실은 저희가 오전 10시부터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해서 채용된 건 알고 있습니다. 이 채용 확인은 다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네이버 이사회가 의결한, 2016년 연말까지 24명의 그 인원 중에 마케팅 한 석으로 딸이 들어가게 됐는데 대체 어떤 경력으로…… 제가 요구한 자료는 본인이 지원을 할 때 메일을 보냈든 그 오퍼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력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증빙하는 자료를. 왜, 다른 분들은 10년 넘는 자격자들만 그 24명 안에 다 들어갔는데 무자격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증빙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험, 소정의 절차라고 했으면 최소한 면접을 거쳤다거나 회사에서…… 저도 5차의 시험을 봐서 최종 면접까지 봤습니다. 몇 차, 몇 차, 몇 차라든가 이런 통상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말씀하신 소정의 절차 그리고 따님께서 그 절차에 응했던 흔적을 달라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채용된 것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채용됐다는 내용은 저희가 오전부터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따님께……

이것 받은 메일이 있다고 지금 확인하신 거지요? 합격 통지서, 합격 제안서,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위원님, 제가 드린 이 자료는 지금 딸이 소지하고 있는 자료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을 빨리 보내 달라고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보니까……

○**배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보내 달라고 하니까 이것 지금 준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여기에 지금 마케팅이 아니고요 스트레티지 앤 오퍼레이션(Strategy & Operation) 쪽에 임플로이(employ)가 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여기에 적시되어 있고요.

○**배현진 위원** 아니, 그것은 본인 따님께서 링크드인(Linkedin)에도 그렇게 쓰셨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여기요.

○**배현진 위원** 네이버에서 마케팅 직군으로 채용했다라고 저희한테 자료로 소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티지 앤 오퍼레이션스(Strategy & Operation)가 마케팅 직군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을 다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정하** 자, 후보자님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여기에 지금 지워진 곳에 'directly reporting to'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조직도가 있으셨으니까 그 조직의 어떤 사람한테 리포팅을 하는지 알면 저희 딸이 어느 곳에 취직이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정보라서 이것을 지웠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후보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배현진 위원을 비롯해 여러 분들이 말씀 주시는 것은 우리가 통상으로 알고 있는 채용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회사가 누군가를 뽑으려고 하면 채용공고를 내고 어떤 절차, 처음에는 서류-필기-실기-면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공단 검증할 때는 그립니다. 몇 대 몇인지까지도 물어보는데 그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이것처럼…… 저희가 봐도 알아요, 합격증인 것이고 계약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트레티지 앤 오퍼레이션이니 마케팅이니 이건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전 저녁시간 전이라도, 이것을 찾아오실 정도면 그 부분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찾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30초만……

○**위원장대리 박정하** 예,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배현진 위원** 2008년에 처음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입사 지원을 위해서 이메일이나 아니면 그 회사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를 하는데 네이버는 당연히 미디어 기업이니까 그게 더 철저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쓰기 위해서 본인이 분명히 그 관련한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경력사항이든 자기 자격증이든 뭐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정말 꿈의 기업에 본인의 자녀가 들어갔다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뭐 하나 흔적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어떻게 몇 월 며칠에 지원을 해 가지고 했는지 따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자료들을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위원님,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처음 발견된 것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예전 메일 계정이 여러 개여서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지금 단정적으로 그걸 보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찾는 대로 좀 더 드릴 거고요.

(박정하 간사, 김교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드리는 이 메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다른 부분이 이걸로는 확인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현진 위원** 다른 부분 아니고요. 제가 이걸 링크드인에 본인의 자녀께서 기업 전략 애널리스트로 했다고, 기재했다고 분명히 밝혔고 다만 확인해 드린 것은 네이버는 마케팅 직군, 24명 중에 마케팅에 들어갔다고 저희에게 네이버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현진 위원** 그 차이도 직접 소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질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이따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후보자님, 오전에 이어서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오전에 아까 후보자께서 우리사주 가입 동의서 관련해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별도로 독립적으로 서명을 받았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렇게 이해하셨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놀유니버스에서 의원실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동의서 화면은 각각 띠웠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시스템상 개별 동의가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 있으면 각각 따로 동의할 수 있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개별 동의가 불가능했다면 각각 안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의율 63.75%, 절차적으로 정당성에 합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노조 역시 이렇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노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청과 노무법인 또 얘기하셨지요?

노동청 먼저, 노동청은 제출된 수치를 형식적으로 검토한 것이고 동의의 신뢰도와 절차적 정당성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혹시 다른 내용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받은 거 있으면 노동청에서 무엇을 증명받았는지 증빙받아서 소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무법인 관련해서도 의견을 받아서 문제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질문으로 의견을 하셨는지, 어떤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직접 검토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해당 노무법인 의뢰서 및 회신 내용 또한 제출하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런 절차 모든 게 제가 보기에는 사용자 편의 위주적인 절차로 보이고 있고요.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노조도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해야 되는데 노조 측에서 이런 제기를 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좀, 속히 제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육계 관련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후보자, 10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15일, 잘 모르시겠지요? 법으로 정한 체육의 날입니다, 스포츠의 날.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정한 날인데 문체부장관후보자라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체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얘기했을 때 생활체육에 관련해서도 얘기하시고 이런저런 얘기 하셨었는데 지금 생활체육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혹시? 문제점,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문제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의 문제점은 열악한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진종오 위원 열악한 대우가 있고요. 지금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고용이 문체부, 대한체육회 그리고 시도 기초체육회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명확한 조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본인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어느 주체도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전국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체부 측에서, 대한체육회도 그렇고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장관후보자라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할 생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아무리 업무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저는 궁극적으로는 문체부가 생활체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주무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나눠져 있어도 저희가 모아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는 데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올해부터 이관하던…… 생활체육 예산이 지자체에 이관된 것은 아시지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자체에 이관된 금액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정확한 액수까지는……

○진종오 위원 4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이유도 아십니까? 배경도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배경도 기존에 문체부랑 대한체육회의 소통의 부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각자 부서별로 아무것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로 예산이 이관되다 보니까 지자체 관리자들은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진종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런 현실을 모르셨지요? 그러면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부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종오 위원 맞는 말씀이시고 저는 두 군데가,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개선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저는……

○진종오 위원 지자체가 전문성이 떨어져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지도감독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모여서 무언가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종오 위원 시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따 추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쓰세요.

○진종오 위원 1분 더 쓸까요?

○위원장 김교홍 예.

○진종오 위원 그러면 또 얘기하겠습니다.

지도자 인권 관련해서 좀 얘기드리겠습니다.

체육지도자 인권 문제 심각한 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아무래도 모여서 폐쇄적으로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드러나지 않은 많은 인권 문제 이런……

○진종오 위원 체육지도자 인권이…… 모여서 폐쇄적인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저는 체육선수들과 지도자하고……

○진종오 위원 이것은 약간 발언을 실수하신 것 같은데 국민체육진흥법 보면 체육지도자도 윤리·인권교육을 재교육을 받게 할 수 있고요, 체육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법에 목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도자가 피해자가 됐을 때 구체적으로 보호나 회복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체되는지도 잘 모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스포츠윤리위원회 쪽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지금 보면 회복 프로그램, 복귀 프로그램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해결하려면 거기에 대한 답, 생각 같은 것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아직은 소상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진종오 위원 아니, 장관후보자라면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오셨으면 좋

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리센터 같은 경우도 수사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까 조은희 위원님 말씀처럼 대한체육회장이라든지 각 기관의, 시·도체육회장들이 셀프로 징계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관후보자라면 좀 관심 갖고 제대로 파악하셔서 해결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해도 체육단체에서 그 것을 들지 않는 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종오 위원 듣지 않는 게 아니라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피해자를 구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듣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결방안도 이따 추가질의시간에 어떻게 하실지 얘기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업규칙 관련해서 어떻게 해명할지 자료도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솔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손솔 위원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사행산업 중에 카지노, 경마뿐 아니라 소싸움도 있습니다. 소싸움은 도박, 유혹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만 민속문화라는 이유를 들어서 소싸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PPT 있으니까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소싸움 현장에서 불법도박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개인 간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소싸움 예산을 지역복지나 주민문화시설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첫째로는 소싸움 경기장 내의 불법도박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싸움 폐지에 대해서 서면답변에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11개 지자체 중의 5개 지자체는 소싸움 대회를 했었는데 예산편성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방법으로 소싸움 개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설문에서도 의견이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아무리 전통문화라 하더라도 시대 흐름이라는 것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동물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국가유산청에서도 원래 소싸움을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조사하다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철회했었거든요, 추진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서 질의답변하시면서 예술인들이 프리랜서가 많은 부분은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불안정하고 열악한 조건인데요. 정부에서 배포한 표준계약서가 예술계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 확인을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 정부가 배포하는 표준계약서는 기본 형태가 근로계약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 부분은 제가 계약서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되고 안정적으로 무언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계약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예술인들이 노동자로 인정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예술인 신문고에도 대다수가 수익 배분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임금체불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술인들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간이대지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제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예술인 신문고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요,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사건을 9명 인원인 문체부 예술인지원팀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지원팀이 신문고에 관련된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력 부족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아서 인력을 보강하거나 예술인 권리침해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별도 부서가 필요하지 않은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신문고의 설립 취지에 맞춰서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 제반 여건이 좀 열악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내용도 창작 보호라든지 이런 내용보다는 체불임금이나 이런 쪽에 너무 집중돼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립 취지에 맞게끔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체불임금이 많은 게 현안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권리 침해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빠지지 않고 관련 부처와 협력도 꼭 부탁을 드리고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을 바탕으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차’ 검열 사건과 가수 이랑 검열 사건 등의 예술인 권리 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

는지, 원인은 무엇이고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술에 있어서 그 내용 때문에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많은 그런 사례들을 취합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따져서 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혹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김교홍 예? 뭐라고요?

○손솔 위원 저 의사발언 안 했으니까 1분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교홍 예, 1분 더 추가.

○손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넘어가면 못 할 것 같아서요.

오전에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이 영화산업 위기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서면답변 주신 것도 보면 영화발전기금 재원 마련 안정적으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영화 관람객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람객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영화발전기금 재원 마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지금 재원 자체가 극장 관람객 수가 줄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다른 쪽에서의 자금을 좀 끌고 와서 지금 쓰고 있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방법은 영상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 다른 공간에서도 무언가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또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법은 반드시 찾아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후보님, 질의하겠습니다.

K-컬처 관련돼서 300조 원 시장을 개막한다고 했습니다. 또 2030년까지 저희 K-콘텐츠 수출 50조 원 시장 만들어 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내게 되면 가장 연관되는 것이 관광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임오경 위원 인바운드 관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관광하고 연계가 된 기업 오너이셨으니까 관광 관련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볼까 합니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실 때 1300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작년에……

○임오경 위원 예, 지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외국 관광객이 1630만 명입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1637만 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임오경 위원**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93.5% 수준으로 회복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문제는 국민들의 해외여행 폭증으로 관광수입 회복률이 관광지출 회복률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관광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후보자님, 인바운드·아웃바운드 관광 관련해서 제가 올가을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10월 달입니다. 캘린더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십니까? 이 달력을 보시면 10월 최장 10일간의 황금연휴에 비행기 예약 등 해외 여행 수요 지표는 작년 추석 대비 2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루 평균 22만 명 넘는 인파가 출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관광수지 적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인바운드 여행업계는 최악의 관광 고비로 우려가 큰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지금 당장 10월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체부에서도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들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지금 이 캘린더까지 보여 준 것은 10월에 당장, 만약에 지금 후보님께서 임명되신다면 이 10월 달의 최장 10일간의 황금연휴를 인바운드냐 아웃바운드냐, 관광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지금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앞서 조계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그림자 조세 폐지라는 미명으로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줄인 출국세 다시 저는 원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임명되시면 바로 복원시키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바로 복원시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조금은 검토해야 될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복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능한지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임오경 위원** 정부에게 요청하시고 기재부하고 말씀 나누셔서 저는 바로 복원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임오경 위원** 적극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또 반대로 일본은 현재 1000엔의 출국세를 최대 5000엔까지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일본은 관광으로 먹고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엔에서 5000엔으로 인상한답니다. 이게 왜 그런다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관광수익을 더 늘려서 국가의 외화 확보에 더 치중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금 관광수입이 자동차 부문에 이은 두 번째 외화를 벌어들이는 하나의 큰 수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관광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익 확보를 위한 전략들을 쓰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관광수입으로 지금 재정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재방문 관광도시로 꼽히는 게 일본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도 분석을 해서 뒤쳐지지 않게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태국을 봤더니 현재 약 3만 1200원 출국세가 있는데 입국세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약 7만 400원의 출국세가 있다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해외 각국에서는 출국세를 모두 올리는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만 지난 정부에서 출국세를 낮추며 관광산업을 지탱해 온 기초 재원 구조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광재정 확충을 위한 후보자의 대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관광세를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에도 요청하시고 기재부하고도 신속하게 논의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후보자님, 케이팝, K-드라마, K-푸드 등등 외국인들이 동경하는 자랑스러운 K-컬쳐입니다. 그런데 K-택시는 방한 관광객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아직은 여전히 불편함이 많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바가지요금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K-택시 바가지요금, 나라 망신의 대표적 상징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서울까지 요금을 40만 원 받고 운행 중 미터기를 아예 켜지도 않고 바가지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또 여행지 식당에서도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사례는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관련돼서 오히려 활성화를 저해하는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후보자님, 이를 끝장낼 대책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확실하게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지도감독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바가지요금으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제가 정확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무언가 별칙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오경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강경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후보자님, 인바운드에서 국내 관광을 제대로 하려면 도시관광을 좀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잖아요. 지역마다의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을 지자체와 잘 협의해서 갈 수 있게끔, 머무를 수 있게끔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의 존경하는 박정하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위원장님도 고생하시고 위원 여러분들도 애쓰십니다.

그런데 아까 정회 이후에 후보자께서…… 저도 지금 정책질의 좀 하면 좋겠는데 후보자님 왜 이렇게 저를 안 도와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정회 이후에 오해가 있어서 좀 억측을 부려서, 저희 위원들이 억측을 부리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후보자가 야속합니다.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straightforward)하게 말씀하시고 아니면 좀 미안한 게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조은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꾸 비트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점심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들었습니다마는 15일간 집에 안 들어가면 주민등록법상 위반이래요. 아까 김승수 위원님이 여줬을 때 두 달 그다음에 열 달 이렇게 자주 옮겨 다닌 것에 대해서 오전 답변에는 우편물이 많이 쌓여서 힘들고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어찌 됐건 주민등록법상 위반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이런 사연이 있어서 어쨌든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손설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20만 원, 30만 원 용돈 받고 밖에 나가서 알바해서 10만 원 조금 더 보태서 좋은 운동화 사 신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 8억 중여했으면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가슴에 안 와닿는 거예요.

우리 후보께서 아까 정부 역할은 학전 소극장 얘기하고 김민기 선생 얘기하면서 뒷것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후보께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오면서 다 완벽할 수 있어요.

일반 국민들한테, 정말 예술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정말 힘든 우리 젊은 예술가들한테, 아니면 체육인들한테 마음을 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관후보를 우리 국민들은 기다리는 거고 저희 위원들도 장관후보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설령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잘못됐으니까 내가 넘어간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문화정책이 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틀고 왜 이렇게 빼져나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말씀 좀 주시고, 저도 준비한 정책질의 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관련해서 오전에 말씀 주신 것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도서문화재단씨앗과 관련해서 이것은 민법상 공익법인이므로 구성원이나 아니면 사용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어요. 어제 MBN 보도는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 보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보도는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저는 이해를 못 하는 보도입니다.

○박정하 위원 아, 이해 못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보도 내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제가 그사이에 법무부 심의관실, 기재부 재산세제과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봤더니 ‘그러한 공익법인은 설립 근거와 무관하게 중여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으면 상속세 및 중여세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서 세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핵심 법은 상속세 및 중여세법입니다’라는 답이 있어요.

왜 후보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의 20%가 이사회에 구성되면 안 된다는……

○박정하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끝나고 나서 저녁 추가질의 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및 중여세법이 어떤 규정인 건지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관련자가……

○위원장 김교홍 1분만 더 드려요.

○박정하 위원 특정 범주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관련해서 특정 목적의 기여금을 다 써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것 확인하시고 답변 주세요.

PPT 자료 하나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도서문화재단씨앗의 이사장으로서 17년부터 지금까지 오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도서문화 씨앗의 출연주식 중에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등록된 출연주식을 보면 저렇게 제법 많습니다, 네이버와 관련해서. 그리고 2017년경에 주식 처분을 해서 959억 원을 현금화해요.

그것은 맞지요,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거기서 한 490억 정도는 쓰인 흔적이 보여요, 제가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물어봤더니. 그런데 472억 원이 하늘로 떠요.

이것도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교홍 1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다 고유사업에 사용하고 있

습니다. 그 내역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것 좀 확인시켜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박정하 위원** 제가 추가 답변 준 것 중에서 전자문서로 주신 것 확인을 해 봤더니 총 16건을 주셨는데 이 중에 기왕에 이미 들어왔던 자료도 있고요 요구하지 않은 자료들도 있고요 죽 많이 그냥 덤터기로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작 필요했던 지금과 같은 제가 궁금한 저런 자료는 없어요.

이것 좀 챙겨서, 저녁 질의할 때까지 챙겨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이것으로 5분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말씀하세요.

○**배현진 위원** 정회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교홍** 정회할 거예요.

○**배현진 위원** 아까 저희 추가질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기회 주셔 가지고 후보자께서 본인의 변을 하시면서 따님께서 글로벌 회계법인과 이 2개의 입사 확인이 돼 가지고 둘 중에 어디를 갈까 아버지한테 되게 진지하게 상의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배현진 위원** 맞습니까?

그런데요 위원장님,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지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장이 대단히 엄중한 자리거든요, 후보자님. 그래서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지금 글로벌 회계법인의 입사 포기 레터와 아까 전에 이 회계법인에서 합격을 제안받았다는 날짜를 좀 확인하시면요 분명히 후보자께서는, 회계법인이 아니라 웨이브에서 합격받았다는 이 이메일의 날짜를 보시면요 웨이브에서 합격하기 전에 따님께서 먼저 글로벌 회계법인에다가 ‘나 안 가겠다’라고 메일을 보내요.

후보자님, 합격통지서도 받기 전에 아빠한테 ‘나 2개 붙었는데 어디 갈까’라고 상의하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회사고요……

○**배현진 위원** 아니, 이 웨이브라는 지금 저희가 아빠 찬스로 갔느냐라고 의심하는 이 회사에서 합격 통지를 받기 전에, 따님은 그냥 절차를 거쳐서, 거기 공고를 거쳐서 됐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합격 통지를 받기도 전에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이게 붙은 줄 알아 가지고 2개 중에 뭘 할까라고 해서 이 회계법인에다가는 ‘안 갑니다’라고 메일을 먼저 보내냐는 말씀이지요. 이게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회하실 거니까 이따 다시 후보자께서 표명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교홍** 지금 배현진 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아까 후보자가 얘기한 것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2개를 합격해서 여기를 가겠다, 웨이브미디어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따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지금 지적은 조금 내용이 다르니까 그것은 이따가

저녁시간 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이 메일은 저도 지금 진행 중에 받은 거라서……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또 있어요?

○배현진 위원 자료 관련해서 하나만……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배 위원님 저한테 얘기해야 돼요, 의사진행발언은. 후보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께 지금 말씀 중인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을 후보자가 지금…… 시일이 맞지 않는 부분, 아까 발언하신 부분과 함께 증빙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해 주신 바대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네이버 측으로부터, 후보자의 따님이 지금 이메일에서 절차를 못 찾고 있다고 아까 난항이라고 하셨는데 네이버 측에서 당시 인사담당자의 메일 기록을 보면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응답을 받았고 이 인사담당자가 현재 네이버 라인에 아직 재직 중이다라는 응답을 받았으니 그쪽에서 협조받으면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 아니고 장관직이니까 후보자께서 네이버 쪽에 협조를 요청해서 당시 인사담당자의 메일을 통해 따님이 어떤 취업을 위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해 주십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지금 배 위원님 말씀은 네이버에서 확인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후보자님은 지금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것은 저녁시간 때까지 가능하면 확인을 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자료 요구 말씀하세요.

○김승수 위원 앞서 질의하면서 제가 요구했던 후보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20년 동안의 취득록세, 재산세 납부 내역 없으면 없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중여세 탈루 또 대납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2010년 중여했던 것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달에 또 3월 달에 중여세를 냈고 2021년 중여한 것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달, 6월 달에 납부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납부를 어디에서, 어느 계좌에서 납부했는지 그 납부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여러 가지, 트리플 창업해서 대표 역할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2020년 트리플이 야놀자와 체결한 투자 및 콜옵션 계약서 사본 그리고 트리플 창업 이후에 펀딩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 내역 그리고 지금 인터파크트리플하고 야놀자 합병 과정 중에 인터파크트리플의 기업가치 산정 근거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녁 속개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잘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저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무슨 발언입니까?

○조은희 위원 자료 요구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자료 요구 말씀하세요.

○**조은희 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전 시작할 때부터, 따님이 해외에 고등학교 때부터 계셨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송금한 자료 내역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까 한 장 주신 게 저는 해외 송금 자료인 줄 알았더니 그거는 후보자 따님의 집 월세 계약서더라고요.

○**조계원 위원** 은행 송금 내역 들어가 있잖아요.

○**조은희 위원** 없어요.

○**조계원 위원** 있었는데요. 봐 보세요.

○**조은희 위원** 10년 동안 해외 송금 내역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잘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교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장관후보자께서 추가적인 자료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아까 배현진 위원께서 얘기한, 따님의 합격 시점이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우선 정회 전에 배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웨이브미디어에 합격한 날짜는 2016년 7월 11일인데 어떻게 그 전인 7월 7일에 EY에 미리 포기 메일을 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미국에 있는 딸아이에게 통화로 물어본 결과 웨이브에서 구두로 합격 통지를 받은 것은 7월 7일 이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회사 중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을 했었고 결국 최종적으로 웨이브를 선택하기로 결심을 해서 7월 7일에 EY에 취업을 포기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11일에 받은 웨이브로부터의 메일은 합격 통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맡을 일과 보수 등의 내용이 담긴 공식 오퍼메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자료는 더 없냐고 물었더니 제 딸아이는 당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냈었고 임원 인터뷰를 했었는데 현재 관련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저희 청문회 준비단에서 연락을 해서 관련된 이메일이 남아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은 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답이 오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하 위원님께서 도서재단씨앗 문제에 대해서 자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살펴보니 오늘 오후에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의문을 충분히 소명

할 수 있을 만큼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도서재단씨앗에 연락을 해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 역시 가족이 관련된 일이다 보니 나름 최선을 다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일이 오래되기도 했고 웨이브미디어가 5년 전에 사업에서 철수되면서 안타깝게도 자료를 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계속 찾아서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입수되는 자료가 있다면 곧바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알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박수현 위원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한 후보자의 태도와 제출 자료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해서 본 청문회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사실 본인의 따님과 관련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청문회 도중에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미국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동안 장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 정도의 어떤 아주 내밀한 사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따님이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왜 진작에 제출하지 못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위원님들로부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이렇게 질책을 받고 본 청문회의 분위기가 매끄럽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다시 한번 후보자에게 정중하게 본 위원회에 또 위원들께 사과를 받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지금 사과를 하셨잖아요. 지금 후보자가 사과를 했는데, 사과는 또 자꾸만 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은 진정 어린 사과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교홍 됩니까, 조은희 위원은?

○조은희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요청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자료 요청? 그러면 하세요, 자료 요청.

○조은희 위원 후보자님께서 지금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과 또 간사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고 또 낼 수 있는 자료는 청문회 끝날 때까지 또 청문회 끝나더라도 내겠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침부터 요구한 자료는, 후보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해외 송금한 내역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따님한테 보낸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좀 챙겨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아까 준 자료에 송금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 부분은 월세 납부한 자료고요. 송금한 자료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늘 요청하신 자료들은 다 준비단에서……

○위원장 김교홍 준비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찾고 있는데 아직 제가 받은 게 이 정도여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사과할 때 위원님들께 해명드릴 수 있는 것, 소명드릴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전달해 드리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 자료를 어떻게 할 건지……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지금 조은희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 이 부분도 빨리 찾아서 또는 요청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저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조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후보자님께서 아까 우리가 오해하게끔,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오해하시고 저도 잠깐 오해했습니다. 또 조계원 위원님도 오해하시고. 월세 자료를 마치 송금 자료인 것처럼 저희들이 잘못 알았단 말이지요. 방금도 위원장님께서 아까 그 자료 받지 않았나 그러셨는데 지난 10년 동안 해외로 송금한 것은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받지 않았음이 확실하고요. 그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후보자에게 다짐을 좀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장관후보자께서 해외 송금한 내역을 빨리 찾아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해외 송금 자료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거기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제가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판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이제 의사진행발언 그만하시지요. 제가 사회를 보면서 굉장히 매끄럽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이제 좀 제발 정책질의를 해 주십시오. 장관후보자를 모셔 놓고 따님의 문제만 집중적으로 해 갖고 한다는 것도, 또 오늘 제가 보니까 장관후보자께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하신 것 같아요.

○배현진 위원 아니, 도덕성 검증을 왜 위원장님이 판단하십니까?

○위원장 김교홍 그래서 이제 의사진행발언은 그만하시고 정책질의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배현진 위원 정책질의도 정책질의지만 후보자 도덕성 검증도 중요한 검증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왜 자꾸 위원장님이 위원들 질의를 평가하십니까?
- 위원장 김교홍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통해서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왜 안 주십니까?
-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순서에 대해서 김승수 위원님 질의시간이니까 말씀하세요.
-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교홍 질의시간에 말씀하시라고.
- 김승수 위원 질의가 아니고 지금 자료제출 태도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려고 그려는데 왜.....
-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러니까 질의시간에 말씀하세요.
- 김승수 위원 너무 독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교홍 왜냐하면 자료도 미흡하면 질의하면서 받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구두로라도. 그동안 내가 충분히 시간을 줬어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이제 그만하세요.
- 김승수 위원 이전에 저희가 민주당 위원들 의사진행발언할 때 위원장님 오기 전에 수차례 돌아가면서 해도.....
- 위원장 김교홍 질의 안 하실 거예요, 김승수 위원님 순서인데?
- 김승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좀 주십시오.
- 위원장 김교홍 아니, 먼저 하세요. 질의 먼저 하십시오.
- 조은희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도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김교홍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조은희 위원은 다섯 번 드렸어요.
-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김승수 위원도 주십시오.
- 위원장 김교홍 다 드렸어요, 제가. 안 드린 것 있습니까?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계속 꼬투리 잡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이것 청문회를 못 해요.
- 김승수 위원 저도 정책질의 바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청문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계속 따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 배현진 위원 아니, 장관 청문회가 무슨 장난도 아니고 국민들 의혹 검증하는 건데 지금 정책질의를 하고 도덕성 검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 위원장 김교홍 검증을 그만큼 했으면 됐지요! 검증은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해.
-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도덕성 검증도 검증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그리고 자료를 청문회 기간 아니면 끝나고라도 주겠다고 하는데.....
- 배현진 위원 이게 무슨 장관..... 문체부가 지금 구멍가게예요?
- 위원장 김교홍 구멍가게라니요. 어디 말을 그렇게 합니까?
-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대로 검증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교홍 검증은 이만큼 하고 또 정책.....
- 배현진 위원 뭘 어디 말을 그렇게 해. 위원장님, 왜 위원들 질의하는데 뭘 하라 마라 하세요? 야당 위원들한테는 특히!
- 위원장 김교홍 정책질의를 해야지요, 정책질의를! 해도 너무하잖아요.

-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정책질의를 할 수 없이 자료를 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교홍** 자, 정회하겠습니다.

(20시12분 회의중지)

(20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교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순서인데요. 제가 추가질의에 1분을 더 드릴 테니까 충분히 말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지요.

- 김승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아까 요청했던 것은 장관님의 그런 응대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도 지금 8시 넘어서까지 의사진행발언하고 자료 요구하고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정책질의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도덕성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가족과 관련된 의문,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자료제출하셨거나 우리가 애초에 요구했던 자료를 제때 보내 주셨으면 그냥 간단하게 확인할 건 확인하고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후보자 검증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도 자녀들, 친인척에 대해 가지고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다 제출 안 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4급 이상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감사·특수직 같은 경우는 9억부터 재산등록 합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들이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재산등록을 통해서. 후보자는 그런 과정을 안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직자 같으면 당연히다 노출돼 있는 걸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지금 가겠다는 분이 그런 자료를 전부 다 제출을 안 하니까 의혹들이 소명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오늘 몇 가지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 다 지켜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실하게 저희 자료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해 달라는 겁니다.

후보자를 지금 문체부장관으로 지명한 이유 중에 보면 기자에서 기업으로 옮겨 가셔 가지고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 플랫폼 기업의 대표도 하시고 창업까지 하셨습니다. 창업하시고도 여러 군데를 합병해서 거치셨는데 창업하신 것에 대해서는 창업주로서 어떻게 좀 성공적인 경영인이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경영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승수 위원** 그런데 트리플 창업하시면서 2016년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제출 안 하셔 가지고 억지로 여기저기 저희가 서치해서 찾았는데 그때 보니까 2020년 말까지 한 640억 원대 유치한 것으로 나옵니다. 2018년에 120억 또 2019년에 330억 등 포함해서 이게 2020년 트리플 감사보고서에서 나옵니다.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거의 640억 유치를 해서…… 투자하신 분들한테 그 이후에 수익 배당은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송구스럽지만 2000년에 코로나가 오면서 한동안 수익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승수 위원** 코로나 2020년에 왔지요. 그런데 18년, 19년, 2020년에 또 인터파크트리플 합병 당시 감사보고서 보면 순자산이 -125억입니다. 회사 경영하면서 무려 800억 가까이 손실을 본 겁니다, 결과적으로.

후보자께서는 트리플에 본인 개인 돈은 투자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투자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얼마 투자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계속 증자할 때 참여했기 때문에 총액수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어쨌거나 앞서 이렇게 한 600억 이상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익 환수를 못 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렇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은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밸류에이션(valuation)을 하게 됩니다.

○**김승수 위원** 어쨌거나 배당을 못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배당했던 실적을 달라고 그러니까 제출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배당이 아니고 그 지분의 가치, 주식의 가치는 투자했을 때보다는 높아졌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어쨌거나 트리플, 인터파크 합병하면서 이렇게 보면 계속 손실만 냅니다, 경영 손실을 150억, 197억, 262억 이렇게. 그런데 이런 손실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합병을 통해서 본인의 연봉은 이렇게 수직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승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만에 개인 연봉은 10배나 상승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제가 트리플을 경영할 때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거의 월급을 받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직원 수는 IT 엔지니어들이 100명이 넘는 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손실이 날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만든 앱이 지금은 회원 수가 1000만입니다. 그만큼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야놀자가 투자를 했고 인터파크랑 합병을 했습니다. 인터파크는 제가 합병을 했을 때도 적자였습니다. 지금은 적자 폭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급이 오른 것은 야놀자와 합병하면서 작년에 제가 야놀자 전체 그룹의 코어 멤버로 참여하면서 돈을 받은 것이지 인터파크트리플에서 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터파크트리플이 야놀자 그룹 전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는 주체는 인터파크트리플이었지만 제가 했던 역할은 야놀자 전체 그룹에 대한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월급이 오르게 됐습니다.

○**김승수 위원** 본인이 얼마나 투자자들에 대해서 배당을 했는지 수익을 돌려 줬는지 또 얼마나 법인세를 냈는지 매출을 얼마나 올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아무것도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 역량이 없는 모양이다. 그런 가운데서 보면 개인 연봉은 올라가고 개인 자산은 늘었으니까 결국은 경영 전문가가 아니고 엑시트(exit) 전문가, 합병 전문가 아니냐. 또 합병하면서 개인 자산만 늘리는 사익만 추구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료를 제출 안 하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아닌 관련되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것은 계속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만 시간 다 돼서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박수현입니다.

저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차원에서 적극 대응이 시급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주를 포함해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총 16개국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고 내년 초에는 IOC에서 개최지 선정 방식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027년 또는 28년경에는 개최지를 최종 선정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림픽이 대륙별로 순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36년 하계올림픽은 아시아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이고 개최지 선정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문체부가 주도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도 정부에서 유치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노력했고 비록 유치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2030부산세계박람회 역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해 전방위 활동을 벌였습니다.

현재 사전타당성조사 등 문체부 심사가 진행 중인데 이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하되 병행해서 유치 활동을 주도할 국가 차원의 유치위원회 구성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대통령 공약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시대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께서 하도 이 아시아문화전당에 관한 질의를 우리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길래 오늘은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이번에 광주 문화 공약을 하면서 대한민국 문화수도, K-컬처 중심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시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핵심 시설인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기반을 조성한 2004년부터 15년까지 1.0 시대 그리고 2015년부터 25년까지 사업을 본격화한 2.0 시대 그리고 이제는 문화가 산업으로 연결되고 세계로 확산하는 대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공약을 실행에 옮기고 지역 균형성장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첫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유효기간을 31년에서 36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둘째 AI 기반 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인재·기업·문화가 공존하는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을 조성하며, 셋째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을 통해 지역의 균형 있는 문화향유권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의 열망이기도 하고요 올림픽 유치는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어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필요한 절차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쟁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아마 그렇게 해서 각 지방정부가 애초에 계획했거나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중앙정부의 시각으로 함께 지원을 보태면 새로운 계획의 변화들, 더 좋은 방향으로의 발전 방향들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 문체부가 중심이 되고 지방정부와 적극 함께 손을 잡고 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배현진입니다.

후보자님, 저희가 지금 질의하는 후보자 자녀의 특혜 취업 의혹이 신상 털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위원 후보자 따님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하는 게 아닙니다. 후보자께서 네이버라는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활약을 하시면서 쌓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에게 특혜를 주었는지 공적인, 사적인 지위를 남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국정감사마다 우리 문체부 전체 부처 수십 곳에서 인사 남용과 전횡과 아니면 인허가권을 두고 국민들 보기에 매우 마땅치 않은 일을 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것 국민들이 도둑놈이라고 하지요. 그런 일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 부처의 장관, 수장이 되시려면 깨끗하셔야겠지요.

아까 전에 후보자께서 거의 5분에 가깝게 얘기를 하셨어요. 속기록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두 군데 다 합격을 했으니까요, 비로소 그래서 저한테 상의를 했고 이렇게 여기도 불고 저기도 지원해서 됐는데, 그래서 했다. 그런데 두 가지 자료를 보니까 날짜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이, 이제 와서 전화로 구두로 확인을 해 보니까 미리 사전에 구두로 통보를 받았다더라.

장관후보자님, 구두 증명이라는 것은 이 상임위장에서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희한테 ‘구두로 증명했어’ 이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 증명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6월 15일에, 이 이사회 6월 10일에 의결돼서 15일에 설립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웨이브라는 회사가? 아까 기억하십니까, 이사회 의결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것은 위원님이 보여 주신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배현진 위원 땅님이 그러면 적어도 이 글로벌 회계법인에 안 가겠다고 한 7월 7일 이전에 구두로 통보를 받았다라는 건데 말씀하시기로 지원서, 자기소개서, 임원 면접의 단계를 거쳐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다시 전화하세요. 다시 전화해서 언제 지원했고 언제쯤 했고 구두 통보를 언제쯤 누구에게 받았고, 임원 면접은 후보자님이 빤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받았는지? 임원 면접 받은 것은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확인해서 다시 알려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요. 이게 대기업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일했던 후보자가 지금 대충 그때 했다는데요라는 식으로 여기서 해명하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큰, 7조 원 가까운 예산을 쿠리는 부처의 수장이 되셔야 하고 국민들 보시기에 떳떳한 장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런 사적 남용을 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보기에는 궁여지책으로 지금 자꾸 말을 땜질 식으로 갖다 붙이고,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후보자님, 오늘 그렇게 인상이 남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최대한 투명하게 설득하고 소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현진 위원 다시 전화하세요. 땅님께 그 임원 면접 누구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딸에게도 더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 무엇인가가 나오면 계속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불과 20일 만에 지금, 20일 상간에 합격했다는 거거든요,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그렇지요? 어떻게 절차 진행됐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네이버가 아니라 그때 막 법인을 LA에 설립한 회사고요. 사람이 많이 필요했던 회사입니다. 거기서 채용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배현진 위원 네이버 자회사잖아요. 지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제가 여기서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동원해서 지금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모아지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후보자님! 여기 지금 장난하는 데 아니고 확인하시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확인하고 대답하세요!

○위원장 김교홍 이제 정리해 주세요, 배현진 위원님.

○배현진 위원 확인하고 대답하세요, 못 하겠다고 여기 와서 변명하지 말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후보자님 좀 빠른 속도로 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답을 해 주십시오.

따님이 웨이브미디어에 취업할 때 아빠 찬스 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빠 찬스라고 여겨질 만한 의혹이 있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없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이 조금 전에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전주에서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동의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동의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제가 세 가지 안을 내 볼 테니까요 이 중에 어느 쪽이 제일 좋은지 한번 해 보십시오.

첫째, 전주가 중심이 돼서 독립적으로 한다,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둘째, 전주·광주 등 인근 도시와 연계해서 한다. 셋째, 남북이 공동 주최한다.

어느 쪽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 정도를 대답할 만큼 충분히 과학은 안 됐지만 저는 전주만이 하기에는 올림픽은 사이즈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도시들과……

○민형배 위원 남북 공동 주최, 평양·전주 공동 주최 같은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 부분은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넘어야 될 과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검토해 볼 수 있는 일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저는 충분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음에 월드컵을 개최하게 돼도 남북이 공동으로 주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래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질의 이후에 계속 이어 갈게요.

지금 K-컬처가 성장하려면…… 이 청문회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제발 예술을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보지 말아 달라.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동의합니다.

○민형배 위원 문화예술의 지역적, 그러니까 근거를 확보하는 것 혹은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 중요한 것이지요? K-컬처가 앞으로 더욱 확장·성장해 가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제가 자주 제기하는 문제인데요, 8개의 국립예술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연을 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86.3%. 이것 지역균형 차원에서 검토를 좀 다시 해야겠지요? 그럴 생각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 차원에서 서울예술단을 원래 ACC로 이전한다, 들어 보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들어 봤습니다. 저는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 광고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우리나라 광고비 현황은 대략 아실 거예요. 한 13.8조 정도 되지요. 그중에 정부광고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1조 3000억 되는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예, 맞습니다. 1조 한 3100억 정도 되는데……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민형배 위원 고맙습니다.

근래에 이 정부광고 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세 가지 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SBS처럼 MBC·KBS에 각각 별도의 미디어렙을 설치해서 아예 KOBACO를 해체해라. 두 번째, 언론진흥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언론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정부광고 중에 인터넷하고 방송광고 쪽을 KOBACO 쪽으로 분리해 줘라. 세 번째, 그럴 필요 뭐 있느냐, 광고 관련 기관을 통폐합하자. 그래서 무슨 미디어진흥재단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자.

세 안 중에 지금 우리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안이 어떤 것이고 왜 그런지를 좀 설명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저는 세 번째 정부광고를 주도하고 있는 주무 부처인 문체부 쪽으로 다 일원화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광고라는 것은 정부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홍보를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곳이 이 일을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입니다. 분산돼 있다 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의 특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문체부가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관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정부광고를 통한 수수료로 지방에 있는 여러 방송국이라든지 언론사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예산 안에서 잘 협의를 한다면 반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장관이 되기 전에 파악한 생각이고요, 장관이 된다면 이 부분은 더 깊게 봐서 왜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타당성을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후보님, 후보자님 지명을 두고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깊은 우려와 반발이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영화계에서는 이제 문체부가 문화예술계를 돈 만드는 시장판으로 만드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고요. 문화계에서는 유통업자가 문화를 지휘하고 문화의 탈을 쓴 업자에게 예술이 능욕당할 듯싶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화예술 본질보다 상업주의가 문화예술을 잠식할까 우려한다는 게 그 핵심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후보자가 인터파크 대표로 있으면서 소비자 기만, 수치 부풀리기 마케팅을 했다는 점입니다. 인터파크는 ‘해외여행 1등은 인터파크다’, ‘티켓 거래액 역대 최대 1조 원 돌파’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셨어요.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니까 업계에서는 허위광고, 소비자 기만이라고 반발했고요. 실제로 25개 여행사의 신고로 24년 8월에 공정위 경고까지 받으셔서 지금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지적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좀 얘기를 했는데 ‘공연·티켓 거래액 1조 돌파’라는 광고도 하셨는데 이게 짹 비틀었어요. 직전 광고하고 달리 슬쩍 기준을 바꾼 거예요. 그전에는 공연·티켓 거래액인데 이제는 전시·스포츠 부분 거래가도 공연판매액인 것처럼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계에서는 후보자님이 만약 문체부장관이 돼서 1위, 1조, 역대 최대라면서 과장을 해서 끔수로 수치를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정작 문화예술계를 망하게 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보자님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티켓 배송비도 10% 인상하고 예매수수료도 1000원에서 2000원, 2배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정작 개인정보 유출에서는 소홀했어요. 왜냐? 지금 인터파크에서 세 차례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졌는데 대표님으로 계실 때도 2023년에 78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과징금 10억을 받았거든요.

제가 물겠습니다.

1등이라는 허위 마케팅으로 공정위 경고를 받고 개인정보는 구멍 난 바가지처럼 세 차례나 줄줄 쌤고 소비자들한테는 예매수수료, 배송비 더 내라 이렇게 하는 것 보면서 문화예술 본질보다 상업 논리가 우선되는 장관후보자 아니냐 이런 걱정입니다. 이런 우려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불신과 우려…… 예술이 능욕 당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소하시겠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회사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에 대한 지적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경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외부의 지적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따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장관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부분들은 다른 경쟁사들과 서로 경쟁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금 공익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제가 문체부장관이 되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절대 있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은희 위원** 장관님의 이 답변을 듣고 시장판으로 문화예술계가 만들어질 것 같다, 예술이 능욕 당할 것 같다는 문화예술계 대표님들이 과연 ‘아, 맞다. 믿어도 되겠다’ 하실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면, 그러기를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장관후보자님, 독도는 일본 땅입니까, 한국 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우리나라 땅입니다.

○**양문석 위원** 정말 제가 지난 1년 동안, 국회의원 된 이후에 많은 장관들께 독도는 한국 땅이냐, 일본 땅이냐를 질문했었을 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신 장관이나 장관후보자를 거의 보지 못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계속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포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입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과 네이버는 유난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받았고요. 뉴스의 배열과 댓글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정치 편향성에 대한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건강한 저널리즘 복원을 목표로 해서 언론사의 포털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2016년 카카오와 네이버가 동시에 출범을 시켰었지요. 이때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3년 5월에 제평위 운영을 중단했다가 며칠 전 25일 날 다시 제평위를 재개를 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도 23년 5월에 중단한 이후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입점과 퇴출을 결정한다라는 건 언론의 생사 여부를 쥐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취재도 하지 않고 생산도 하지 않는 포털사가 사실상 언론사의 생사 여부를 평가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비밀리에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오늘 혹시 국무회의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청문회 참석하느라고 보지 못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오늘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가 68분 동안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방송이, KTV가 중계하는 국무회의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 이게 공개의 힘이구나’ 하는 것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있다니’라고 하면서 이후에 국무회의가 얼마나 많이 공유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죽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론사의 생사 여탈을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정말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공개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뉴스를 다루는 곳은 가장 첫 번째가 신뢰를 얻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뉴스평가위원회가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제가 깊게 몰라서요, 그 부분은 제가 빨리 파악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한 방법들을 강구하는 쪽으로 저희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이용자 67.7%가 양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대 포털이 계속해서 밀실에서 언론사의 생명 줄을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행태들은 결코 대한민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론 민주화나 언론 자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회의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반드시 이 평가 과정들을 낱낱이 보여 주고 공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결정들이 국민적 정당성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 문화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리고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거의 70%가 소비하는 이러한 포털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을 사실상 방관하고 손을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더 이상 양대 포털이 가지고 있는 독과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파괴되고 언론이 어떻게 장악되고 있고 여론이 어떻게 조작되고 있으며 그리고 여기에서 가짜뉴스가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 공개를 검토해서 의원실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도 이제는 국민 앞에 공개하는 시대임을 장관께서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훨씬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부 정책을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제가 장관에 임명이 되면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정책 관련 질의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저녁 식사 중에 방영된 전통예술과 의혹 관련 방송 보셨나요, 혹시? 현재 경찰 내사 중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해당 학교 교장 공모와 관련해서도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사실을 밝혀 낸 바 있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이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2015년에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마치 일종의 카르텔이 움직이듯이

이 문제가 근절이 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비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 책임지고 조사하고 처분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학교는 예산 쓴 것에 대한 보고 이런 부분에서도 부실한 게 있었다라고 들었고요. 지금 신임 교장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문체부 산하기관 학교이기 때문에 더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다음으로 좀 빨리 가겠는데요 체육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체육계가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정책에서 완전 배제됐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불만이 굉장히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반드시 기울여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이런 구조적으로 소외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좀 해 볼 때 차관급 인사가 실질적으로 정책 집행의 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체육계의 존재감과 현장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핵심 통로인데 장관이 되신다면 대통령께 문체부차관 인선과 관련해서 체육계의 전문성과 현장성, 조직 내 위상을 고려해서 이런 인물을 천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체부장관 되신다면 대통령께 체육 분야의 지속적인 소외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를 하시고, 차관 인선 과정에서 체육계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직접 건의하실 그런 용의가 혹시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께서 기초예술 분야 참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기초예술 지원이 축소된 상황에서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었지요?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에 따라서 조성된 대한민국 유일의 기초예술 창작 지원 공공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간 제도적 구조 변화와 정책적 무관심 속에서 본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2004년에 기금 모금 제도를 폐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문예기금은 자체 수입 기반이 완전히 상실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복권기금, 체육진흥기금—이게 스포츠토토인데—비예술 목적의 외부 재원에 크게 의지를 하고 의존하고 있는 그런 구조지요. 그 결과 2004년에는 약 3000억이었는데 2019년에는 1400억 원, 2023년에 626억 원 수준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전체 규모의 80% 이상 기금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이 문예진흥기금 축소로 인해서 기초예술 지원 기반의 붕괴라는 위기 상황을 후보자께서 정확히 인식하고 계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지난 20년간 10분의 1로 줄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예, 맞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고길 위기에 처한 이 문예기금 재원 어떻게 마련하실까, 어떻게 확보를 할까, 어떻게

제도적으로 떼꿔 나갈 계획인지 혹시 구체적인 방안이 좀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몇 번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기반이 되는, 문화예술의 기반이 되는 부분들은 더 강하게 만들어야 저희가 K-컬처 300조 원이라는, 문화강국이라는 그런 기조들도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재원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쪽에 어떤 재원들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장관이 되면 가장 먼저 그것부터 챙겨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끝나 가는데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못 해서, 저 역시 자료 요청인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따님하고 관련된 것도 아니고요, 아까 요청을 드렸던 것인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들국화컴퍼니 관련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예, 그거는 혼자 1인 법인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출하실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아티스트한테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 부분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청문회 끝나더라도 그 부분은 챙겨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요, 빨리빨리 좀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 통해서 영화관람 할인권 450만 장, 문체부에서 국민들에게 나눠 주신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단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간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영화계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모처럼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고요,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사이트가 다운될 정도로 소비자들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실효성 있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단비처럼 지금 영화계에 가고 있는데요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영화계에 관련돼서, 독립영화 그리고 블록버스터 영화 사이에 중예산 영화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 30억에서 80억 정도 사이의 영화들인데 이 중예산 작품들 9편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100억 단위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개 영화당 1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쉽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런 중예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개봉관 상영도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영화감독들이라든지 시나리오 작가들 그리

고 배우들의 출연작도 충분히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예산 영화가 결국은 씨앗인 독립영화와 그리고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영화 사이의 중간 영화이고 이것들의 활성화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원 계속해 나가실 의사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렇게 해야 독립영화도 그다음 단계로 진화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블록버스터는 오히려 해외에서도 큰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저희가 쟁겨야 될 부분들은 독립영화와 중예산 영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중예산 영화와 관련돼서 올해 예산 100억 배정이 됐는데 내년에 더 늘리실 계획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올해 처음 그런 시도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시도들이 이루어진 거고요. 앞으로 확대·발전될 수 있도록 쟁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다음으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영화 관련된 지원 예산들이 대부분 많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아시다시피 독립영화 제작·배급 지원 재원 그다음에 지역 영화 활성화 관련된 예산, 독립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예산들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서울독립영화제 예산은 아예 삭감돼 버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다시 살려 냈습니다.

이런 영화 지원 예산들은 영화계에서 보면 R&D 예산입니다. 뿐만 예산입니다. 씨감자를 살리는 예산들이거든요. 이 예산들 복원하고 그리고 확대시킬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줄어들었던 예산이 추경으로 그나마 일부 보완이 됐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뿐만 강해져야 문화강국으로 꽂파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쟁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감사합니다.

영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 영발기금이 작년 유인촌 장관 시절에 죽었다가 다시 복원됐습니다. 정말 어렵게 여야 합의에 의해서 복원된, 정말 영화계에 있어서는 단비와 같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대한 관람이 현저하게 줄면서 영발기금의 재원 자체가 축적되고 확장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화계 내부에서는 요새는 영화보다는 OTT 쪽 수요들이 워낙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정말 OTT든 어떤 것이든 영상산업의 뿐이라고 하는 영화의 발전기금을 만드는데 OTT가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해외에서는, 프랑스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OTT 플랫폼에 대해서 일정한 영화발전기금들을 쌓아 나가고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글로벌 OTT들은 지금 가치사슬에서 되게 힘이 강한 존재입니다. 저희 영화 제작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동등한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좀 더 나서서 무언가 요구하고 가이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방금 그 부분도 그런 일환으로

잘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글로벌 OTT 수익의 일정 부분을 영화발전기금으로 축적해 나가는 제도의 도입,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후보자님, 국내 최초로 온라인게임을 제작하셨습니다. 실제 게임 제작을 주관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할애됩니까? 얼마나 소요되는지 대충 계산이 나오지요, 대략?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게임 자체를 실제로 최초로 제작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제가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전체 주관하신 거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우리나라 첫 온라인게임은 ‘바람의 나라’라고 넥슨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관련 기업에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정연욱 위원** 아마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관련된 게임업계들 대표를 만나 보면 대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포켓몬 GO가 2년, 리니지가 4년, 오버워치가 5년, 유명 게임 콘텐츠 제작에 소요된 시간입니다. 영화는 더 오래 걸리는 거고요.

실제 보통 콘텐츠 개발하고 또 게임과 같은 이런 거 보면 창작 작품은 몰입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맞습니다.

○**정연욱 위원** 집중된 뭔가의 감성이 또 필요한 것이고.

주로 이분들의 작업이 또 야간에만 이루어집니다. 낮에는 보통 활동보다는 밤에 집중적으로 자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창작노동이 시간보다 결과와 완성도 중심으로 평가받는 특성을 직접 제작은 안 하셨더라도 그 업계를 아시는 입장에서 상당히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결국 창작노동은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몰입도와 유연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법정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 보는 주 4.5일제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찌 됐든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정책이, 창작자·연기자·예술인 등 제가 만나 본 게임업계 대표들은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근무하는 인력들이 이 노동시간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일을 가장 집중해서 한두 달 사이에 성과물을 내야 될 시간에 이걸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유연근무제 예외규정 이런 게 현실에 맞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게 어느 정도 직종별·업종별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겠지만, 입법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에 장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아직은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업계에 얼마 전까지 있었던 입장으로서는 저는 업종별로, 세계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곳은 그 업종에 맞는 일하는 체계, 일하는 문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는 서로 깊게 논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왜 그렇게 노동시간을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 사회 트렌드나 혹은 오남용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하는 대의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이 깨여서 산업적인 뭔가 확산을 못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가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추는 일하는 문화, 방식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깊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연욱 위원 이런 게임콘텐츠나 창작 기능이 필요한 주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장관님, 글로벌 회계법인 EY컴퍼니가 1903년에 창립된 회사더라고요. 그 회사는 지금 포춘 조사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24년 연속 선정 그리고 연봉이 아까 초봉이 7만 달러였는데 웨이브미디어의 경우에는 초봉이 5만 달러였더라고요. 그런데 아빠찬스를 이용해서 불과 20여 명, 우리 한국 법인만 해도 직원 수가 3500명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수만 명이 근무하는 안정적인 회사 그리고 포춘에서도 선정될 정도로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이 회사를 버리고, 선택하지 않고 웨이브미디어를 선택했어요. 이게 아빠찬스를 이용해서 이것 선택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아빠찬스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보자님의 따님이 도전정신으로 이제 창업한 회사에, 스타트업 회사에 뛰어든 거다 이렇게, 오히려 격려받고 칭찬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연봉이 직업을 선택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EY는 매일에서도 보셨듯이 베이스, 기본 연봉이 7만이고요 평균 그렇게 들어가면 한 9만 달러 정도를 기대하고 초봉을 받습니다, 인센티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조계원 위원 후보자님의 따님이 장관 하는 것 아니지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그래서 아빠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돈 때문에 여

기로 가라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요 아빠의 연이 있는 회사니 이쪽은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딸이 첫 직장을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딸의 의견을 존중해 줬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제 그 논쟁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알박기 관련해서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시면 문체부 산하 알박기 현황입니다. 내란 이후에도 저렇게 국립문화공간재단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가유산진흥원 등등에 대해서 알박기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공공기관·산하기관을 통해서 사실 정부의 목적하는 사업들이 집행력을 갖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실행하려고 하는 문화정책과 이런 것들이 집행력을 가지려면 산하기관의 인사를 이재명 정부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내란정권의 마지막 보은인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분들 임기가 이삼 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재명 정권은 언제 문화·체육 관련 정책을 집행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인사와 관련된 일이라 제가 바깥에서 보고 판단하는 걸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임명 과정에서 무리함은 없었는지, 절차나 내용은 괜찮았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국정……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예, 1분.

○조계원 위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인사를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이 정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건 필요하겠지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대통령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 방향에 걸맞은 인사를 임용해서 실행하고 그걸로 검증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조직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낯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관에 임명이 되면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 화면 좀 부탁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추가질의요?

○조계원 위원 재추가시간 있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예, 재추가질의 드릴게요.

○조계원 위원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후보자님,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4월부터 시행한 1학생 1스포츠 프로

그램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죄송합니다. 제가……

○진종오 위원 못 들어 보셨지요?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초등학생들에게 종목별 전문지도자를 파견해서 체육을 즐기고 배우고 그리고 체력도 기르고 비만율도 낮추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육부입니다, 문체부가 아니고. 왜 이런 좋은 정책을 문체부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하는지 그 또한 좀 이해가 안 되고 있고요. 이건 후보자께서 꼭 펼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드리고요.

장관이 된다면 이게 적어도 문체부 차원에서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스포츠 프로젝트가 잘 정착이 된다면, 정규 수업시간에 체육활동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부 신규 학생선수 선발도 가능해지고 엘리트체육 활성화도 되면서 교사들의 역량 강화 및 체육수업 질 향상 그리고 스포츠클럽 활성화도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체육에서만 벌써 세 마리 토키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종목별 협회나 연맹 입장에서도 수업시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재능을 끌어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통해서 진로를 이끌어 낼 수 있고요. 은퇴 선수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또한 은퇴 선수들의 진로까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자께서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서 확대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제 머리에서 고민하던 부분들이 하나가 풀렸는데요. 저는 엘리트스포츠에 대해서, 엘리트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국민들의 자부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수를 선발하는 것도 일찍, 그렇게 소양이 있고 소질이 있는 선수들을 빨리 발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수를 마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또 빨리 그런 후배들……

○진종오 위원 진로를 열어 주는 거지요. 기회의 창을 열어 주는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그걸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내년 2월에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문체부 국제스케이트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모 중단돼 있는 상황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 공모가 9개월째 중단되어 있는데 그사이 지자체들이 쓴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한 11억 정도 되고 있어요. 이게 문체부가 답을 준다고 해 놓고서는, 지자체들이 지금 허공에 홍보비만 쓰고 있는 상황인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선수들이 이런 상황 관련해서 노후된 경기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문체부 측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안 정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우리나라 정도의 수준에서 경기장이 낙후돼서 훈

련하기 어렵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 부분은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진종오 위원 빨리 어떻게 해결할 예상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노후된 게 있으면, 훈련을 잘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빨리 이전을 할 거면 이전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가시성 있게 일을 추진하든지 해야지 한다고 해 놓고 뭔가가 보류되고 중단돼 있고 이런 것은 모든 곳에서 지금 다 혼란스러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종오 위원 장관에 임명되시면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진종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들이 너무 꿈에 부푼 홍보 예산만 쓰다 보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체부에서 빠르게 조속히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빠르게 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관련해서도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솔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솔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정연옥 위원님께서 게임 업계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답변 중에 노동시간 관련해서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요.

게임 업계에 종사하시는 제작 노동자들이 밤에 일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야간노동은 지금 1급 발암물질이고요. ILO나 여러 권고에서도 노동시간 줄이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노동시간 관련된 것과 산업 경쟁력이 그냥 단순히 대치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짚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동자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특히 게임 직장 노동자들이 더 이상 열악한 노동에 처하지 않게 봐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요새 폭염이 심하지 않습니까.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걱정이 크고 작업중지권 논의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문체부 산하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들이 있는데요. 캐디들이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작업중지권이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PPT 보여 드리는 것은 화성상록GC에서 일하는 캐디 노동자가 보낸 문자입니다. 낙뢰가 치고 폭우가 내리는데도 휴장명령이 없어서 위험한 출퇴근을 하고 폭염에 일하다 토를 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는 내용입니다.

문체부에서 관련 산업의 옥외 사업장에 대한 지침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저 부분은 안타까운 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장관

이 되면 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문체부에서 관련 노동자들을 좀 쟁여 주셔야 되는데 이게 고용노동부에서도 안 쟁여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체부 소속 공무직의 임금과 복리후생이 기관별로 내용과 수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에 대해 직무와 상관없는 복리후생을 공무원과 차별하지 말라는 권고를 했었고 관련해서 서면질의로 답변도 주셨는데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준 마련, 재원 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저도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제가 장관이 되면 빠르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1분만 더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원장 김교홍** 예.

○**손솔 위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관련해서 문체부가 주관하는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산 증액을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그런데 문체부가 기재부에서 삭감을 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 이전으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예산 증액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제도 자체가 취지가 매우 좋은 젓이기 때문에 왜 저도 삭감이 됐는지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다시 회복시키고 그 사업이 온전히 추진될 수 있도록 쟁기는 것은 저희 문체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요,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임원이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했던 사건인데요. 가해자는 다행히 해고되었는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프로골프협회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으로 법인 사무에 대한 검사·감독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위원님 말씀 아까 주신 것에 답변을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예,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게임 업계에 있는 노동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정 위원님과 말씀 나눴던 부분의 취지는 이 부분이 분명히 창의성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창의성 있는 활동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업무의 형태에 대해서는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뜻이었지 노동 강도를 높여야만 이쪽에서는 뭔가 생산성이 나온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아마 듣고 계시는 관련 노동자분들도 걱정을 하실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짚었고 꼭 잘 신경 써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후보님, 계속해서 좀 말이 나왔던 건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후보님의 따님은 언제부터 무직이었나요? 계속해서 무직이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2019년 12월에 웨이브를 그만둔 다음에 2000년 1월, 그다음 달에 환경 관련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에 입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그 회사에 다녔고요. 그 회사는 작년에도 LA시청에서 뽑는 인큐베이팅 스타트업 리스트에도 오를 정도로 유망한 회사였는데 사업이 좀 안 돼서 올해 3월 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를 그만둔 지는 몇 달 안 되고요. 지금은 구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오경 위원 또 중여도 받은, 재산도 받은 거는 가지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예전에 제가 중여한 자금을 가지고 있고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금은 자기가 운용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은 돈을 재외한국인으로 다 등록을 해서 일부 돈을 미국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생활하는 데도 보태고 그렇게 생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때 미국을 갔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또 직장을 다니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대학 졸업하고는 올 3월까지 계속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위원님들이 좀 질의를 하셨어요.

2036년 하계 전주 올림픽 유치 가능성, 후보님이 보실 때 유치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저희가 그렇게 결심한 만큼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유치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정부 차원에서 제일 선두에 서고 그다음에 문체부 그리고 대한체육회 그리고 국민 그리고 전주, 모두가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요?

특히 객관적으로 보면 오일 달러 등을 내세운 경쟁국들에 비해서 다소 열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988년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른 걸 보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88 서울 올림픽을 본다면 미국과 소련 동서 냉전 종식의 밑거름이 되었던 올림픽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본다면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임오경 위원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본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88 서울 올림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전 세계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알리고 그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볼 때는 한강의 기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2014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GDP 세계 10위 성장의 밑거름이 저는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2018년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는 기대 이상의 흥행으로 흑자 올림픽으로 치러졌으며 IOC에서 가장 성공한 동계올림픽이었다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8년 또 2018년이 우리나라가 하드 파워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라면 저는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소프트 파워를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또 우리나라의 장점이 있지요. K-컬쳐, 남북 평화, 탄소중립 코드를 적극 활용한다면 저는 유치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주가 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체부가 적극 앞장서서 범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어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쟁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또 문체부의, 우리 문체위의 장점이 있다라면 남북 스포츠 교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화예술을 통해서 두들겨도 깨지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이 문을 깰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가 경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남북 관계 복원은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적극 문화예술, 스포츠를 활용해서 남북의 벽을 허물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용산 대통령실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아니요, 가 본 적 없습니다.

○박정하 위원 한 번도 안 가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박정하 위원 대통령님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빤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박정하 위원 한 번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박정하 위원 그러면 총리나 대통령실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뭔 적 없습니다.

○박정하 위원 전혀?

앞서 제가 우리 후보자님 인사 지명과 관련해서 발표 전, 10일 전, 그 후, 이렇게 말씀 여줬는데 전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제안을 받으시고 관련해서 자료제출이나 뭐…… 지금 하루 종일 후보자님 자료 때문에 우리가 시끄러웠잖아요. 무슨 기본적인 검증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요청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기본적인 자료는 아무래도 사전검증이 필요한 단계가 있으니까 요청을 받았고 제출을 했는데요.

○박정하 위원 어느 선에서? 지금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포함이 돼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인사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말씀하시려다가 또 안 하시네요.

통상 하는 무슨 자기검증서 이런 것도 있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은 제가 설명드리기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좀 물어볼게요.

그래도 대한민국 K-컬처 300조를 만들어야 되는 책무를 지신 문화장관 지명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한 번 만난 적이 없고 실장, 총리와 만난 적도 없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무슨 면접 기능 같은 것도 없었어요? 상식적으로 그런 것은 한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과정은?

그러니까 자료도 어느 선에서 냈는지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제가 들어 봤던 뉴앙스로는 저희가 요청했던 자료보다는 훨씬 부실하게 요청을 한 것 같고 인사권자를 포함해서 주변에 추천할 만한 우리 후보자의 문화체육장관으로서 능력을 면접을 통해서 검증하거나 확인해 볼 만한 기회도 없었고, 그러면 인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후보자, 기자 생활 해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박정하 위원 그때 인사청문회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제가 기자 할 때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없었어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처럼 진행되고 있었던 후보자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보시기에는 충분하고 적절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그 부분을 제가 평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하 위원 그런데 분명히 대통령이나 총리나 대통령실장이나 본 적 없다, 대통령실 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박정하 위원 그대로? 들어가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부실검증이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네요.

제가 청와대 경험을 좀 해 봤는데요. 심지어는 한 200여 개 항목의 자기검증서도 쓰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희가 후보자께 하루 종일 여줬던 별의별 게 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그만 인사청문 기능이라서 안에 수석과 실장들이 면접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 보는 기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지금 문화체육장관이 지명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사 과정은 제가 대답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하 위원 시간이 넘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속해서 다음은 재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앞서 후보자가 트리플 창업을 해 가지고 6년 동안 계속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600억 이상을 펀딩을 받고 나서도 오히려 나중에는 -100억 이상 자본금에 손실이 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700억 이상 돈을 날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는 올라갔다, 주식가치는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자본금을 700억이나 6년 동안 날린 회사의 주식가치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그리고 지금 인터파크트리를하고 야놀자하고 해서 놀유니버스 다시 또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2022년 당시에는, 인터파크하고 트리플 합병 당시에는 인터파크트리를의 거래 가격이 7000억이었는데 이번에 야놀자하고 합병하면서는 인터파크 가치가 4200억으로 3000억이나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소액주주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해를 끼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터파크트리를의 소액주주들이 회사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큰 손실을 입고 농락당했다 해서 지금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관련자들을 이 청문회에 불러 가지고 사실관계를 따져 보자고 했었는데 참고인·증인 채택을 안 해 줘서 못 따진 것 아니겠습니까.

(김교홍 위원장, 임오경 간사와 사회교대)

문체부장관은 지금 수천억의 펀드를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트리플 해 가지고 몇백억이나 투자받은 것을 날린 분이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이런 펀딩을 관리할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또 조은희 위원 지적했듯이 보면 가는 데마다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조은희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인터파크트리를 대표 당시에 무려 78만 명 개인정보 유출을 해 가지고 과징금 10억 받았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올해도 7월 달에 놀유니버스에서 또다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그 이전에 네이버 재직 시에는 허위·과장 광고로 또 과태료 처분을 받고 앞서 또 조은희 위원 지적했듯이 인터파크트리를 당시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고처분 받고. 그리고 후보자가 가는 기업마다 이상하게 소비자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22년, 23년 보면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후보자가 플랫폼 관광업 대표 출신 아니겠습니까. 지금 플랫폼 업체하고 중소 여행업하고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 경영자 출신 장관 지명에 대해서 숙박업계에서 상당히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플랫폼의 월평균 광고비가 한 470만 원 그리고 수수료가, 광고비하고 또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거의 30% 가 넘는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1분만.

○김승수 위원 그래서 얼마 전 7월 달에 설문조사 했을 때 숙박 플랫폼이 굉장히 여행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업체와 중소 여행업의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제가 서면질문을 물으니까 상생협의체를 운영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답변에서……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공정위 이야기는. 그때 매출 하위 40% 숙박업체에 대해서 수수료 인하 추진했지만 지금 유야무야되고 있어요. 후보자께서 대표로 있는 동안도 전혀 상생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가 공적 책임감이 제대로 있는가 싶은 것이 후보자 추천서에도 있습니다만 여가부의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입니다. 거기에는 참석률이 20%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투어 사외이사는 여기는 수당을 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석률이 또 90% 가까이 돼요.

그리고 앞서 용인 건물 아들 중여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여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들 건물이지 않습니까, 소유가? 아드님 건물인데, 인터넷에 쳐 보면 현재도 들국화컴퍼니 본사가 여기로 돼 있지요? 현재도 지금 들국화컴퍼니 자체가 음악 또 오디오물 출판업 이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기업의 사업체 맞습니까, 이 용인 건물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법정 주소지가 저기로 돼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본인 소유도 아닌 근린생활시설에 기업을 했다는 것도 이상한데 아드님한테 증여했으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드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계약 관계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임대 관계나 이런 것들 조치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법정 주소지로만 사용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것 사실상 유령회사예요, 지금.

그리고 나는 이 건물에 도대체 누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전기료 같은 경우에도 들쭉날쭉한데 혼자 사는 건물은 절대 아닌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보면 전혀 살지도 않은 것처럼 전기료·수도료 안 나올 때도 있고 굉장히 이게 좀 애매모호한 건물입니다.

이렇게 후보자가 공사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앞서 전문경영인으로서의 경영 능력도 지금 이렇게 의문을 좀 보이고 있고 공사 구분도 불분명하고 또 플랫폼 업체와의 이해충돌 가능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문체부장관으로서는 부적합하다, 부적합한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명은 본인이 자진사퇴하거나 철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후보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후보자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자료 요구에 답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부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으셨고 또 많은 논쟁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은 제가 생각할 때 합리적 의혹의 제기다 이런 측면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제기됐던 많은 의혹들 중에 장녀와 장남에게 각각 8억 원의 현금을 증여한 문제는 증여세의 정상 납부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서 탈루나 불법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존경하는 손솔 위원님의 지적대로 청년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문제로서 국민과 청년의 눈높이에 보면 돌아볼 문제라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주변 필지 집중 매입한 문제, 다운감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필지가 2018년 클러스터 조성 이전인 2010년에 매입이 된 점과 다운감정은 의혹에 불과하다. 또 감정평가법인이 다운감정으로 징계를 2023년에 받았지만 우리 후보자 필지 건의 감정평가로 인한 징계가 아니다라는 점도 국민께서 아시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가장 뜨거웠던 따님의 네이버 미국 자회사 취직과 관련한 아빠 찬스와 관련해서 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런 입장에서 졸업 이전에 글로벌 회계법인에 이미 취업이 된 그런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위원님들의 어떤 의혹 제기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런 부분도 아빠 찬스로 굳이 그 회사에 갈 이유가 없었다는 점도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등기이사 한성숙·박상진과 전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후보자의 그런 발언에도 저는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들에게 증여했던 건물에 들국화컴퍼니 법인이 등록해서 무상임대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청문회를 준비하며 주소지만 활용해도 임대차계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서 법령 인지가 미비했다라고 하는 점이었고 또 후보자의 개선의지 이런 것들도 아마 국민께서 아시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문체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제기됐던 이런 많은 문제들을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직자로서의 어떤 태도와 자세 이런 것에 정말 지금 까지 많이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책질의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잘 이해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을 돌아보고 비전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런 자리가 되었길 바라는데 하여튼 제 느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자님, 한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저도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또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제가 살아온 삶 그다음에 제 주변을 어떻게 챙겨 왔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직을 맡기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번에 느끼고 있고요. 저도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고 송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공직을 맡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신뢰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제 주변과 저 스스로를 가다듬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저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무를 의미 있게 만들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과와 성취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제가 공직으로서 해야 되는 책무이자 보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후보자님,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후보자께서 지금 저희 많은 위원들이 제시했던, 정책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뭐 하나 명확하게 안다거나 답을 마치신 게 없어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하루 종일 제기했던 따님에 대한 문제도 결국에는 이 과정이 보통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조차도 하지 않으셨어요. 후보자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제기한 보통 그 24명의 인사 중에 거의 모두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이 취업을 했는데 아빠가 사장으로 있었던 회사에서 자회사를 만든, 무려 770억..... 자꾸 그걸 축소하세요, 무슨 작은 중소 스타트업이니 이런 식으로. 네이버는 주주들이 명확히 있는 회사입니다. 100% 770억을 지금 출자해서 만든 그 회사에 후보님의 따님이 관련 직종의 경력이 하나도 없이 그 직전에 네이버에서 20일 알바했던 경력 외에는 없이 그냥 입사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절차로 임명됐는지는 저희한테 소명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두로 합격을 확인했다, 이것 하나밖에 지금 저희한테 답변 주신 게 없어요.

제다가 제가 보기에는 따님이 7만 불짜리 회사를 걷어차고 5만 불짜리 연봉 그 회사를 갔다? 이것 지금 굉장히 피해자처럼 얘기하시지요? 그런데 따님은 이 회사에 들어가서 네이버의 보증, 여기에는 무려 최소 4만 5000불을 기업에서 보증금 형식으로 내 줘야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야지만 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얻어서 E37이라는 영주권을 획득했다고 이것 지금 자료 다 보시게 나와 있지요. 이것은요 회사가 어쨌든 이 사원을 계속해서 앞으로 쓰고 싶다라는 의지를 미국 이민 당국에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에는요 통상적으로 6개월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보통 대단한 회사들에는요. 왜냐하면 미국 이민국에서 이 영주권을 사기 취득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에, 회사를 통해 취득한 다음에는 6개월에서 1년 내지 일을 하도록 권고를 해요.

더군다나 후보자님의 따님이 영주권을 취득한 시기는 트럼프 1기, 어떤 때였습니까? 우리 유학생들 전부 쫓겨서 귀국해서 공부 중간에 중단하고 거기 있던 학생들 영주권 취득 못 해 가지고 오고 그 기업 취업 못하게 해 가지고 회사 다니려고 하다가 오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경력 없이 덜컥 아빠가 다녔던 회사 자회사에 들어갔던 후보자의 따님은 회사가 보증하는, 회사가 대신 그 보증금을 지불해 줘서 영주권까지 획득하고 그리고 영주권 획득하자마자 2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그런데 변명 뭐라고 하셨어요? 회사가 망해서.

여기 770억 들은 회사지요? 그러면 적어도 네이버에 재직하셨던 후보자님이라면 그동안 우리 회사를 먹여 살렸던 주주들이 만든 이 회사가 이게 지금 전액 손상처리돼서 이렇게 된 것 대단히 안타깝다.

그런데 회사가 손상처리한 다음에 투자금을 넣어서 V LIVE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칭을 하고 회사를 이어 갑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당시 웨이브미디어 임직원 전원에게 고용승계 의사를 물어봤고 단 몇 명을 빼고는 전부 고용승계로 그대로 V LIVE에서 일을 했다고 응답을 했어요. 후보자님 자녀만 영주권 획득하자마자 2년 만에 퇴사한 겁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저희가 쭉 그 과정을 봤을 때 대단히 누군가의 컨설팅을 받고 마치 아빠가 있던 자회사에 들어가서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영주권 신청을 2년 만에 하고 회사의 도움을 얻어서 영주권을 얻고 바로 퇴사해서 그다음에 지금까지 하고 싶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지낸다,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반 대한민국 보통 국민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까?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책임감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이 회사가 망가졌던 것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재직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렇지요?

따님한테 아까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면접하고 했는지 그것 확인해 달라 했는데 아직 전화 안 하셨지요? 오늘 계속 지금 질의 마치지 않을 거니까 지금 뒤에 얘기하셔 가지고 통화하시게끔 확인해 주세요.

오늘 이 질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질의를 마치면, 후보자님께서 그리고 장관 임명 되면 최휘영 후보자라는 많은 업적이 따로 있는 사람이 자녀 문제에 한해서는 굉장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아빠 찬스 씨 가지고 한 사람이다라고 그냥 끝맺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후보자의 결백함을 후보자가 오늘 입증하고 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소명하고 있습니다. 감추는 것 하나도 없고요.

EY가 아니라 웨이브미디어를 선택한 게 피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피해자라고 생

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피해자입니까?

○**배현진 위원** 왜…… 후보자, 아버지 입장에서 안타깝게 하지 마시고 영주권을 그 시기에 취득했으면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얻은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딸이 자기가 원하는 회사를, 자기 미래를 자기가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배현진 위원** 후보자님, 영주권을 그 시기에 획득하지 못한 유학생들이 99%였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영주권을 회사가 해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민국에서 심사해서 해 준 거지요.

○**배현진 위원** 이민국에서 심사한 게 아니고 이 영주권은 회사에서 최소 4만 5000불의 보증금을 내 줘야, 고용주가 이 보증을 해 줘야 획득하는 영주권입니다. 알고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것은 제가 부탁하거나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 신청을 했고요 회사가 왜 필요한지를 미국 이민국에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국이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해 준 겁니다.

○**배현진 위원** 증명을 하고 변호사비 포함 4만 5000불을 최소 내야 된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것을 제가 어떻게 여기에서 더 이상 자료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배현진 위원** 후보자님,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확인하세요, 어떻게 영주권을 획득했는지. 항상 확인하시고 대답하시라고요.

후보자님, 그리고 고용승계 됐는데 왜 다른 직원들은 쭉 같이 일했는데 마치 후보자 따님이 회사 문 닫아 가지고 못 다닌 것처럼 계속 얘기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저희 딸은 웨이브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들어갔고요……

○**배현진 위원** 제가 마이크 꺼졌으니까 더 얘기 안 할게요. 그것 확인하시고 다시 답주세요.

.....

○**위원장대리 임오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될 수도 있으니까 후보자님, 조금 빠른 속도로 ‘예스, 노’로 해 볼게요.

지난해 정부광고의 중앙·지역 매체 계재 비율이 85 대 15다 이런 불균형, 특히 지역매체의 심각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보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민형배 위원** 지역언론은 지금 되게 어려운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포털, 그러니까 다음이나 네이버의 입점에서 차별 때문이다. 특히 다음은 지역언론사 49곳을 콘텐츠 제휴사로 입점시키고 있으나 네이버는 9곳뿐이다. 특히 호남지역 신문사가 네이버에 입점한 경우는 없다. 이를 개선하도록 내부에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내버려두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국립현대미술관이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에만 분관이 있고 호남에는 없다. 균형 있는 설치가 필요하므로 다음번에는 호남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지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호남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동의한다, 안 한다 말씀해 주세요.

지난 20년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국비보조금이 30%만 투입되었다. 나머지 9570억 원을 2028년까지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3년 안에 9570억 원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5년 연장해야 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12·29 제주항공기 사고 이후에 광주 관광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전남이요. 국토부와 상의해서 광주공항 국제선 운영과 여행사 지원 등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 교류의 물꼬를 뒀듯이 전주-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는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장관이 된다면 올림픽 전-평 공동 개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우리나라도 이제 영화 홀드백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

홀드백 제도가 뭔지는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도입할 때가 됐다, 법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이 효과적인지 여부는……

○**민형배 위원** 아니, 법적으로 가능하지요, 우리가 입법하면 되는 거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그 자체가 저는 제작사에게 유리할 때도 있고 유리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민형배 위원** 물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그 부분은 좀 의견을 듣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형배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민형배 위원** 후보자 따님이 어떻게 웨이브미디어에 입사하게 됐는지 그 과정과 영주권 획득 과정 이 둘을 아주 자세하게 파악해서 각 위원님들께 제시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내용을 해 주시라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K-컬처 300조 시대를 위해서 문화산업이 중요하지만 그 기반에는 기초 순수예술이 튼

튼해야 한다. 따라서 K-컬처 300조 시대를 하려면 순수예술, 이른바 기초예술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 특히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일단은 그 의지에 대해서는 오늘 계속 저도 말씀드렸고요.

○민형배 위원 예, 의지는 계속 말씀하셨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일단은 재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저는 CEO의 역할 중의 하나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투자해야 회사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그래야 회사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서 어떻게 쓰실 거냐고요, 그 돈을 확보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문화예술인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창작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저는 반드시 문화예술인들에게 물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순수예술 혹은 기초예술에 특별한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다짐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제가 질의를 했고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 또 하셨는데요. 지금 아버지 회사가 아들 건물을—증여하셨으니까—무상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로만 활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명백히 법인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계시니까 세무 당국과 상의하셔서요 추가로 세금 낼 것 내시고 정정당당하게 하십시오.

(임오경 간사, 김교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께서, 본 위원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EY는 취업비자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웨이브는 후보자님 말씀을 빌리면 4만 5000불을 그 회사가 보증을 서서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주권 받고 나서는 그 회사를 팽개쳐요. 그 회사가 망했다고 하지만 망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 그대로 옮겨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로 다 대부분 가는데 따님은 영주권 취득하고 손 턴 거예요. 그래서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영주권을 획득하는 데 썼다 이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혹입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후보자님께서는 요리조리, 요리조리 숨바꼭질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언성을 높이고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은 해명해 주셔야 돼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쭤볼 것은 후보자님의 이해충돌 관해서입니다. 후보자님이 인터파크나 놀유니버스 이렇게 계셨을 때 문체부나 산하기관의 지원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예를 들면 후보자님이 대표로 계실 동안에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2년 반 동안 400억 원 공공예산이 들어간 공동 사업 진행했고요. 인터파크트리플 때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65억 포함해서 91억 원의 사업을 수주했고, 놀유니버스 대표 시기에는 불과 7개월 만에 총 320억 원 사업을 수주합니다.

그런데 문체부 관련 공공예산을 수주해서 사업을 해 오던 대표가 지금은 문체부의 수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장관이 돼서……

좀 더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1분 더 드리세요.

○조은희 위원 장관이 되시면 앞으로 13년간 쌓은 네이버 인맥 그리고 그동안 본인이 해 오던 사업과 유사한 데에 본인이 받은 것과 같은 지원을 할까 봐, 그게 이해충돌이 된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충돌 심사 기준이나 외부 감시기구, 협의 절차 이런 것 해서 후보님한테 쏟아지는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저는 회사로부터 퇴사를 했고요. 회사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지금 그쪽의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각 처리하기로……

○조은희 위원 그건 백지신탁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후보님 말씀은 그냥 도장, 완전히 꽉 도장 찍어서 옳다 이렇게하시는 것처럼 독선적으로 좀 들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건 줄…… 이해충돌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 다 사퇴했고요’ 이렇게 하시면 후보님한테 신뢰가 가겠습니까? 제대로 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성찰을 한 것 같은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신뢰가 가지요. 후보님이 장관이 되셔서 그냥 아는 데서……

○위원장 김교홍 정리해 주시지요.

○조은희 위원 전부 그동안 받은 것의 10배 정도 지원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순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하시려고요?

○조은희 위원 예, 답변이 부족하잖아요.

○위원장 김교홍 지금 여러분들 질의하는 건 희망자에 한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인사청문회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양문석 위원 장관님!

○조은희 위원 오늘 날짜인데, 오늘 날짜 아직 안 지났는데……

○배현진 위원 차수 변경도 아니고, 인사청문회인데 지금 질의를 이렇게 해야지요.

○양문석 위원 후보자님!

잠깐 제가 질의 좀 합시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교홍 예, 하세요.

○양문석 위원 역사와 문화를 관장하시는 장관후보자님,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입니까, 한국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우리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렇게 빨리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대답도 상당히 빠르게 듣기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요.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시작하고 나서 지난 24년 11월부터 25년 5월까지 중국으로 출발한 한국인이 165만 명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한 60만 명이 더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 도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3/4분기에 시행 예고했고, 그런데 8월 달에 접어드는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진전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관광수지 적자가 무려 100억 달러예요, 14조 원에 가까운. 대한민국 관광업의 현실을 바라보면 빠르게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 도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K-ETA, 전자여행허가 제도지요. 이 부분도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만 해도 지금 20만 명가량의 입국 관광객들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혐한 분위기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 어쨌든 후보자께서 썼던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에서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소신 있게 펼쳐 왔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들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관광수지 적자에 있어서 100억 달러, 그러니까 무려 14조 원에 가까운 이러한 적자를 빨리 메꿔 내는 것 자체가 K-컬처 300조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기본이 된 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빠르게 행동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몽골 기병이 뭐냐 하면 신속성과 효능감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황에서 장관후보자께서 그 신속함과 효능감을 빠르게 보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의 모든 논란을 다 딛고 훌륭한 행정으로 다시 한 번 더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명심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잘해 주이소.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한 번 더 재재추가질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했던 얘기를 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정말 정책적인 질의를 하시기를 내가 부탁드리면서.....

○양문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양문석 위원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었고요. 그리고 오늘 똑같은 주제를 갖다가 거의 3분의 2를 했는데 뭘 또 재추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위원장 김교홍 양당 간사가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이번에도 희망자를 받은 건데 양당 간사께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재재추가질의를 하는데 이제는 했던 중복된 얘기는 피하시고 정책질의를 하는 조건으로 한번 희망자에 한해서 재재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후보자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저도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한 5년 가까이 근무를 해서 후보자께서 아까 주신 말씀, 특히 박정하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존경하지만 제가 한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추천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비서실장과 총리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도 국무위원에 추천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그런 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검증 과정에서 받는 자기진술서 그리고 신원 관련된 각종 검증동의서 관련돼서는 개인의 정보이기도 하지만 인사검증 프로세스는 외부에 유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서명을 받고 인사검증을 다 받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래서 오늘 아무리 인사청문회 과정이지만 장관후보자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면접을 했고 내가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검증 프로세스는 다 똑같습니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 중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라 인정직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프로세스를 똑같이 받게 됩니다. 하여튼 권력자와 일면식이 없지만 국민 추천에 의해서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 그래서 저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오히려 더욱더 떳떳하고 국민들의 동의 속에서 이 자리까지 오셨다. 그래서 자긍심을 좀 가져 주시고 더 열심히 이 청문회 이후에 장관에 임명되신다면 국민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1분 남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기본권이라는 표현 요새 많이 합니다. 앞으로 개헌이 된다고 하면 문화권을 헌법 내에 국민들의 기본권 조항으로 넣어야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우리나라의 수준에, 국격에 맞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기현 위원 그렇습니다. 헌법이 개정된 지가 38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가지 기본권들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문화권이 당연하게 기본권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득의 격차가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만들었듯이 대한민국의 양극화와 소득의 격차가 문화의 불평등을 굉장히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의 향유뿐만 아니라 교육 또 재생산의 문제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문체부가 끊임없이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노력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동의합니다.

○이기현 위원 특히 청소년들, 취약계층들의 불평등 격차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그리고 가난한 집의 아이라는 이유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장관님께서……

1분만 더 주시지요.

장관님께서 취임하시면 정말로 가난한 아이들 그리고 교육으로부터 소외받은 아이들, 문화교육으로부터 소외받은 아이들이 이런 격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동의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말씀 주셨던 문화 기초분야에 대한 투자, 영화뿐만 아니라, 제가 영화를 오늘 중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공계에서 보면 수학, 물리학이 그 기본이듯이 문화계에 있어서 보면 영화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음악이 기본입니다. 이런 기초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K-컬처는 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의 깊은 자각과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동의합니다.

○이기현 위원 장관님,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따님께서 근무하신 기간은 배현진 위원님이 한 2년여 했는데 3년 6개월이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2년 정도 근무하다가 승진했고 승진하면서 그때 취업비자 발급이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이건 사실관계 확인한 거고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님, 2년 아니고 영주권 신청이 2년 걸린다고 얘기한 거예요.

○조계원 위원 영주권 신청도 승진 시점에서 2년 정도 있다가, 바로 신청한 게 아니고요. 근무 중에 2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루어졌다고, 그게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2019년에 받았으면, 2018년에 획득했으면 2년 전에 신청이에요.
질의하세요, 일단.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넘었으니까.

그리고 다음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블랙리스트 사건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루어졌고 그 블랙리스트 사건의 한 부역자였던 우상일 씨가 국립문화공간재단—앞서 설명했지요—거기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블랙리스트 사건이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승환 씨 공연이 저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가 됐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 옆에는 홍준표 시장이 있었던 대구시에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정치적 이유로 일방적인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차 사건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또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가수 하림 씨가 남북 청소년 교류를 주제로 한 행사에 포스터까지 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섭외가 취소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블랙리스트가 횡행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물의를 빚는 일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본 위원이 문화기본법을 개정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을 개정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을 두 차례 개정하면서 국가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및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방해·지시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처벌규정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철저하게 쟁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후속 조치 마련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윤 정부 들어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위원장 김교홍 예, 1분 더 드려요.

○조계원 위원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붕괴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영화진

홍위원회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영화 관련자들이 주로 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자체 발굴, 즉 문체부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을 임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4명을 자체적으로 임명해 버리고 또 영화인의 연대체에서 추천한 사람, 19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는 단 1명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화의 독립성, 자율성이 그것들이 중요한 영진위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부기관인 문체부에서 주도하는, 입맛에 맞는 인물로 구성할 수 있게 해서 제대로 영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 시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장관이 되면 자세한 내용들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계원 위원 그리고 한국영화성평등센터가 있어요. 이것도 여성영화인모임과 영진위가 MOU 방식으로 공동 운영하면서 피해자 상담, 교육, 법률 지원을 수행했던 기관인데 이 사업들을 갑자기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전환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데 명목상이야 조달청 입찰 방식으로, 공모로 절차 진행했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범적으로 수행되던 민간 거버넌스 사업을 오히려 왜곡시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도 점검해서 보완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독립영화제 예산 이 부분이 완전히 삭감되었다가 지난 추경을 통해서 일부 복구를 했습니다. 독립영화제는 후보자님도 영화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갖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앞서 얘기.....

○위원장 김교홍 정리해 주시지요.

○조계원 위원 예. 마지막으로 윤석열차 사건으로 한국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 아시지요? 그리고 거기서 진행했던 모범적인 사업들을 이 역시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으로 이관하고 공모 절차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역시 사업의 연속성과 이것들을 저해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에서도 한국의 만화, 웹툰 사업이 갖는 IP, 즉 저작권의 원천 소스가 되는 아이디어, 스토리의 원천이다, 이를 부러워해요. 한국만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잠재적 무기는 바로 이거다.

이건데 오히려 그동안의 문체부의 정책은 이를 억누르려 하고 정부의 입맛대로 왜곡하고 재단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저는 사실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아까 놀유니버스 취업규칙 변경 동의는 개별 의사표시가 불가능하였다고 노조 측에서 입장문을 밝혔어요. 임오경 위원이 언론사에다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임오경 위원 아니, 기자가 전화 와서 답변한 걸 자꾸 제 이름을 거명합니까?

○진종오 위원 동료 위원이 얘기할 때는 경청하라고 임오경 위원께서 얘기하셨어요. 제 얘기 좀 들으세요.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진종오 위원 아니, 사실 확인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오경 위원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진종오 위원 노조가 입장을 얘기했으니까요.

○임오경 위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진종오 위원 얘기하는데 좀 들으세요.

○임오경 위원 듣겠습니다. 말하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예, 말씀 빨리하세요.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들으시라고요, 얘기하지 마시고.

○임오경 위원 예.

○진종오 위원 그래서 노조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입장문을 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국민들은 언론을 먼저 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후보자가 잘못 증언하신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면)

PPT 떠 있지요.

노조 입장을 보면 기사에 보도된 회사의 주장인 우리사주조합 가입 동의와 취업규칙 변경 동의 서명을 독립적으로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답니다. 실제로는 취업규칙 변경 동의라는 단일 전자서명으로 우리사주조합 결성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함께 처리하는 뮤음 서명 방식이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또한 노동조합 요구에 두 법인의 모든 구성원 각각을 기준으로 과반 이상 동의가 제출됐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주장은 내용 자체는 맞으나 노동조합이 요구한 각각의 법인별 세부 동의율은 확인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시겠어요?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가입 동의서는 묶어져 있는 겁니다. 두 개로 꽤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그래서 둘 다 동의를 해야지만 제출이 가능하고 둘 다 거절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한 개만 거절했을 때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둘 중 하나만 동의를 하면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께서…… 문체부 직원이 한 1만 5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장관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노동 감수성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체육계 현안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했을 때 너무 과약이 안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체육계를 과연 잘 이끌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문체부장관 자리보다는 오늘 질의를 통해서 들어 보니 차라리 관광공사 사장 자리가 더 어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준비된 사람에게 차라리 넘겨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돼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놀유니버스의 취업규칙 관련된 내용은 저도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노무사와 상의를 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좀 더 세밀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종오 위원 아까 얘기랑 달라지셨네요, 아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저는 따로따로 동의를 받고 진행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 이 청문회를 보고 입장문을 바로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알고 계셨고 인지하셨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랑 다르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교홍 후보자께서는 거기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솔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방금 말씀에 대답 안 하셔 가지고……

○위원장 김교홍 그 내용을 사실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마지막으로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인기이고 사실 제 주변에도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케이팝에 대한 팬들을 주변에서 보더라도 이 팬들이 가장 열렬한 제작자이자 가장 적극적인 유통자입니다. 이 팬덤들이 케이팝을 그냥 단순히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 가는 사람들 중의 일부인데요. 케이팝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 많은 콘텐츠들이 그렇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케이팝이 콘서트, 공연 이런 것들이 더 자주 있고 그런 것들이 오프라인으로도 모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는데 아마 인터파크나 놀유니

버스에서는 그 팬덤들을 소비자로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직자로서, 문체부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으로서는 완전한 관점과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케이팝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티켓을 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인 동의를 받는, 거절을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산업의 문제가 있고 최근에 얼굴패스나 이런 것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정말 제대로 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암표 문제 때문에 그러겠지만 최근에 한 청소년께서 공연장에 갔는데 과도하게 신분 확인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신분 확인, 결국엔 개인정보 그리고 참가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전에 있었던 놀유니버스나 이런 입장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앞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문화강국, 관광강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노동자들, 예술인들, 체육인들의 권리가 잘 보장되는 방면으로 가야 진정한 관광강국, 문화강국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드린 책 꼭 읽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번에 장관후보님에 관련돼서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임오경 위원 제가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저에게도 많은 언론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잠들기 전까지 연락이 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당 간사가 답변을 했는데 일일이 이걸 가지고 상대 위원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종오 위원 사실 확인하고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임오경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진종오 위원에게 지금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진종오 위원 저한테 묻고 계시잖아요.

○임오경 위원 저는 답변서가 온 것, 제가 장관에게 질의를 해서 답변서가 온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답변을 해 줬습니다. 진종오 위원 것만 한 게 아니라 언론사가 연락 오는 것에 있어서 여당 간사로서 그것을 제가 어떻게 답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했던 겁니다.

○진종오 위원 아니,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하셨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오경 위원 한 가지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한 가지만 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라고요.

○진종오 위원 같은 얘기예요, 저도.

○임오경 위원 한번 다음에 간사 할 기회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자리가 쉬운 자

리인지.

○진종오 위원 그게 간사랑 무슨 상관이에요? 위원으로서 지금 회의를 하는 거지.

○임오경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후보님 검증에 있어서……

○진종오 위원 간사라고 지금 어필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좀 추가적으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장관후보 검증에 있어서……

○위원장 김교홍 임오경 간사도 장관후보자에게 질의하세요.

○임오경 위원 예, 후보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질의, 진종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후보님, 이번에 후보님에 관련된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지요? 저는 후보님께서 그 답변, 질의서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보님, 민간에서 공직자의 길 힘드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그 자리가 상당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청문회를 하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같은 비슷한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진짜 아빠 찬스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없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영주권 받기 위해서 입사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렇지 않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왜 영주권 받자마자 퇴사합니까? 저도 이 부분을 들을 때 진짜 이것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진짜 아빠 찬스가 아니라면, 진짜 후보님 말씀대로 아빠 찬스가 없었더라면 저는 진짜 훌륭한 따님, 능력이 있는 따님을 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게 답일까라고 생각도 했어요.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질의를 들으면서도 저도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통쾌한 사이다 같은 답변은 저도 들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후보님이, 후보님의 도덕성은 아닙니다. 이건 따님의 얘기가 결국 후보님의 도덕성 검증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질의가 끝나더라도 개개인 위원님들에게 따님에게 물어서 답변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당부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NHN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탑산업훈장도 받으셨어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런 부분을 인정받아서상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게임 전문가이기도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게임사의 매출 대부분이 PC와 모바일에서 발생함에도 게임산업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콘솔게임에 지원을 집중하여서 게임산업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게임산업은 역성장했고 중국산 게임이 세계 게임시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략해 버렸습니다. 이것 어떻게 회복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게임은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게임에서 강국이 되려면 다양한 장르에서 저희가 경쟁력을 갖는 건 중요하겠지만 또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 집중해서 경쟁력을 찾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저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의 자원을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마지막으로 막상 단속해야 할 것은 안 하고 돈을 벌게 해 준 P2E 게임에 관련돼서 과금 유도, 사기 게임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P2E 게임은 그 게임 하는 사람에게 지금 아직까지는 뭔가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대단히 위험한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여전히 만들어질 때까지는 저희가 도입을 하거나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임오경 위원** 위기에 빠진 게임 현장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되신다면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정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하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반박하는 것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후보자께서는 국민추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장관후보자에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 과정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정하 위원** 모르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권자나 아니면 중요한 정책을, 중요한 인물을 추천해야 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략돼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께서 자료도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 정도도 안 되는 자료를 내셨다면 평가하시기에 지금 현재의 신정부가 중요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과 겸증 과정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 부분을 평가하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드리기가.....

○**박정하 위원** 현재 후보자께서 겪었던 경험이잖아요. 당사자이신데 그것 평가하기 어

려우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 부분은 인사 과정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무위원으로서 정말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결정들을 대통령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토론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는 만약에 국무회의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대통령께서 어찌해야 되냐고 후보자께 여쭈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외람되지만 최근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느라 고 관련 보도를 그렇게 깊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입장을 밝힐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면 그때는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가 습득하고 나름의 제 입장을 가진 후에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저 나름의 대답을……

○**박정하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사혁신처장은 대한민국 공직자의 인사를 관掌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자리에 가는 양반이 전임 대통령 협담을 하고, 역대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전에 있었던 대통령도 협담을 하고,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를 하면서 유명해져서 송구하다고 얘기를 하고, 누구는 몇 점 누구는 몇 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이라면 적당한 인사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지금 특정인의 실명을 말씀하신 상태에서 전언을 듣고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박정하 위원** 전언이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5000만이면 한 4000만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일 텐데 그것 답을 못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하느라고 제목만 이렇게 봤지 자세한……

○**박정하 위원** 제목은 혹시 어떤 것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논란이 있다라는……

○**박정하 위원** 논란이 있다? 그냥 제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것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다른 얘기는 없이 논란이 있다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저는 국무위원이 되시면 소신 있게 얘기를 대통령께도 하셔야, 목소리를 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서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면을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 말씀 못 하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 새 정부의 인사 검증·추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분은 적당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에 가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이상으로 재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재재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후보자님, 이번에 재산 신고액을 보면 247억, 청문 대상자 중에서 최고액입니다. 그런데 실제 비상장주식 가치라든지 콜옵션 이런 것까지 가정했을 경우에 300억이 넘는다는 추정이 나오고 아드님 같은 경우에도 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30억이 넘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재산이 고액이고 또 형성 과정이 공직자보다는 투명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지 아직 명쾌하게 좀 해명이 안 되고 있고요. 증여, 탈루라든지 대납 의혹, 앞서 2010년도에 8억 현금 증여한 것 가지고 증여세까지 다 냈다고 말씀하시는 데 아드님 같은 경우에도 2021년 증여세까지 포함하면 거의 증여세만 4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 그동안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최근에 아드님의 여러 가지 카드 사용 이런 것들을 보면 최소 월 한 200만 원 이상씩 쓴단 말이지요. 그리고 예금이 남아 있는 게 지금 4억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증여세를 납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증여세 납부 시기를 보면 똑같아요. 배우자분, 아드님 동일 날짜에 이렇게 증여세를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대납했을 거라는 의혹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계좌에서 세금을 납부한 것을 우리한테 보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해명이 안 된다는 거고요.

왜 공직자가 엄격한 재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또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뒤에 문체부 국장님들 계십니다마는 퇴직하면 후보자님이 지금 근무하셨던 그런 직종 못 갑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년 동안 못 가는 것 아시지요? 또 우리 국회의원들은 경우에도, 장관님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됐다 하면 우리 문체위 못 옵니다, 그런 주식을 다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자리도 아니고 장관 자리에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해충돌 우려가 있고 또 바로 직전까지 업체에서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오늘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자료제출 해 가지고 이것을 명쾌하게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짜 이것 때문에 정책질의를 못 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대한축구협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된 것 아시지요? 감독 선임 문제라든지 정몽규 회장의 4연임 문제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승부 조작 관련된 여러 가지 축구협회.....

○위원장 김교홍 마지막 질의인데 이제 끝내시지요.

○김승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책질의 1분.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김승수 위원 여러 가지 비리 축구인 사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축구인들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분노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체부에서 감사를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돼서 거기에 대해서 축구협회로 하여금 징계를 하라고 처분을 내렸는데 거기에 불복하는 소송을 지금 축구협회에서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입장은 물으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답변했어요. 그래서 장관님의 그 견해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인데 만약에, 여러 가지 비리들이 지금 적발됐고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만에 하나 축구협회의 손을 들어 줬을 때 지금 지적된 그런 비리가 있음에도 축구협회 계속 그대로 두실 겁니까, 아니면 재판에서 그런 부득이한 재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차선책으로 축구협회의 비리에 대해서는 과감히 혁신할 의지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저도 작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똑 부러지는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또 왜 저래야 되느냐에 대한 불만도 갖고는 했습니다.

이제 제가 축구와 관련된 주무 부처의 장관이 된다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저도 좀 파악을 하고 확실하게 국민의 신뢰를 얻고 우리나라가 축구 강국이 될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문체부에서 축구협회와 관련해서 생겼던 이 소송 과정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희는 더 요구하고 더 푸시하고 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더 밝혀내고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장관후보자님에 대한 가장 큰 우려 중의 하나가 체육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지적이 나왔고.

작년에 대한체육회 또 축구협회의 여러 가지 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체육계에만 이렇게 맡겨 둘 것이 아니고 문체부에서도 주무 부처로서 그런 혁신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오늘 명쾌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언론과 야당 위원님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답변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으로 아까 제가 종합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아빠 찬스로 회사에 입사한 후에 2019년 10월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2개월 후인 2019년 12월에 퇴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주권 먹튀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에 대한 해명 이것만 하면 어느 정도 의혹에 대해서 종합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파님의 영주권 종류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취업이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취업이민이지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취업이민에는 세 가지 형태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학사 또는 이에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두 번째 2년간의 훈련이나 경력이 필요한 직종의 숙련된 근로자, 세 번째 2년 미만의 교육훈련 또는 경력이 요구되는 직책의 비숙련 근로자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파님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첫 번째, 미국 학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해당하지요.

그렇다면 후보자의 파님이 취득한 취업이민 이 근로자 유형은 별도의 재직 경력이 필요하지 않고 학사 자격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신입사원인지 경력이 오래된 사원인지는 해당 영주권 취득의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먼저 합격한 회계법인에서 취업 및 미국 거주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보장하겠다고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처음 오페 레터가 왔을 때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까.

○박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의혹이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인이 그렇게 원해서 들어갔고 회사에서도 여러모로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 같은데 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고 퇴사했습니까? 퇴사 시기도 2019년 12월로 영주권이 발급된 2019년 10월 직후 바로 두 달 만인데, 누구나 다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미국 이민국에서 영주권 심사가 길어졌으면 아마

퇴사를 한 다음에 영주권이 나오게 됐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도 이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타이밍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었고……

○**박수현 위원** 후보자님, 그건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웨이브미디어가 진행 중이던 사업이 어려워졌고 2019년 12월에 사업을 정리했어요. 10월에 영주권을 받자마자 12월에 사업이 정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님도 회사를 퇴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영주권을 따고 바로 회사를 퇴사했다라고 하는, 영주권 먹튀라고 하는 이 문제는 전혀 사실과 다를 개연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님의 정책 역량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물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이라고 하는 것, 나머지 다른 여덟 분의 저자와 공동집필을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맞습니다.

○**박수현 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공유숙박의 문제, 팜케이션의 문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후보자의 생각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공유숙박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 서면질의에 대해서 본 의원실로 자세하게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오늘 저 또한 그 많은 정책질의를 하나도 소화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드리려 했는데 이것 하나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취업비자 획득의 기준입니다. 영주권의 종류에는 가족 기반, 취업 기반, 난민 및 망명, 그 밑에 5번까지 있지요. 이 중에서 후보자의 따님이 획득하신 E37이라는 영주권은 EB-3이라는 저 취업 기반에 의한 영주권으로서 이 영주권을 획득하려고 하면 그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어 하는 자가 속한 회사의 그 고용주가 이자를 보증하고 회사의 자본을 들여서, 최소 4만 5000불의 자본을 들여서 돈을 내 줘야지만 이민국에서 심사에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취업비자를 획득하는 것과 다른 얘기고요. 이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은 체류기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권을 획득하고 난 후에 시민권을 획득할 때는 또 체류기간이 문제가 되지요. 맞지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저 더 얘기 안 할게요, 후보자님. 먹튀 이런 것 후보자님 따님에 대한 굉장히 명예 얘기이기 때문에 알아서 확인해서 제대로 절차 저희한테 소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은 시간.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이것 꼭 아까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오늘 하루가 길었습니다.

후보자가 91년부터 기자 생활 15년간 하시고요 2000년에 야후코리아라는 회사에 입사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여러 동료들의 말로는 ‘그냥 회사에 남아라. 너 일 잘하는데 임원까지 가자’라고 했던 선배·동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운의 꿈을 안고 IT 기업에 이때 입사를 하셔서 했던 일이 국내 최초의 포털뉴스사업부에 관련한 일이었고 여기서 하다가 야후코리아가 사실은 그 일에 막 매진하지 않는 그사이에 네이버라는 회사로 2002년에 회사를 옮겨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스탠드를 다루는 네이버의 기초, 뉴스 포털의 설계를 갖추게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파악한 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후보자가 뉴미디어 시장에서 뉴스 서비스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응답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후보자의 공을 또 치하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손쉽게 뉴스를 볼 수 있는 포털 시스템을 갖췄으니까요.

그런데 항상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뉴스캐스트로 시작한 뉴스스탠드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당의 특정 인물이 감옥에 갔다 오셨던 드루킹 사건 그다음에 실시간 검색어 파문 등등 비롯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이게 시스템은 만들었지만 자정기능이 없이 돌아갔던 거거든요. 시장과 어떤 세력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겼던 거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하나 보여 주세요.

보다 못한 시민들이 2011년에 뉴스를 시장에서 다루다 보니까 자기 검열의 기능 없이 너무 선정적으로 나온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김근태 전 의원 잘 아시지요? 고문당했던 그 참혹한 얘기를 짐승의 시간…… 지웠는데요. 마치 무슨 선정적인 누드, 알몸으로 기면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아서 했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됐냐, 뉴스 포털에 선정적으로 제목을 달아야지만 클릭 수가 높아지고 그래야지만 팔리기 때문에라는 시장으로 언론시장이 재편이 된 겁니다.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요 앞으로 대한민국 언론을 광고부터 해서 많은, 중재위까지 해서 다뤄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뉴스 포털의 순기능도 있었지만 사실 뉴스가 선정적인 시장성, 많이 팔리는 쪽으로 이렇게 재편이 되게 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자기 검열했던 데거시 미디어의 그런 순기능조차 약화되고 언론의 교란, 생태계가 무너지는 그런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의 스스로의 평가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자정해 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제가 기자를 시작한 이후 미디어 환경에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이 등장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모바일이 등장했던 겁

니다. 그리고 지금은 AI라는 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유통되고 국민들이 뉴스를 수용하는 그 과정은 계속 그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화를 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부작용도 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넣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언론에도 있었고 또 포털에서 그런 것들을 주도했던 일도 해 봤었고 또 앞으로 바뀌어질 AI 관련된 플랫폼의 일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체부장관이 된다면 이쪽에는, 이미 포털도 뉴스 관련 법에 들어와 있는 하나의 뉴스 유통업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문제가 뭐고 우리가 AI 시대에는 또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국민 복리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뭔지를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그냥 콘텐츠가 아니라 이것은 공익적으로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제가 최대한 앞장서서 의견을 모으고 방법들을 찾는 데 부서장으로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후보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과 콘텐츠에 대한 감수성이나 정책 방향이나 그리고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 그 연관효과 이런 것들을 죽 보면 장관직을 잘 수행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청문회를 해 보면 느낌이 있거든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마무리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KOBACO가 지금 MBC하고 KBS의 미디어렙 기능을 하고 있지요? SBS나 종편들은 다 민영 미디어렙을 운영해서 각각 하고 있는데 왜 MBC하고 KBS만 묶어 놨느냐, 이것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각각 미디어렙을 갖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KOBACO는 예전부터 있던 제도여서요 지금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 어떤 것들이 적절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혁신안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요,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정부광고의 집행이 특정 매체에 몰리는 현상 알고 계시지요? 그것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그런 지적이 계속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정부광고는 그야말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행 이후에 발생되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공익적으로 납득이 가는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특히 지역매체들에 대한 관심을 좀 특별하게 기울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면)

혹시 저것 보셨을까요? 저것 혹시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기억납니다.

○민형배 위원 관저에 있는…… 저게 원래 작품이 이런 거였습니다. 광주비엔날레에 출품된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보니까 저게 저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작품의 원형을 완전히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저 위에 보시면 이른바 일본풍 냄새가 짙게 나는, 알고 계시지요? 저 위에…… 알고 계시지요? 들어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예.

○민형배 위원 이게 검찰 독재 윤석열 내란세력이 문화예술을 짓밟은 현장입니다. 사실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 당시에 이 나라에서 문화라는 얘기를, 문화예술이라는 얘기를 꺼내기도 어려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저게 어떻게 해서 저기가 있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뭐 있었겠지요.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와 가지고 관람한 다음에 마음에 들어서 그걸 자기가 살고 있는 관저로 가져갔어요.

정부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장관으로서 어떤 각오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력이 이렇게 문화예술을 파괴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떤 각오로 직무를 수행하실 것인지 국민들 앞에서 밝혀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희영 저는 그야말로 문화정책에는 정부, 정치 이런 쪽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길이 원칙처럼 지원은 하되 들어가서 간섭하거나 그 내용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격에 맞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화계가 정치적으로 좌우되거나 영향력이 침투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과 또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께서 청문회를 정리를 하시면서 아빠 찬스, 영주권 먹튀만 해결되면 다 되는 것 같다, 또 정책 역량의 방향이나 문화예술 감수성을 보면 장관직을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민형배 위원 조 위원님, 조 위원님 말씀만 하세요, 평가는 하지 마시고.

○조은희 위원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지금 평가하셨잖아요.

○조은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민형배 위원 조 위원님 말씀만 하시라고요.

○조은희 위원 제 발언시간 지금…… 좀 세이브해 주십시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문체부 지원받던 플랫폼 대표가 부처 수장으로 가는데 이해

충돌에 대한 우려나 또 문화계에서 업자들에게 예술이 능욕당할 것 같다는 우려나 영화계에서 시장판으로 만들 것 같다는 우려, 이런 거에 대한 후보자님의 설명이 제대로, 각오가 제대로, 비전이 보여지지 않고 또 인터파크씨어터 대표 시 블루스퀘어홀 불법 증축한 것에 대한 이런 문제 또 체육계에 대한 우려 또 문화예술인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후보자의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후보자님의 비전이나 계획이 저는 부족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또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님께서…… 저는 이 질문 안 하려고 했어요, 당연히 아실 줄 알아서. 그런데 최동석 인사처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인사청문회 준비하느라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데자뷔가, 이 최동석 인사처장이 전국적인 갑질 논란으로 후보를 자진 사퇴하신 강선우 여가부장관후보자였던 분에 대해서 물으니까 TV가 없어서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 대답이랑 데자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문체부가 인사혁신처에 1년에 평균 몇 건 정도 인사 협의하는지 아십니까? 1년 평균 78회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가 흔하고,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은 정치적 타격을 위한 사건으로 다 만들어졌던 사건이라는 그런 암시를 하던 이분이 성폭력 2차 가해자지요.

문체부 공무원 인사와 징계 절차를 책임지는 수장이 될 건데 이거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문회 준비하느라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저 부분 지금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도 인정한 성폭력 사건입니다. 문체부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런 기준을 가진 인사에게 징계 절차 밟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르겠다 그러시잖아요. 이분하고 문체부 공무원 인사·징계 문제 협의가 가능하다고…… 지금 모르겠다 하시면 이거 청문회 보고 있는 문체부 직원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장관님 굉장히 편향적이다, 인사혁신처장 본인이 오늘 사과 까지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청문회 끝나면 자세히 좀 살펴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전 정부에 관련돼서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질문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자제하겠습니다.

후보님, 어제 독일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육상 400m 계주 결승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청문회 준비……

○임오경 위원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잘 못 봤지요?

U대회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페이스북에 축하한다고, 자랑

스럽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오천만 국민에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금메달을 획득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상 첫 금메달입니다. 반드시 스포츠 관련돼서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현장 중심으로 스포츠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 주는 그런 장관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여야 위원님들의 가시 같은 질의에 있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문화·예술·스포츠 그리고 관광을 대변하는 현장 정치를 저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전 장관후보들을 보게 되면 답변은 너무나 잘 하십니다. 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매번, 매년 아파하고 힘들어하십니다. 그 자리는 그 아파하는 분들을 대변해 주고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해 주는 그런 막중한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렵고 눈물 흘리는 현장에 계시는 종사자들이 있다라면 그 분들을 대변해 주시고 또 이재명 정부에게 진짜 국무위원으로서 따끔한 제안도 하시고 말씀도 해 주셔서 진짜 현장을 대변하는, 현장 정치를 하는, 진정한 발로 뛰는 그런 장관이 되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위원님 당부 잊지 않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하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후보자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몇몇 위원님들하고 영화산업 진흥에 관해서 질의응답하시는 것 유의미하게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시간드릴 테니까, 아까는 심각한 고민이 있고 근본을, 근원을 파악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주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부흥하려면 어떤 것들을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기본적으로 영화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화를 즐기는 관객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화산업으로 선순환적인 생태계가 확보될 수 있고 그 자금으로 더 좋은 영화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계의 기준에 있었던 가치사슬들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OTT들이 영화를 배급하는 하나의 큰 채널이 되면서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OTT들을 중심으로, 물론 OTT 때문에 저희 한국의 좋은 영상물들이 글로벌하게 빨리 퍼지는 장점도 있지만 저희가 그 OTT의 하청업 비슷하게 돼서 저희가 제작을 하는 시스템 자체가 과거와 다르게 탄탄하게 자리가 잡히는 게 아니라 뭔가 와해되고 붕괴되고 있는 게 제가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빨리 무너지고 있는 이 제반 벤류체인들을 탄탄하게 만들지부터 빨리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앞서 주신 말씀하고 비슷한데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잘 챙겨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어제, 이것도 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관련 기사는

좀 챙겨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문화일보에 보면 ‘오후여담’이라는 실명 칼럼이 있어요. 여기에 최현미 논설위원이 ‘영화 할인쿠폰 유감’이라는 칼럼을 썼는데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게 취지가 뭐냐 하면 새 정부가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이번 2차 추경에 27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영화 6000원 할인권 450만 매를 뿐렸어요. 그런데 이게 9월 2일까지 봐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현재 개봉되어 있는 몇몇 영화 말고는 균원적으로 영화산업이 진흥되는 데는 아무……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취지의 글이에요. 이 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글을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요약해 주신 그 내용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박정하 위원 공감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예.

○박정하 위원 마무리하게 1분만 주세요.

○위원장 김교홍 예.

○박정하 위원 공감을 하시면 이런 정책이 이렇게 쉽게, 그냥 돈이 시중에 뿌려진다고 모든 게 다 잘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정책들은 지양해 가면서 문화정책을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재재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시간입니다.

최휘영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히 최종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최휘영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 임오경 간사님, 박정하 간사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로서 오늘 저에게 보내 주신 소중한 의견,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진심 어린 충고와 말씀들은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 자녀들과 사생활에 관련된 많은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공직의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기업인으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일념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공직자로서 문화체육부장관후보자로서 이 자리가 갖는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깊이 깨닫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제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명심하고 국민

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글로벌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를 통해 국민이 행복하고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최휘영 후보자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한 최휘영 후보자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보도에 수고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별도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정연욱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이기현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박정하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일주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의사일정은 두 분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3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김교홍 김승수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박정하 배현진 손 솔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정연욱 조계원 조은희 진종오

○청가 위원(1인)

김윤덕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김용규

입법심의관 김충섭

○출석 공직후보자

최휘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현욱

감사담당관 죄원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1)

이상 5건 7월 21일 회부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5)

7월 22일 회부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5)

7월 24일 회부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0)

이상 2건 7월 2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7.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2)

7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예비심사기간 통보

2024회계연도 결산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5)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6)

이상 2건 6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기간이 8월 25일 09시 30분까지로 확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음